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허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

- 추상적 실재론의 형이상학적 문제와 그 해결 -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백 채 영

# 허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

- 추상적 실재론의 형이상학적 문제와 그 해결 -

지도교수 한 성 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백 채 영

백채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2월

위원장 김 기 현 (인)

부위원장 한 성 일 (인)

위원 이 석 재 (인)

## 국문초록

허구적 인물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에 따르면, 허구적 인물은 작가에 의해 창조되는 추상적 대상이다. 즉, 셸록 홈즈나 제인 에어 같은 허구적 인물은 시공간상 위치를 점유하지 않는 추상적 대상으로서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크립키, 셸먼, 토마슨 등의 추상적 실재론자들은 허구적 인물이 존재론적으로 국가나 단체 같은 사회적 구성물, 혹은 인공물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추상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에 대한 다른 실재론들 및 반실재론에 비해 허구적 인물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잘 포착한다는 장점을 지니며, 나는 이러한 측면에서 추상적 실재론이 허구적 인물에 대한 이론들 중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추상적 실재론이 상정하는 대상인 허구적 인물이 우리의 존재론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면, 추상적 실재론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추상적 실재론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추상적 실재론이 지닌 형이상학적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는 추상적 실재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제시할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이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추상적 실재론이 지니는 형이상학적 문제들은 크게 추상적 실재론 일반의 문제와 추상적 실재론 내부의 문제로 나뉘어진다. 먼저 반실재론자인 브룩과 에버렛이 제기한 추상적 실재론 일반의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추상적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브룩은 추상적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며, 결국 허구적 인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 대상인지를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에버렛은 추상적 실재론자가 받아들이는 허구적 인물의 동일성 조건이 성립한다고 볼 경우, 현실 세계에서 미결정적 동일성 및 비정합적 동일성이 성립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즉 추상적 실재론을 받아들이려면, 수용하기

어려운 존재론—현실 세계에  $p$ 이면서 동시에  $\neg p$ 인 대상, 혹은  $p$ 인지  $\neg p$ 인지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포함하는 존재론— 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브록과 에버렛이 제기한 문제들은 모든 형태의 추상적 실재론에 적용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설령 추상적 실재론자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해도, 추상적 실재론이 지닌 모든 형이상학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추상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 및 신화적 대상 뿐만 아니라 상상의 산물의 존재까지 수용하는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 그리고 허구적 인물과 신화적 대상은 수용하지만, 상상의 산물의 존재는 거부하는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으로 나뉘는데, 이 각각의 입장 역시 심각한 형이상학적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표적인 추상적 실재론자 중 하나인 셸먼이 지지하는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은 상상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허구적 대상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카플란은 이러한 형태의 추상적 실재론을 받아들여려면 창작과 상상이 왜 서로 다른 존재론적 효력을 갖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 두 활동 간의 존재론적 효력의 차이를 찾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고, 따라서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은 상당히 무거운 설명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토마슨이 지지하는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은 상상의 대상 역시 존재론에 포함시킴으로서 이러한 설명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또 다른 문제, 즉 “지향적 대상 이론이 발생시키는 무거운 존재론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를 떠안게 된다.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에 따르면 우리가 상상을 포함한 단순 사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현실 세계의 존재자를 늘릴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처럼 쉽게 현실 세계의 존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이 이 존재론적 책임을 수반한다면, 다수의 철학자들은 이 입장을 거부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상적 실재론자는 어느 입장을 택해도 심각한 문제

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과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 모두 선불리 해소할 수 없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제시할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을 통하여, 추상적 실재론의 틀 안에서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이 진 설명적 부담, 그리고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이 수반하는 존재론적 책임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 즉 허구적 대상은 받아들이면서 상상의 대상은 거부하는 입장의 한 갈래이다. 하지만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허구적 대상이 작가의 창작 활동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이 겪는 문제, 즉 존재론적 효력의 측면에서 창작과 상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창작 활동이 상상 활동과 근본적으로 같은 활동이다; 즉, 한 허구적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 때 상상은 어떠한 구체적 대상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어떠한 구체적 대상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의 존재자를 늘리지 못한다; 그리고 창작은 상상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활동이므로, 창작 활동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현실 세계의 존재자를 늘리지 못한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기 위해 작가의 창작 행위 뿐만이 아니라, 독자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에 의해 존재하는 추상적 존재자 중 하나인 사회적 구성물들, 예컨대 취미 활동 모임이나 학회, 국가 등이 존재하기 위해 사람들의 합의를 필요로 하듯이, 허구적 인물 역시 존재하기 위해 독자들의 합의라는 구체적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된다: 먼저 작가가 즐거리와 등장 인물, 배경 설정 등을 갖춘 허구 작품을 창작한다. 이때 작가가 ‘허구 작품을 창작했다’는 것이 ‘특정한 즐거리와 등장 인물, 배경 설정 등을 상상했다’와 크게 다른 의미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아직 어떠한 대상도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독자들이 작품을 읽고, 작가가 상상해낸 바, 즉 이 작품 속에서 이러

저러한 사건이 일어나며, 그 사건을 겪는 등장 인물 C가 어떠한 인물이다 등의 내용이 성립하는 듯이 말하는 맥락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맥락에 참여하거나, 맥락에 대해 비평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한다면 허구 작품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허구 작품이 있으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C에 대해 이러저러한 사실이 성립하는 듯이 꾸며내 말하는 맥락이 있고, 이 맥락에 참여하거나, 맥락에 대해 비평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독자들 간에 합의되면, 허구적 인물 C가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의 존재가 작가의 창작 행위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합의를 필요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서,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무계약적 추상적 실재론의 문제를 피해갈 뿐만 아니라,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이 지고 있던 설명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브록과 에버렛이 제기한 추상적 실재론 일반의 문제 역시 잘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독자들의 합의에 의해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시점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합적이거나 미결정적인 대상이 존재론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이 추상적 실재론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추상적 실재론이 지닌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추상적 실재론이 해결하지 못했던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주요어** : 허구, 허구적 인물, 허구적 이름, 추상적 실재론, 형이상학  
**학 번** : 2013-20049

# 목 차

서 론 .....	1
제 1 장 허구적 인물에 대한 가능한 입장들 .....	9
제 1 절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 .....	10
1. 구체적 실재론 .....	11
2. 신-마이농주의 .....	18
제 2 절 허구적 인물에 대한 반실재론 .....	29
1. 꾸며내기 이론 .....	30
2. 허구적 인물에 대한 허구주의 .....	36
제 2 장 추상적 실재론, 그리고 추상적 실재론에 대한 형이상학적 반론 .....	43
제 1 절 추상적 실재론 .....	45
제 2 절 추상적 실재론의 형이상학적 문제 1 .....	50
1.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의 문제: 브록의 반론 .....	51
2.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의 문제에 대한 재반론 .....	60
제 3 절 추상적 실재론의 형이상학적 문제 2 .....	64
1. 미결정적·비정합적 동일성 및 비결정적 존재의 문제 ..	64
2. 미결정적·비정합적 동일성 문제에 대한 반론 1: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 .....	71
3. 미결정적·비정합적 동일성 문제에 대한 반론 2: 토마슨 78	
제 4 절 추상적 실재론은 반실재론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는 가? .....	85



제 3 장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 .....	88
제 1 절 추상적 실재론 내부의 문제 .....	89
제 2 절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 .....	97
1. 상상과 허구 작품의 창작 .....	102
2.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의 존재 .....	107
3. 누가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인가? .....	111
제 3 절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 기존의 실재론, 반실재론	
113	
1.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과 기존의 실재론: 상상과 창작, 합의	
113	
2.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과 추상적 실재론 일반의 문제 ·	118
결    론 .....	128
참고문헌 .....	131
Abstract .....	134

## 서론

분석철학의 전통에서 허구적 인물에 대한 논의는 프레게와 러셀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허구적 인물 자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허구적 이름을 포함한 문장을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할 것인지를 논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허구적 인물이라는 대상이 아니라, 공허한 이름 중 하나인 허구적 이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허구적 이름이 어떠한 것도 지칭하지 않는 공허한 이름이라는 점을 별다른 의심없이 받아들인다.<sup>1)</sup> 결국 허구적 인물을 허구적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으로 이해한다면, 프레게와 러셀은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프레게, 러셀과 같이 이 허구적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적 전제—허구적 이름은 공허한 이름이며, 허구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공유하는 철학자들<sup>2)</sup>은 허구적 이름을 포함하는 문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대표적으로 쾨달 윌튼은 ‘믿는 체 하기 놀이make-believe game’ 개념을 통해 허구적 문장에 대한 체계적 해석의 틀을 제시했으며<sup>3)</sup>, 허구적 인물에 대한 반실재론을 옹호하는 다수의 철학자들은 ‘고쳐 쓰기 전략paraphrase strategy’, 즉 허구적 이름을 포함한 문장들을 ‘관련된 허구에 따르면’이라는 수식어구를 함축한 문장으로 고쳐 써서 이 문장들을 해석하는 전략을 허구적 문장 해석에 적용해 왔다.

그러나 모든 철학자들이 허구적 이름은 공허한 이름이며, 허구적 인물이라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며, 허구적 이름은 이 허구적 인물을 지칭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게 두 가지 철학적 입장이 이러한 ‘허구적 실재론fictional realism’을 옹호할 동기로 작

---

1) Frege(1948), Russell(1905).

2) B. Russell, K. Walton, A. Everett, G. Currie 등

3) Walton(1990).

용하였다: 첫번째 동기가 된 것은 이름에 대한 직접지시이론이다. 이름에 대한 밀 주의 Millianism로도 불리는 이 직접지시이론에 따르면, 고전적 기술주의자인 프레게와 러셀의 주장과 달리, 이름은 기술구로 분석되지 않는다. 이름의 의미론적 역할은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지시이론 하에서는, ‘셜록 홈즈’ 같은 허구적 이름이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 영국 런던의 베이커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묘사된 탐정’같은 기술구로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접지시이론을 받아들인다면, 허구적 이름이 지칭하는 어떤 대상, 즉 허구적 인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직접지시이론에 더불어 고정지시이론을 옹호하는 크립키나 샐먼 등의 철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sup>4)</sup>

한편 허구적 실재론의 두번째 동기가 된 것은 존재론적 개입 ontological commitment에 대한 콰인의 주장이었다; 콰인은 양화사가 존재를 표현하며, (한 이론에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양화사의 속박변항이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거칠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참이라고 판단하는 양화 문장에서 양화사의 속박 변항 값이 되는 그러한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다음과 같은 양화 문장들은 모두 참이다: “20세기에 영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허구적 인물들이 있다”, “어떤 허구적 인물들은 실제 인물을 본뜬 것이다”, “18세기의 어떤 허구적 인물들보다 더 복잡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묘사된 19세기의 허구적 인물들이 있다”. 이 문장들은 모두 허구적 인물을 양화하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콰인의 존재론적 개입의 기준을 받아들인다면 동시에 이 문장들이 참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문장들이 양화하는 대상, 즉 허구적 인물들이 존재

4) Kripke(2011), (2013) 및 Salmon(1998), (2002).

5) Quine(1948), p. 8: “문제는 예전보다 더 명확해졌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주어진 이론이나 담화 형식이 어떤 존재론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이론은, 그 이론에서 이루어지는 주장들이 참이기 위해 속박 변항이 지칭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자들, 그리고 오직 그 존재자들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반 인와겐은 이러한 동기에서 허구적 실재론을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철학자라 할 수 있다.<sup>6)</sup>

둘 중 어떤 동기든 간에,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철학자에게는 이제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진다: 허구적 실재론자는 먼저 반실재론 만큼이나 허구적 문장을 잘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아가 실재론자는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어떠한 대상이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허구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이 현실 세계를 제외한 가능 세계에 존재하는 구체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실재론<sup>7)</sup>, 허구적 인물이 ‘있음being’은 갖지만 존재는 갖지 않는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신-마이농주의<sup>8)</sup>, 그리고 현실 세계에 추상적 대상으로서 허구적 인물이 있다고 주장하는 추상적 실재론<sup>9)</sup>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허구적 인물에 대한 논의가 공허한 이름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는 의미론적 문제를 넘어서, 허구적 인물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되면서, 반실재론자들 역시 의미론적 측면을 넘어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허구적 인물을 받아들일 경우 생겨나는 문제들을 지적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나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다양한 입장 중, 추상적 실재론을 옹호하고자 한다. 허구적 인물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에 따르면, 설록 홈즈나 제인 에어 같은 허구적 인물은 추상적 대상으로서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반 인와겐, 크립키, 셀먼, 토마스 등의 철학자들은 모두 추상적 존재자로서의 허구적 인물이 작가에 의해 존재하게 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작가의 창작 행위에 의해 현실 세계에 존재하게 되지만, 실제 인물들과는 달리 시공간에 놓여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허구적 인물은 시공간적 위치를 가질 것을 전제하는 속성들, 예컨대 <사람임>, <여자/남자임>, <탐정임>, <런던에 거주함> 등의 속성들을 지닐 수 없다; 허구적 인물은 <허구적 인물임>, <코난 도일에 의해 창조

---

6) van Inwagen(1977).

7) Lewis(1978)

8) Parsons(1980), Zalta(1983).

9) van Inwagen(1977), Salmon(1998), (2002), Kripke(2011), (2013), Thomasson(1999).

됨>, <관련된 소설에서 탐정으로 묘사됨>처럼 시공간적 위치를 전제하지 않는 속성들만을 지닐 수 있다.

추상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이 관련된 작품을 창작한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대상임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허구적 인물이 작가의 창작 활동과는 독립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실재론 및 신-마이농주의보다 우리의 직관에 더 부합한다. 또한 추상적 실재론은 반실재론적 입장에서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들, 대표적으로 허구적 이름을 포함한 허구적 맥락 바깥의 진술들을 쉽게 해석할 수 있다; “셜록 홈즈는 허구적 인물이다”는 분명히 참이지만, 고쳐 쓰기 전략을 사용하는 반실재론자는 이 문장이 참이 되게 할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반실재론자들이 보통 ‘셜록 홈즈’를 포함한 문장에 함축되어 있다고 여기는 수식어구는 ‘코난 도일의 소설에 따르면’인데,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 셜록 홈즈는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 탐정이기 때문이다. 반면 추상적 실재론에 따르면, 셜록 홈즈는 추상적 대상으로서 <허구적 인물임>이라는 속성을 가지므로, 위 문장이 셜록 홈즈에 대하여 참이라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실재론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반실재론자인 브록은 허구적 인물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허구적 인물이 우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대상이라면,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는 것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상적 실재론자가 이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가능한 답변들은 너무 많은 존재자, 혹은 너무 적은 존재자를 존재론에 포함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한편 같은 반실재론자인 에버렛은 추상적 실재론이 채택하고 있는 허구적 인물의 동일성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추상적 실재론자가 미결정적이거나 모호한 존재자가 현실 세계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이 두 사람의 반론은 공통적으로 추상적 실재론이 허구적 인물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만약 추상적 실재론자가 이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추상적 실재론자는 애초에 받아들이고자 했던 존재자와는 전혀 다른 존재자까지 수용하는 결과를 감내하거나, 추상적 실재론 자체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추상적 실재론자는 브록과 에버렛이 제기한 이 추상적 실재론 일반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추상적 실재론 내의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추상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상상의 산물의 존재까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상상의 산물은 거부하느냐에 따라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과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으로 나뉠 수 있다. 추상적 실재론자 중 지향적 대상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토마슨은 전자, 상상의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은 지시체를 지닐 수 없다고 주장하는 셸먼은 후자를 지지한다. 카플란은 추상적 실재론자가 작가의 창작 행위에 의해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창작 행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상상 행위 역시 상상의 산물을 존재하게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추상적 실재론자는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단순한 상상을 통해 존재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존재자를 존재론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즉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은 아주 쉽게 생겨난 대상들을 모두 존재론에 수용해야 한다는 무거운 존재론적 부담을 수반한다는 것이며,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에서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을 지지하려면, 왜 창작 행위는 대상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상상 행위는 그럴 수 없는 행위인지, 다시 말해 창작 행위와 상상 행위의 존재론적 효력의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셸먼은 이 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로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을 옹호하였는데, 카플란의 지적을 받아들일 경우,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자가 창작 행위와 상상 행위 간의 차이를 성공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추상적 실재론자는 두 종류의 추상적 실재론 중 무엇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둘 중 한 입장을 택했을 때, 그 입장이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두 추상적 실재론 중 한 쪽을 지지하는 토마스 및 셸먼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입장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논문에서 나는 추상적 실재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을 옹호하고자 한다. 나아가 나는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 대신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을 택하고, 또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추상적 실재론 일반의 문제 역시 해결해줄 수 있음을 보이하고자 한다. 일단 내가 제시할 새로운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허구적 인물의 존재가 허구 작품의 존재에 의존한다는 추상적 실재론의 일반적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아가 나는 작가의 창작 행위 자체는 상상 행위와 거의 유사한 행위라는 점 역시 인정한다. 내가 일반적 추상적 실재론에서 거부하는 것은 허구적 인물의 존재 근거가 되는 허구 작품이 작가의 창작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나는 창작 행위가 상상 행위와 다른 존재론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상상 행위는 어떠한 대상도 존재하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창작 행위 역시 어떠한 대상도 존재하게 하지 못한다. 허구 작품은 작가의 창작 행위에 더불어, 작품에 서술된 내용이 실제로 성립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 맥락이 있다는 작가의 의도에 합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작가의 창작 행위에 더불어, 어떤 독자들이 작품을 읽고 작가가 상상해낸 바, 즉 작품의 내용이 성립하는 듯이 말하는 것이 적절한 맥락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맥락에 참여하거나, 맥락에 대해 비평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합의하고, 이를 (부분적으로라도) 이행한다면 허구 작품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나는 허구 작품, 그리고 이에 의존하는 허구적 인물이 속하는 특이한 존재자의 범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나는 한 국가나 단체가 사람들 간의 합의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이들이 같은 존재론적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이 새로운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허구적 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상상의 산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허구적 인물

은 허구 작품에 의존하므로, 허구 작품과 같이 작가의 창작 행위 및 독자들의 합의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 이 때 허구적 인물은 단순한 상상과 존재론적 효력에 있어 다를 바 없는 창작 행위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창작 행위에 더불어 독자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을 옹호한다면,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이 수반하던 무거운 존재론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 실재론에서 상상의 산물은 분명히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새로운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의 존재 조건 및 속성들에 대해 더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여, 브룩과 에버렛이 제기한 추상적 실재론 일반의 문제 역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이 허구적 인물에 대한 이론들 중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나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차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나는 1장에서 추상적 실재론 외에 허구적 인물에 대한 가능한 입장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소개하고, 이 입장들이 갖는 한계를 간략히 논할 것이다. 2장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갖지 않는 추상적 실재론을 소개하고, 브룩과 에버렛이 이러한 추상적 실재론 일반에 대해 제기한 반론 및 추상적 실재론자가 제시할 수 있는 가능한 재반론으로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이 재반론들이 성공적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 나는 브룩과 에버렛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자들의 기존의 재반론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설령 이들의 재반론이 유효하다고 해도 여전히 추상적 실재론자가 추상적 실재론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갖는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이때 나는 새로운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을 설명하고, 내가 제시할 새로운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이 이 추상적 실재론 내부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며, 나아가 추상적 실재론 일반의 문제까지 잘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sup>10)</sup>

---

10)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허구적 인물에 대하여, 허구적 이름의 분석에 대한 의미론적 측면의 논의 대신, 형이상학적 측면의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번째 이유는 내가 논문을 통해 허구적 인물이 어떠한 존재자여야 하는지를 보이고자 하기 때문이고, 두번째 이유는 허구적 이름의 분석에 대한 문제가 여러 입장들 중 특정 입장을 명확히 지지하거나 거부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허구적 인물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허구적 이름이 포함된 모든 진술들을 완벽히 체계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며, 근시일내에 이 중 한 입장이 이 진술들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내놓는 것 역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나는 이 논문에서 허구적 인물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 제 1 장 허구적 인물에 대한 가능한 입장들

허구적 인물에 대한 철학적 입장은,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는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실재론과 반실재론으로 분류된다.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고 보는 모든 입장이 실재론에 속하며, 이 때 허구적 인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며, 어떠한 특징을 지닌 존재자인지를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실재론을 여러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반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존재자로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반실재론은 대체로 허구적 인물이 관련된 허구 작품에 의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꾸며내진 대상일 뿐이라는 주장을 공유한다.

이 논문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추상적 실재론을 옹호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다른 종류의 실재론 및 반실재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나는 추상적 실재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장에서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과 반실재론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여기서 실재론은 크게 세 종류, 구체적 실재론과 추상적 실재론 및 신-마이농주의로 나뉘는데,<sup>11)</sup> 나는 이 세 종류의 실재론 중 추상적 실재론을 제외한 두 입장이 각각 허구적 인물을 어떤 종류의 존재자로 보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보는지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한편 반실재론자들은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므로, 허구적 인물의 존재론적 지위보다는 허구적 이름의 분석 문제에 집중하는 경

---

11)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을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한 예로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에서는 실재론을 세 가지 흐름, 즉 가능주의 Possibilism, 마이농주의 및 신-마이농주의 Meinongianism and neo-Meinongianism, 그리고 창조주의 Creationism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반실재론자인 브록은 자신의 논문 "Fictionalism about Fictional Characters"에서 실재론을 구체적 실재론과 추상적 실재론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도 내용의 차이에 따라 각 입장을 또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다. 나는 이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의 분류를 따르되, 각 실재론의 명칭에 있어서는 브록의 표현을 따를 것이다. '구체적 실재론'과 '추상적 실재론'이라는 용어가 '가능주의'와 '창조주의'보다 더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이 있다. 나는 이 논문에서 허구적 인물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에 집중하고자 하므로, 반실재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허구적 인물은 실재하지 않으며, 단지 허구 작품에 의해 존재하는 듯이 꾸며내지는 것이다—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대표적인 반실재론자들의 입장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 제 1 절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적 입장은 다양하지만, 이 입장들은 하나의 주장을 공유한다; 허구적 인물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 간단한 주장을 제대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허구적 인물은 현실 세계의 실제 사람처럼 존재하는가? 허구적 인물은 필연적 존재자인가, 우연적 존재자인가? 우연적 존재자라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 대상인가? 이 다양한 질문들에 답하는 방식에 따라, 실재론은 구체적 실재론, 신-마이농주의, 그리고 추상적 실재론으로 구분된다. 나는 이 장에서는 일단 추상적 실재론을 제외한 나머지 두 실재론이 어떠한 이론이며,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데이빗 루이스가 지지하는 구체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이 마치 실제 인간처럼 어느 시공간에 존재하는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허구적 인물인 셜록 홈즈는 인간 남자이며, 탐정을 직업으로 하고 베이커가 221b 번지에 거주하는 존재자이다. 다만 구체적 실재론자들은 이러한 허구적 인물이 현실 세계를 제외한 가능 세계에 거주하는 존재자라고 본다; 실제로 현실 세계의 베이커가 221b 번지에 남자 탐정이 거주했던 적은 없기 때문이다.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신-마이농주의 역시 허구적 인물이 현실 세계가 아닌 어떤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신마이농주의자는 그러한 가능세계에서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마이농주의자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관련된 허구 작품에서 인물에 할당한 속성들을 모두 갖는 대상이 있으며, 그 대상이 허구적 인물이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설록 홈즈가 코난 도일이 자신의 소설에서 묘사한 속성들, 예를 들면 <탐정임>, <런던에 거주함>, <왓슨 박사와 절친함> 등의 속성을 모두 갖지만, <존재함>이라는 속성은 갖지 않는다. 이 때 신-마이농주의자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어떤 식으로 속성을 지니는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파슨스Parsons와 잘타Zalta는 각각 대상이 지니는 속성의 종류를 구분하거나, 대상이 속성을 지니는 방식을 구분하여 이를 설명한다.

이 두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허구적 인물이 어떤 가능세계에 있는 개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하지만 허구적 인물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두 이론의 설명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구체적 실재론 및 신-마이농주의가 구체적으로 허구적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떠한 한계를 지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 1. 구체적 실재론

구체적 실재론에서는 허구적 인물이 현실세계의 인간처럼 한 세계 안에서 시공간적 위치를 점하는 구체적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제인 오스틴이 『오만과 편견』에서 예쁜 눈을 가졌으며 현명한 베넷 가(家)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 베넷이 있다고 기술할 때, 구체적 실재론자는 베넷가의 둘째 딸이며 현명하고 예쁜 눈을 한 엘리자베스라는 대상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 실재론자가 이러한 대상이 현실 세계에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어떤 시대에도 이 모든 속성—베넷가의 둘째 딸임, 현명함, 예쁜 눈을 가짐 등—을 모두 지닌 그러한 인물은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구체적 실재론자는 이러한 대상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혹은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상이 현실 세계를 제외한 가능 세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세계는 관련된 작품 속의 이야기가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 그러한 가능 세계이다.

이러한 구체적 실재론을 옹호한 데이빗 루이스 David Lewis는 "Truth in Fiction"에서 허구적 인물에 대한 구체적 실재론을 전개한다. 루이스의 구체적 실재론은 "허구에서의 참 truth in fiction"에 대한 그의 분석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는 "셜록 홈즈는 베이커 가에 살았다", "셜록 홈즈는 실제로 존재했다", "셜록 홈즈는 코카인을 사용하곤 했다" 등의 허구적 문장이 모두 "관련된 허구 작품에 따르면"이라는 내포적 연산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이라고 주장한다:

허구적 인물에 대한 우리의 기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이를 "이러저러한 허구에서..."라는 연산자로 시작하는 더 긴 문장의 축약본으로 보도록 하자. 이러한 구(句)는 새로운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 문장  $\phi$ 에 고정될 수 있는 내포적 연산자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문장 앞의 전치사는 축약을 통해 제거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원래 문장  $\phi$ 와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뜻에 있어서는 다른 그러한 문장이 남게 된다.<sup>12)</sup>

우리가 "셜록 홈즈는 영국인이다"라는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이 문장은 거짓이 되거나 진리치를 갖지 않게 된다; 현실에는 '셜록 홈즈'로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 없고, 따라서 이 문장은 공허한 이름을 포함한 문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문장을 내포적 연산자가 함축되어 있는 문장—"코난 도일의 소설에 따르면, 셜록 홈즈는 영국인이다"—으로 본다면, 이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코난 도일이 쓴 셜록 홈즈 시리즈의 내용에 따르면, 셜록 홈즈는 분명히 영국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허구적 인물이 등장하는 문장을 "[관련된] 허구 작품에 따르면"이라는 내포적 연산자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이러한 허구적 문장들의 진리치를 잘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는 또 다른 문제가 따라온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 $\phi$ "라는 진술이 참이라는 것을 곧  $\phi$ 가 현실 세계에서 참이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반기문은 UN 사무총장이다"가 참인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 반기문이 UN의 사무총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포적 연산자를 가진

12) Lewis(1978), pp. 37-38.

문장인 “허구 작품 F에 따르면,  $\phi$ ”라는 문장이 참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phi$ 가 F에서 참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세계를 들여다보아야 하는가?

루이스는 “허구 작품 F에 따르면,  $\phi$ ”라는 문장의 진리치를 알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세계는, F가 허구적 이야기가 아니라 알려진 사실로서 이야기되는 세계라고 주장한다. “코난 도일의 소설에 따르면, 셜록 홈즈는 탐정이다”가 참이라면, 코난 도일의 이야기가 꾸며내진 소설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세계들에서 셜록 홈즈가 탐정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허구 작품 F에 따르면,  $\phi$ ”는 F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그러한 세계들에서  $\phi$ 가 참일 때 참이다.

내가 제안하는 바는 이것이다: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세계들은, 허구가 이야기되지만, 허구가 아니라 알려진 사실로서 말해지는 세계들이다. 이야기하기 활동은 여기 우리 세계에서처럼 똑같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 활동은, 여기서 이 활동이 거짓되게 되고자 하는 바로 그 활동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참을 말하는 활동 말이다. [...] 반면, 한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알려진 사실로서 이야기되는 어떠한 세계도, 그 이야기의 즐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세계들 중에 있어야만 한다.<sup>13)</sup>

우리는 “[코난 도일의 소설에 따르면] 셜록 홈즈는 탐정이다”가 참이라고 여긴다. 루이스에 따르면, 이는 곧 코난 도일의 소설이 실제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인 그러한 가능세계에서 그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혹은 존재했던) 탐정이 있고, 그 탐정이 셜록 홈즈라는 뜻이다. 이처럼 허구 작품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의 기록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가능세계가 다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이 가능세계들에 속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이 허구 작품이 기존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 즉 허구로서 도입되고,

---

13) Ibid., p. 40.

허구로서 알려지기 때문이다.

만약 코난 도일이 홈즈 시리즈를 허구로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옳다면, “셜록 홈즈”는 여기 우리 세계에서는 지시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이 이름은, 만약 그러한 것이 있더라도, 코난 도일이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실제 셜록 홈즈를 지칭하지 않는다.<sup>14)</sup>

루이스의 방식으로 허구에서의 참을 이해할 때, 허구적 인물은 곧 현실 세계를 제외한 가능세계들 중 관련된 허구 작품이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인 그러한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으로서의 허구적 인물은 그 가능세계에서, 작품에서 인물에 할당된 속성들을 갖는 그러한 대상이다: 코난 도일의 『얼룩무늬 줄』이 실제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이야기되는 가능세계  $W_p$ 에서는, 영국인 탐정이며, 의뢰를 받고 밤마다 두 자매의 방에 나타나는 기묘한 얼룩무늬 줄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왓슨 박사와 함께 시골로 떠나는 남자가 곧 셜록 홈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허구적 인물은 우리가 거주하는 현실 세계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면, 현실의 인간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

그러나 만약 코난 도일의 소설이 실제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이야기되는 가능세계가 여럿 있고, 각 가능세계마다 셜록 홈즈인 대상이 있다면, 이 여러 대상들 중 무엇이 셜록 홈즈라고 해야 하는가? 루이스에 따르면, 한 허구 작품이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알려진 그러한 가능세계는 단 하나가 아니다: 그 작품이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 많은 가능세계들이 있으며, 그 가능세계들마다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얼룩무늬 줄』이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 각각의 가능세계마다, 영국인이고 베이커가에 살며 왓슨 박사와 절친한 남자 탐정, 즉 셜록 홈즈에 상응하는 대상이 있을 것이다. 이 때 루이스는 이 수많은 셜록 홈즈들이 모두 셜록 홈즈에 해당한다고 본다.

---

14) Ibid., p. 41.

이것이 내가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셜록 홈즈”의 뜻에 따르면, 홈즈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알려진 사실로서 이야기되는 어떠한 세계  $w$ 에서도, 이 이름이  $w$ 에서 홈즈의 역할을 하는  $w$ 의 거주민을 지칭한다는 것이다.<sup>15)</sup>

루이스의 구체적 실재론은 허구적 문장이 어떻게 진리치를 갖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셜록 홈즈는 탐정이다”, “해리 포터는 마법사이다”, “엘리자베스는 베넷 가문의 둘째 딸이다”는 각각 코난 도일의 소설, 조앤 롤링의 소설,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세계에 대하여 참이다. 또한 허구적 인물은 허구 작품이 실제 사실에 대한 이야기로 알려진 가능 세계에서 작품이 등장인물에게 할당한 속성을 갖는 대상이라고 할 때, 루이스의 이론은 어떤 의미에서 ‘베이커가에 거주하는 탐정’으로서의 셜록 홈즈가 있다고 여기는 직관 역시 잘 포착할 수 있다.<sup>16)</sup> 그러나 루이스의 구체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에 대한 이론으로서 큰 지지를 얻지는 못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첫번째 문제는 구체적 실재론에서 상정하는 허구적 인물이, 허구적 인물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과 너무나 강하게 충돌한다는 점이다. 구체적 실재론에 따르면, 허구적 인물은 작가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허구 작품을 구상하기도 전에 이미 어떤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허구적 인물이 작가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는 강한 직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구적 인물이 (비록 현실세계에는 있지 않더라도) 어느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실제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루이스의 이론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작가가 어느 가능세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현실 세계에서 허구적인 이야기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작가가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 가능세계에 있던 존재자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처럼 너무나 반직관적인 주장을

---

15) Lewis(1978), p. 41.

16) 셜록 홈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독자들이 “셜록 홈즈는 베이커가 221b 번지에 살죠?”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사례들이 이 직관을 잘 보여준다.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루이스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들이 거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한편 두번째 문제는 허구적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만 “(허구 작품)F에 따르면”이라는 연산자가 앞에 붙어있지 않은 문장들을 루이스의 이론이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루이스 역시 인지하고 있는 문제로, 그는 이러한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이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나는 홈즈에 대한 몇몇 참은 전치사구가 붙은 문장의 축약이 아니며, “홈즈”가 지시체를 갖지 않으므로 참이 아니라는 점을 서둘러 인정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문장들을 예로 들 수 있다:

홈즈는 허구적 인물이다.

코난 도일은 홈즈를 죽였지만, 나중에 부활시켰다.

홈즈는 컬트적 인기를 얻어 왔다.

홈즈는 참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갈구를 상징한다.

홈즈는 닉슨의 부정 행위를 밝히는 데 테이프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홈즈는 포와로보다 먼저 A.B.C. 살인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이러한 문장들에 대한 적절한 처방에 대해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다. 만약 마이농주의자가 이 문장들을 특별한 회피책 없이 다룰 수 있다면, 이는 내 이론에 대한 마이농주의의 이점이 될 것이다.<sup>17)</sup>

위의 인용문에서 루이스가 제시한 문장들은 모두 앞에 “코난 도일의 소설에 따르면”이라는 수식어구가 붙어있지 않거나, 붙을 수 없는 문장이다. 그리고 루이스는 이러한 수식어구가 붙지 않을 경우, 허구적 이름을 포함한 문장은 거짓이 되거나 진리치를 갖지 않게 된다고 본다; 관련된 허구 작품이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인 그러한 세계, 즉 현실 세계에서는 허구적 이름이 지시체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난 도일의 소

---

17) Ibid., p. 38.

설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세계에 대하여 참인 “홈즈는 허구적 인물이다”, “홈즈는 컬트적 인기를 얻었다” 등의 문장은 모두 거짓이거나 진리치를 갖지 않아야 한다. 한편 “홈즈는 포와로보다 더 빨리 A.B.C. 살인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처럼 두 허구적 인물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문장의 경우에는 마땅한 연산자를 붙이기가 어려운데, 두 허구적 인물 홈즈와 포와로를 모두 등장인물로 삼는 허구 작품이 없을 뿐더러, 한 인물에 적합한 연산자를 붙일 경우 결국 나머지 한 인물의 이름이 지시체 없는 이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 역시 루이스의 관점에서는 거짓이거나 진리치 없는 문장이 된다. 그러나 루이스가 인용문에서 제시한 여섯개의 문장 모두 분명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참이라고 여기는 문장이다. 결국 루이스의 구체적 실재론은 이처럼 허구적 맥락 *바깥에서* 허구적 이름을 사용한 문장 전반에 대하여 적절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갖게 된다.<sup>18)</sup>

한편 크립키는 루이스처럼 허구 작품이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알려진 가능세계를 통해 허구적 참을 분석하는 것은 결국 허구 작품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분명히 허구 작품은 어느 가능세계를 묘사한 논픽션 작품이 아니라, 어떤 세계에서든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사건을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설록 홈즈의 업적과 같은 업적을 지닌 탐정이 정말로 있었다는 발견 만으로는 코난 도일이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쓴 것이라는 점을 보일 수 없다; 실제로는 환상적일 정도로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도일이 실제 사람과 그저 우연히 닮은 사람에 대해 순수한 허구를 지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 이와 유사하게, 나는 설록 홈즈가 없다는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도 설록 홈즈가 존재했다라면, 이 사람이 설록 홈즈였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형이상학적 관점을 취한다. 몇몇 개별적인 가능한 인물, 그리고 심지어는 다윈이나 잭 더 리퍼 같은 실제 인물들도 홈즈의 업적을 수행했을 수 있지만, 이 중에 그

18) 이는 루이스의 이론 뿐만 아니라, 허구적 문장을 ‘고쳐 쓰기 전략(paraphrase strategy)’을 통해 분석하는 반실재론자들의 이론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 1.2. 참고.

가 이 업적을 수행했다면 홈즈였을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 만약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이 중 누가 홈즈였을 수 있겠는가?<sup>19)</sup>

크립키는 코난 도일이 자신의 소설에서 셜록 홈즈에게 할당한 모든 속성을 지닌 인물이 사실 현실 세계에 있다고 해도, 코난 도일의 소설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연히 실제로 베이커 가에 거주하며, 절친한 친구인 왓슨 박사와 어려운 범죄사건을 해결하러 다니는 탐정이 있었다 해도, 코난 도일 자신이 셜록 홈즈 시리즈를 허구 작품으로서, 다시 말해 꾸며낸 이야기로서 작성한 이상, ‘셜록 홈즈’가 실제 인물을 지칭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자신의 주장이 “‘홈즈’와 같은 허구적 이름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은 특정 개체를 명명한다”<sup>20)</sup>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크립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허구적 이름은 어떤 세계의 구체적 인물도 지칭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허구 작품은 그 어떤 세계에 대해서도 사실을 기술한 것일 수 없으며, 허구적 이름이 어떠한 구체적 인물도 지칭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루이스의 이론은 애초에 잘못된 지점에서 시작된 이론인 셈이다.

## 2. 신-마이농주의

한편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신-마이농주의 역시 어떤 측면에서는 루이스의 구체적 실재론과 유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신-마이농주의에서도 허구적 인물은 작품이 등장인물에 할당한 속성들을 갖기 때문이다.<sup>21)</sup> 신-마이농주의를 구체적 실재론과 구분짓는 것은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의 수용 여부이다. 신-마이농주의에서도 허구적 인물은 분명히 ‘있다’. 다만 이때 이들이 이야기하는 허구적 인물의 ‘있음’은 구체

---

19) Kripke(1970), pp. 157-158.

20) Ibid., p. 158.

21) 실제로 브록은 신-마이농주의자인 파슨스 역시 구체적 실재론자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적 (그리고 추상적) 실재론에서 이야기하는 허구적 인물의 ‘있음’과는 다르다; 구체적·추상적 실재론에서 허구적 인물이 있다는 것은 곧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는 뜻이지만, 신-마이농주의에서는 허구적 인물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존재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혹자는 신-마이농주의가 결국 반실재론에 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신-마이농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반실재론자들의 주장과도 거리가 있다. 반실재론의 관점에서 허구적 인물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구적 인물이라는 것이 있다 There are fictional characters”라는 문장은 오로지 허구적 꾸며내기 pretense의 맥락에서만 참이다. 하지만 신-마이농주의자들은 동일한 문장이 어떠한 허구 작품의 맥락, 혹은 믿는 체하기 make-believe 맥락에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허구적 인물은 존재하지는 않을지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 즉 어떻게 허구적 인물이 존재는 지니지 않으면서 여러 특징적 속성들을 지닐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신-마이농주의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마이농주의와 반실재론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반실재론자는 허구적 인물이 갖는 속성들이 어떠한 제약 하에 묶이게 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허구적 인물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서도 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신-마이농주의에서는 허구적 인물이 어떠한 속성들만을 가질 수 있는지(혹은 속성들을 어떤 방식으로만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허구적 인물이 어떠한 존재자들과 유사한지를 다룬다.

이러한 신-마이농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허구적 인물의 비존재 nonexistence로 인해 허구적 인물이 속성을 갖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문제들 중 하나는 때때로 ‘실재’와 같은 단어를 통해 표현된다: 특정 인물들이 어떻게 “실재”하느냐(혹은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 말이다. 그러나 이 “실재”라는 개념은 “실물 같은” 혹은 “생기있는”과 더 유사하다; 이는 존재와는 달리, 정도를 지닌 개념이다. [...] 대체로 이러한

관점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A) 허구적 인물들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종종 전제 되거나 때로 언급되며, 거의 논쟁적 문제로 다뤄지지 않는다)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구적 인물은 있다. (이는 별도의 주장을 필요로 하기엔 너무나 명백하다.)

(C) 그들의 비존재는 그들의 문학적 가치를 저하시키지 않는다.

내가 논의하고 있는 이론은 이 모든 것과 일치한다(혹은 최소한 이 주장들과 일관적이다).<sup>22)</sup>

우리는  $\phi$ 인  $x$ 가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 $(\exists x)\phi$ "를 사용하고,  $\phi$ 인  $x$ 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 $(\exists x)(E!x\&\phi)$ "를 사용한다.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이론에서는, 이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해낼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최우선의 이유는 아니다.<sup>23)</sup>

신-마이농주의자들은 어떠한 속성들의 조합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한 대상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때 어떤 속성의 조합들이 <존재함>이라는 속성을 포함하지 않아도, 그러한 조합에 상응하는 대상은 있다. 즉 신-마이농주의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지만 특정 속성들을 지니는 대상이 있는 것이며, 허구적 인물 역시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마이농주의자들은 황금 산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황금색임>, <산임>,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속성의 집합에 대해 한 대상이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허구적 인물, 예를 들면 셜록 홈즈 역시 황금 산과 동일한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 대상이다. 셜록 홈즈는 <탐정임>, <영국인임>, <왓슨과 절친함>, <존재하지 않음> 등의 속성들의 집합에 대한 대상인 셈이 된다.<sup>24)</sup>

---

22) Parsons(1980), p. 50.

23) Zalta(1983), p. 52.

24) 신마이농주의가 허구적 인물을 속성의 '집합'으로 다룬다고 할 때, 집합을 추상적 존재자로 이해한다면, 신마이농주의와 추상적 실재론이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추상적 실재론과 신마이농주의는 분명히 서로 다른 이론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허구적 인물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물론 이러한 마이농적 접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러셀은 "On Denoting"에서 마이농주의를 명시적으로 비판했으며, 최근에는 크레이인이 자신의 저서(2014)에서 마이농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25)</sup>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을 일단 제쳐두고, 한 대상이 '있음being'은 지니면서 '존재existence'는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신-마이농주의자들에게는 여전히 더 설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마이농주의에 따르면 속성들의 모든 조합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있다. 문제는 말 그대로 속성들의 모든 조합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대상이 있고, 존재가 속성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면, 신-마이농주의자가 존재하지 않는 설록 홈즈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설록 홈즈가 있다는 것 역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이다<sup>26)</sup>: 존재가 속성이고, 속성들의 모든 조합에 대해 상응하는 대상이 있다면, <탐정임>, <영국인임>, <왓슨과 절친함>,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속성 조합에 상응하는 대상 뿐만 아니라, <탐정임>, <영국인임>, <왓슨과 절친함>, <존재함>이라는 속성 조합에 상응하는 대상 역시 있을텐데, 신-마이농주의자는 분명히 존재하는 설록 홈즈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마이농주의자는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설록 홈즈는 있지만, 존재하는 설록 홈즈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파슨스와 잘타는 각각 대상이 갖는 속성을 두 종류로 구분하거나, 대상이 속성을 갖는 방식을 두 종류로 구분하여 동근 사각형이나 허구적 인물 등의 마이농적 대상이 존재하는 대상이 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한다. 먼저 파슨스에 따르면, 대상이 갖는 속성은 *내핵 속성 nuclear properties*과 *외핵 속성extranuclear properties*으로 나뉜다.

나는 '존재하다'를 외핵 술어로 부르고, 일반적으로 술어를 두 범주로 분류할 것이다: 내핵 속성에 대한 술어는 내핵 술어라 부를 것이며, 그 외의 술어는 외핵 술어로 부를 것이다. [...] 여기에 몇몇 사례를 제시하

---

점이다.

25) Crane(2014), chapter 3 참고.

26) Routley(1980), p. 3, p. 46 및 Priest(2005), p. 83 참고

졌다:

내핵 술어: ‘파랗다’, ‘키가 크다’, ‘소크라테스를 찼다’, ‘소크라테스에 의해 차였다’, ‘누군가를 찼다’, ‘금이다’, ‘산이다’

외핵 술어:

존재론적: ‘존재한다’, ‘신화적이다’, ‘허구적이다’

양상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향적: ‘마이농에 의해 생각되었다’, ‘누군가에 의해 숭배되었다’

기술적: ‘완전하다’<sup>27)</sup>

마이농주의에서 비존재적 대상인 마이농적 대상은 그것을 특징짓는 속성들을 지닌다.<sup>28)</sup> 여기서 파슨스가 이야기하는 내핵 속성이란 바로 대상을 특징짓는 속성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황금 산은 자신을 특징짓는 속성인 <황금임>, <산임>을 내핵 속성으로 지니며, 둥근 사각형은 <둥근>, <사각형임>을 내핵 속성으로 갖는다. 한편 외핵 속성은 대상이 지니고 있는 속성 중, 그 대상을 특징짓는 속성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속성이다. 파슨스는 어떤 속성이 다음의 공식을 만족시킬 경우, 그 속성은 외핵 속성이라고 이야기한다.

F를 포함하지 않는 내핵 속성의 집합 X가 있어서, X의 모든 속성을 지니는 모든 대상이 F를 갖는다.<sup>29)</sup>

F를 포함하지 않는 내핵 속성의 집합 X가 있어서, X의 모든 속성을 지니는 모든 대상이 F를 갖지 않는다.<sup>30)</sup>

<유니콘임>이라는 속성이 내핵 속성이고, 이 속성만을 포함하는 단집합 S가 있다고 하자. S에 속한 모든 속성을 갖는 모든 대상들은 <존재함>이라는 속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함>은 외핵 속성이다. 마찬가지로

---

27) Parsons(1980), p. 23.

28) Routley(1980), p. 3.

29) Parsons(1980), p. 24.

30) Ibid., p. 25.

지로 <동금>과 <사각형>이 모두 내핵 속성이라 하고, 이 두 내핵 속성의 집합  $S^*$ 가 있다고 하자.  $S^*$ 에 속하는 이 두 속성을 지니는 모든 대상은 <불가능함>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불가능함>은 외핵 속성이다. 파슨스는 이처럼 내핵 속성과 외핵 속성을 구분하고, 속성의 모든 조합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핵* 속성의 모든 조합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파슨스는 더 이상 <황금임>, <산임>, <존재함>이라는 속성들의 조합이 있으며,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존재함>은 외핵 속성이며, 그가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은 오로지 내핵 속성들의 조합에 상응하는 대상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슨스의 분류에 따르면, 허구적 인물이 갖는 내핵 속성은 우리가 작품에서 그 인물에게 할당했다고 보는 모든 속성들이다.

내가 제안한 이론은 거칠게 말하자면, 태생적인 허구적 대상들은 정확히 우리가 그들에게 느슨하게 할당하는 내핵 속성들을 갖는다고 추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 설록 홈즈는 정확히 그가 코난 도일 소설에서 지닌 것으로 이해되는 내핵 속성들을 지닌 대상이다.<sup>31)</sup>

우리는 코난 도일의 설록 홈즈 시리즈를 읽고, 설록 홈즈를 특징짓는 속성들로 <탐정임>, <베이커가 221b 번지에 거주함>, <왓슨 박사와 절친함> 등을 떠올리며,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읽고 주인공 엘리자베스를 특징짓는 속성들로 <베넷가의 둘째 딸임>, <현명함> 등을 떠올린다. 파슨스는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한 허구 작품에서 등장인물을 특징짓는 속성이라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 허구적 인물의 내핵 속성이라 보는 것이다. 한편 설록 홈즈와 엘리자베스 베넷은 <허구적 인물임>, <존재하지 않음>,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떠올려짐> 등의 외핵 속성을 공유할 것이다. 이 때 설록 홈즈와 엘리자베스 베넷을 비롯한 허구적 인물은 이 내핵 속성들을 갖기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존재함>이라는 속성은 외핵 속성에 속하고, 내핵 속성에 속하는 속성

31) Ibid., p. 54.



들을 갖기 위해 외핵 속성에 속하는 속성들을 가져야 할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허구적 인물은 허구적 인물이 갖는 내핵 속성의 집합이 충분히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 의해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외핵 속성을 갖게 된다.

파슨스는 최소한 허구 작품이 우연히도 세계에 대한 모든 사실을 완벽히 서술한 것이 아닌 이상, 허구적 인물이 실제 인물처럼 <존재함>이라는 외핵 속성을 지니게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그는 어떤 대상이 한 속성 P를 갖거나 갖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대상은 불완전한 것이며, 불완전한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존재하는 대상은 어떤 속성 P가 있을 때, 그 속성을 갖거나 갖지 않는다. 반면 허구적 인물 중 다수는 P를 갖지 않으면서, 동시에  $\neg P$ 를 갖는 것도 아닌 대상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열 개의 발가락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서술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소설의 주인공들은 <열 개의 발가락을 가짐>을 갖지 않으면서 동시에 <열 개의 발가락을 가지지 않음>이라는 속성 역시 갖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인간에 대해서도, 그 인간이 어떤 식으로 묘사되든 간에 <열 개의 발가락을 가짐>이라는 속성이 성립하거나, <열 개의 발가락을 가지지 않음>이 성립한다. 즉 존재하는 어떠한 대상도 한 속성을 갖지 않으면서, 그 속성의 부정 역시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슨스는 만약 어떤 대상이 불완전하다면,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허구 작품들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상들에 대해 완전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허구적 인물은 불완전한 대상이라고 본다. 결국 파슨스에 따르면, 허구적 인물은 불완전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비급진적 불완전성은 내가 이전에 정의한 불완전성 개념이다; 이 맥락에서 한 대상은, 만약 어떤 내핵 속성 p에 대하여, p와 (내핵 속성인) p의 부정 둘 다를 결합하고 있을 때 불완전하다. 일반적 허구에서 창조된 대상들은 항상 이러한 의미로 불완전한데, 왜냐하면 일반적 이야기에서 구체화된 설명들은 절대 완전히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sup>32)</sup>

하지만 만약 어떤 소설이 우연히도 등장하는 인물, 묘사되는 사건 등에 대해 완벽한 설명을 제시하며, 더 우연하게도 이것이 실제 사실에 대하여 참이라면, 파슨스는 이 소설에 관련된 허구적 인물들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그의 이론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사례는 너무나 기이하고, 실제로 있을 법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잘타는 속성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 대신, 대상이 속성을 갖는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존재하는 마이농적 대상을 거부한다. 파슨스가 ‘속성의 모든 조합에 대해 상응하는 대상이 있다’는 마이농주의의 논제를 ‘내핵 속성의 모든 조합에 대해 상응하는 대상이 있다’로 대체하는 길을 택했다면, 잘타는 기존의 논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존재하는 마이농적 대상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추상적 대상Abstract Objects』에서 잘타는 마이농적 대상이 실재하는 대상과 동일한 종류의 속성을 지니지만, 이 동일한 속성을 지니는 방식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반기문이 갖는 <남자임>이라는 속성과, 셸록 홈즈가 갖는 <남자임>이라는 속성은 동일하다. 그러나 반기문은 <남자임>을 *예화exemplify*하는 반면, 셸록 홈즈는 <남자임>이라는 속성을 *내재encode*한다.

우리는 한 대상이 속성을 충족시킨다고 하는 대신, 그 속성을 *예화한*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한 대상이 특정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대신, 그 속성을 *내재한다고* 말해야 한다.<sup>32)</sup>

종종, 이야기 전치사를 제외하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수용가능한 맥락이 있다. 만약 영어 연결사 ‘is’를 ‘내재하다’로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결과로 나온 문장들, 예컨대 “라스콜니코프는 학생이다”, “홈즈는 탐정이다” 등의 문장들을 참이라고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is’의 애매성에 대한 우리의 이전의 발견과 양립가능한 또 다른 현

---

32) Parsons(1980), p. 183.

33) Zalta(1983), p. 12.

상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이야기 연산자의 맥락에서, 이 정보는 예화술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한 맥락 밖에서는 이 정보가 내재술어로 이해되어야 한다.<sup>34)</sup>

잘타는 허구적 인물이 작품에서 할당받은 속성들, 즉 허구적 인물을 특징짓는 속성들을 내재하는 반면, 실재하는 인물이 동일한 속성을 지닐 때에는 그 속성을 예화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여성임>이라는 속성을 엘리자베스 베넷이 내재하는 반면, 김연아는 예화하며, 셜록 홈즈는 <존재함>이라는 속성을 내재하지만, 반기문은 같은 속성을 예화한다. 잘타의 이론에서 허구적 인물과 실제 인물이 구별되는 지점은 명확하다: 실제 인물인 김연아나 반기문, 그리고 허구적 인물인 엘리자베스 베넷과 셜록 홈즈는 <인간임>이라는 동일한 속성을 갖지만, 김연아와 반기문은 이 속성을 예화하는 반면, 엘리자베스 베넷과 셜록 홈즈는 이를 예화할 수 없고, 다만 내재할 뿐이다. 따라서 잘타는 속성의 모든 조합에 대하여, 심지어 <황금임>, <산임>, <존재함>이라는 조합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상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잘타는 존재를 *내재*하는 황금 산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는 (일반적 의미에서) 존재하는 황금 산을 받아들이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 잘타의 이론에서 마이농적 대상들은 <존재함>이라는 속성을 예화하지 못할 뿐, 내재하기는 한다. 만약 사람들이 마이농적 대상들을 ‘비존재적 대상’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이 대상들이 ‘<존재함>을 예화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뜻이지, 아예 <존재함>이라는 속성을 갖지 않는 대상들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잘타는 현실 세계의 대상들이 특정한 속성을 갖고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구적 인물을 포함한 마이농적 대상들도 특정한 속성을 갖고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마이농적 대상들은 존재를 내재할 뿐이다.

하지만 허구적 인물이 모든 속성을 내재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허구적 인물 역시 어떤 속성을 예화할 수 있는데, 이는 허구적 인물이 관련된 허구적 작품의 맥락 속에서 이야기될 때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

34) Ibid., p. 95.

해리 포터는 <실제로 존재함>이라는 속성을 내재하지만, 『해리 포터와 비밀의 방』 안의 맥락에서는 <실제로 존재함>을 예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허구적 인물은 <허구적 인물임> 및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속성 역시 예화한다. 이처럼 허구적 인물은 허구적 맥락 안에서 자신을 특징짓는 속성 외의 속성들은 예화할 수 있다. 따라서 설록 홈즈는 <실제로 존재함>, <탐정임> 등을 내재하고, <허구적 인물임>, <가장 사랑받는 소설 속 탐정임>, <존재하지 않음> 등의 속성을 예화한다고 볼 수 있다.

과슨스나 잘타의 신-마이농주의적 접근은 루이스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구적 인물에게 귀속시키곤 하는 속성들이 실제로 허구적 인물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직관적이다. 하지만 이들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허구적 인물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직관과 충돌한다. 신-마이농주의에 따르면, 허구적 인물은 허구 작품에 의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허구적 인물은 특정한 속성들의 조합에 상응하는 대상이며, 이 특정 속성들의 조합은 허구 작품이 창작되기 전에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관련된 허구 작품이 만들어진 후에야, 혹은 허구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는 직관을 갖고 있다. 일상적인 담화 중에 누군가 “허구적 인물인 설록 홈즈는 코난 도일이 첫 설록 홈즈 시리즈를 집필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누구도 이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허구적 인물을 속성들의 조합으로 파악하는 신-마이농주의의 관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크립키는 『지시와 존재 Reference and Existence』에서 우리가 어떤 신화적·허구적 대상이 특정한 속성들을 지닌다고 보고, 어떤 한 실재하는 대상이 그 속성들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바로 그 실재하는 대상이 곧 우리가 염두에 둔 신화적·허구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물론, 현실에 유니콘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 하에서 이것이 성립하겠는가? 혹자는 ‘글쎄, 유니콘처럼 생긴 동물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것이 곧 유니콘이 있었음이 드러나는 때일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설록 홈즈에 대한 평행 사례에서 내가 말한 바를 떠올려 보라: 비록 이야기 속의 모든 것들을 해낸 위대한 탐정이 있었다 해도, 이는 그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참된 보도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 이와 유사하게, 혹자는 여기서 만약 ‘유니콘’이라는 단어가, 그것이 허구에 등장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호랑이’와 유사한 논리를 지닌다면, ‘이 신화에 등장하는 좋은 허구이며 현재 존재하거나 멸종한 실제 종과의 어떠한 유사성도 순수히 우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크립키에 따르면, 신화나 허구 작품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며,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등의 모든 대상들 역시 꾸며내진 대상들이다. 따라서 실제로 작품에서 대상에 할당된 속성을 모두 갖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고 해도, 그 대상은 필연적으로 허구적 대상이 될 수 없다. 허구적 대상의 본질은 결국 그것이 꾸며내진 대상이라는 점이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허구적 대상을 실제로 있는 어떠한 것이든,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입장은 모두 허구적 인물의 본질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이론이 된다. 이는 마이농주의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 실재론에도 해당되는 문제점이다; 두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이 이미 오로지 가능하기만 한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개체, 혹은 이미 존재하는 속성들의 집합에 상응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허구적 인물이 허구 작품, 혹은 작품 창작 활동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라는 매우 강한 직관을 부정하게 되며, 허구적 인물은 기존에 이미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일 수 없다는 직관과 충돌하게 된다.

허구적 인물에 대한 구체적 실재론과 신-마이농주의의 설명은, 분명히 허구적 인물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직관과 상충한다; 우리는 허구적 인물이 작가의 창작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대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작가가 어느 가능세계에 있는 대상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술한 것이 허구 작품인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허

---

35) Kripke(2013), p. 48.

구적 이름을 사용할 때, 작가의 창작 활동과는 독립적으로 어느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지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혹자는 만약 허구적 인물이 구체적 실재론과 신-마이농주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이한 대상이라면, 애초에 왜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문을 품은 철학자들에게 반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에 대해 더 나은 그림을 제시해줄 수 있다.

## 제 2 절 허구적 인물에 대한 반실재론

허구적 실재론을 옹호하는 철학자들 중 구체적 실재론 혹은 신-마이농주의를 옹호하는 철학자들은 허구적 이름이 어떤 가능세계의 존재자를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허구적 인물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자들은 허구적 이름이 현실세계의 존재자를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허구적 인물에 대한 반실재론자들은 허구적 인물이 현실 세계 및 어떠한 가능세계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허구적 이름은 어떠한 맥락에서도 지시체를 갖지 않는 이름이라고 주장한다. 러셀의 기술주의에 기반한 이 입장을 이어받은 것은 윌튼, 브록, 에버렛 등으로, 이들은 기본적으로 허구 작품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며, 이러한 허구에 등장하는 이름 역시 꾸며낸 이름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반실재론에서 허구적 이름이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관련된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는 것 또한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실재론은 실재론과 달리 여러 갈래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다; 실재론자들은 허구적 인물이 어떠한 존재자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으며, 실재론자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에 따라 이들이 어떤 실재론을 옹호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반실재론자는 허구적 인물이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어떠한 종류의 대상인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허구적 인물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실재론자들의 논증은 주로 허구적 이름을 포함한

문장을 실재론 없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반실재론자들의 실재론에 대한 반론 역시 대체로 허구적 이름을 포함한 문장의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브록이나 에버렛은 허구적 인물이 실재한다고 전제할 경우 어떠한 형이상학적 문제를 갖게 되는지를 지적하고, 반실재론이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고자 하기도 했다. 나는 이들이 실재론에 제기한 형이상학적 반론이 실재론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고, 이를 뒷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일단 이 장에서는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허구적 이름을 포함한 문장을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반실재론자들의 일반적인 이론을 설명할 것이다.

## 1. 꾸며내기 이론

철학적 관점을 제쳐두고, 일상언어의 능숙한 사용자들에게 “셜록 홈즈가 있지 않은가?”, “해리 포터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허구적 인물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를 묻는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모든 질문에 대해 “있다”라고 답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더 복잡한 문장들, 예컨대 “다른 소설의 주인공의 모델이 된 그러한 허구적 인물들이 있다”, “몇몇 허구적 인물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문화를 잘 보여준다” 등의 문장들이 참이라고 여기며, “홈즈는 코난 도일에 의해 창조되었다”, “다아시는 가장 사랑받는 소설 남주인공 중 하나이다” 등의 문장 역시 참이라고 여긴다. 이는 종종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을 뒷받침해주는 일상언어적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 (1) (a) 라스콜니코프는 허구적 인물이다.
- (b) 라스콜니코프라는 인물은 도스토예프스키에 의해 창조되었다.
- (c) 라스콜니코프는 알료샤보다 더 현실적인 인물이다.
- (d) 라스콜니코프의 창조 이전에는 절대 묘사될 수 없었을 그러한 허구적 인물들이 있다.
- (e) 모든 소설에 대하여, 그 소설에 등장하거나, 그 소설에 등장하

는 인물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허구적 인물이 있다.

(1a)-(1e)는 문자 그대로, 정직하게 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견적으로, 우리가 이 문장들의 문법을 표면상에 드러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1a)-(1e)의 본래 뜻을 포착하면서 이 문장들을 다르게 표현할 명백한 체계적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 경우, 허구적 실재론자들은 (1a)-(1d)에 등장하는 ‘라스콜니코프’라는 이름이 허구적 대상을 지칭하며, (1d)-(1e)에 등장하는 양화사가 허구적 대상을 양화 범위로 삼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허구적 대상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만든다.<sup>36)</sup>

그러나 허구적 인물에 대한 반실재론자들은 허구적 이름이 지시체를 갖지 않는다고 할 때 허구적 이름이 포함된 문장들을 더 잘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들은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함축하는 듯한 문장들 역시 반실재론의 관점에서 잘 분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꾸며내기 이론pretense theory’은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허구적 이름을 포함한 문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방법을 제시하는, 반실재론의 대표적인 이론이다. 꾸며내기 이론의 핵심은 허구적 이름이 등장하는 문장 S가 있을 때, 이를 ‘관련된 허구 작품 F에 따르면, S’, 혹은 ‘작가가 F를 통해 만들어낸 가장 게임make-believe game의 맥락에서, S’로 ‘고쳐 써야paraphrase’ 한다는 점이다. 꾸며내기 이론을 옹호하는 철학자들은 프레게와 러셀이 공유하는 전제, 즉 허구적 이름은 공허한 이름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며, 따라서 허구적 이름이 어떤 실재하는 대상을 지칭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허구적 이름이 무엇도 지칭하지 않지만, 허구적 이름을 포함한 문장들은 확실한 진리치를 갖는다는 점인데, 이들은 이 ‘고쳐 쓰기 전략’을 사용하여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이 문장들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월튼Walton은 ‘믿는 체 하기 놀이make-believe game’ 개념을 도입하여 이러한 주장을 체계적으로 풀어낸 철학자이며, 에버렛Everett은 이

---

36) Everett(2005), p. 624.



입장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철학자이다. 이들은 각자 다른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큰 틀을 공유하며, 그 안에서 허구적 맥락 및 그 맥락 안에서의 어떻게 문장이 분석되는지를 설명한다.

꾸며내기 이론에 따르면, 허구 작품은 특정한 허구적 맥락을 형성한다. 그리고 우리는 작품이 만들어낸 이 허구적 맥락 안에서 마치 그 작품 안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 양 꾸며내어 말할 수 있다. 월튼은 이를 ‘믿는 체 하기 놀이make-believe game’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조약돌을 폭탄이라고 하고, 건너편의 큰 바위를 적군의 기지라고 여기면서 조약돌을 바위에 던지는 놀이를 할 때, 월튼은 이 아이들이 조약돌과 바위를 소품prop으로 활용하는 믿는 체 하기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허구 작품 F를 읽고, F에 관련된 담화에 참여할 때, 우리는 F를 소품으로 삼는 믿는 체 하기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허구 작품을 소품으로 삼아 믿는 체 하기 놀이에 참여할 때, 우리는 허구 작품에서 참인 것처럼 꾸며낸 내용들이 실제로 참인 것 마냥 가장하여 말한다. 예를 들어 내가 “홈즈는 괴팍하지만 유능한 탐정이다”라고 말하고, 상대방에 이에 동의한다고 해 보자. 이 때 나와 상대방은 코난 도일의 설록 홈즈 시리즈를 소품으로 하는 믿는 체 하기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놀이에서는 참가자가 마치 베이커가에 거주하는 설록 홈즈라는 탐정이 허구적으로 있고, 그러한 탐정이 괴팍하지만 유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허구적으로 참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누구도 꿈이 덩불 속에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거기 꿈이 있다고 상상한다고 해서, 꿈이 거기 있다는 것이 허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허구이다. 무엇이 이를 허구로 만드는가? 나무 그루터기이다. 따라서 나무 그루터기는 허구적 참을 생성한다. 이는 소품이다. 소품은 그들의 본성 혹은 존재를 통해 명제들을 허구로 만드는, 허구적 참의 생성자이다. [...] 『걸리버 여행기』를 구성하는 단어들 때문에, 달걀을 어느 쪽으로 깨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쟁을 치르는 한 뺨 키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허구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다.<sup>37)</sup>

‘믿는 체 하기 놀이’ 대신 단순히 ‘꾸며내기pretense’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에버렛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허구적 인물에 대한 담화를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허구 작품에 대한 담화는 곧 허구 작품을 통해 작가가 꾸며낸 내용이 마치 현실 세계에서 성립한 일인 양 꾸며내어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는 허구에 대한 우리의 참여가 어떠한 종류의 상상 활동, 꾸며내기, 혹은 가장 게임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전제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허구적 텍스트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가 마치 허구적 텍스트가 묘사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꾸며내는 일을 포함한다고 전제할 것이다.<sup>37)</sup>

[...] 이 모델은 우리가 허구를 소비할 때, 비록 텍스트 그 자체는 내 꾸며내기에 속하지 않아도, 허구적 텍스트를 마치 그것이 실제 정보의 원천인 듯이 다룬다고 본다. 우리는 실제 텍스트가 우리의 믿음을 이끌게 하듯, 허구적 텍스트가 우리의 상상을 이끌게 한다.<sup>38)</sup>

그러나 한 허구 작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허구 안의 꾸며진 세계가 실제 세계인 듯 가장하는 믿는 체 하기 놀이, 혹은 꾸며내기 맥락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월튼과 에버렛은 허구 작품 자체가 허구적 참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며, 우리가 어떤 생성 원칙principle of generation을 따를 때에만 허구 작품을 통해 허구적 맥락 안에서의 참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품은 누군가가 상상하거나 상상하지 않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허구적 참을 생성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실제 혹은 가능한) 상상 주체로부터 떨어져, 완전히 스스로 그러한 일을 해내는 것은 아니다. 소품은 오

---

37) Walton(1990), pp. 37-38.

38) Everett(2005), p. 638.

39) Everett(2010), p. 33.

로지 사회적, 혹은 최소한 인간적 환경에서만 기능한다. 덩불 속의 나무 그루터기는 꿈이 거기 있다는 것을 허구적 참으로 만드는데, 이는 오로지 나무 그루터기가 있을 경우, 거기에 꿈이 있다는 것이 허구적 참이게 하는 특정한 관습, 이해, 믿는 체 하기 놀이에서의 동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생성 원칙이라 부를 것이다.<sup>40)</sup>

이러한 생성 원칙은 믿는 체 하기 놀이, 혹은 꾸며내기 맥락이 놀이나 맥락의 참가자들에게 요구하는 바(예컨대 아이들의 놀이에서 놀이에 참여한 아이는 조약돌을 폭탄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 등), 게임 안에서 참인 것들 등을 결정해준다.

에반스와 월튼이 강조했듯이, 이러한 종류의 게임 혹은 꾸며내기는 게임이나 꾸며내기 내에서 무엇이 참인지,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그 게임에 참여할 때 무엇을 상상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주는 생성 원칙에 의해 지배된다. 가장 단순한 종류의 게임에서는 한 개인이 아마도 암묵적으로 특정한 생성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이 개인은 게임이 진행되고, 그녀 자신의 상상을 발전시켜 가면서 이 원칙을 변경하거나, 무언가를 더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복잡한 경우에는 다수의 개인들이 관련된 생성 원칙을 결정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 혹은 한 개인이 이미 잘 정립된 이전의 게임에 참여할 수도 있다.<sup>41)</sup>

월튼과 에버렛은 각각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생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생성 원칙은 참여자에게 요구하는 바의 차이 및 실제 상황의 개입 여부 등을 통해 구분된다.<sup>42)</sup> 예를 들어 어떤 아이들이 <조약돌은 폭탄이고, 큰 바위는 적군의 기지이다>라는 것이 믿는 체 하기 놀이 안에서 참이며, 놀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를 받아들

---

40) Walton(1990), p. 38.

41) Everett(2010), p. 18.

42) 자세한 내용은 Everett(2010), pp. 18-26 및 Walton, pp. 138-187 참고. 에버렛은 세 가지 타입의 생성 원칙을 제시하며, 월튼은 허구적 참의 직접적 생성과 간접적 생성을 구분하고, 실재성 원리The Reality Principle과 상호 믿음 원칙Mutual Belief Principle을 생성 원리로 제시한다.

여야 한다는 생성 원칙을 따른다면, 이 아이들은 같은 믿는 체 하기 놀이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와 내 친구가 홈즈가 실제 탐정들에 비해 유능한 탐정인지 아닌지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곧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를 소품으로 삼는 믿는 체 하기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셈인데, 이 때 이 놀이는 아이들의 놀이보다 더 복잡한 단계를 통해 구성된다: 먼저 우리는 일차적인 꾸며내기 맥락, 즉 셜록 홈즈 시리즈의 내용이 참인 양 해야 하는 믿는 체 하기 놀이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일차적 꾸며내기 맥락을 더 정교히 하고 확장시켜서 실제 세계에까지 적용하는 이차적인 꾸며내기 맥락에 참여해야 한다. 홈즈가 다른 현실의 탐정들과 비교해도 유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홈즈가 실제 탐정이라는 것이 일차적 꾸며내기 맥락 밖에서도 성립하는 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월튼과 에버렛에 따르면, 우리는 이처럼 각 상황에서 요구되는 생성 원칙을 만족시킴으로서 믿는 체 하기 놀이, 혹은 꾸며내기 맥락에 적절히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꾸며내기 이론이 성공하려면,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허구적 이름을 포함한 어떠한 진술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허구적 이름을 포함한 진술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첫번째 종류는 허구적 맥락 내의 진술, 예컨대 “홈즈는 베이커가 221b 번지에 산다” 같은 허구적 진술이다. 꾸며내기 이론은 고쳐 쓰기 전략을 통해 이 문장을 쉽게 해석할 수 있다. 허구적 진술은, ‘관련된 허구 작품에 따르면’이라는 수식어구를 갖는 것으로 고쳐 썼을 때 참이면 참이다. 두번째 종류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참인 존재부정문—“셜록 홈즈는 존재하지 않는다”—인데, 꾸며내기 이론이 체계적인 반실재론임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쉽게 해석될 수 있다; 허구적 인물에 대한 존재부정문은 별도의 고쳐 쓰기 과정 없이, 있는 그대로 참이다.

문제는 세 번째 종류의 진술, 즉 허구적 인물에 대한 허구적 맥락 바깥의 진술이다. 이러한 진술에 해당되는 예로는 “셜록 홈즈는 허구적 인물이다”, “홈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등의 진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고쳐 쓰

기 전략을 허구적 진술에 적용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진술을 존재부정문과 같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셜록 홈즈는 허구적 인물이다”라는 진술을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허구적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원 문장을 “코난 도일의 소설에 따르면, 셜록 홈즈는 허구적 인물이다”로 고쳐 써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원 문장이 명백히 참인 반면, 이 고쳐 쓴 문장은 명백히 거짓인데, 왜냐하면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 셜록 홈즈는 실제 탐정이지, 허구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꾸며내기 이론은 허구적 이름이 기본적으로 공허한 이름이라고 전제하므로, 이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공허한 이름을 포함하는 문장이 참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진술들—허구적 인물에 대한 허구적 맥락 바깥의 참인 진술들—이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할 근거로 제시되어 왔으며, 꾸며내기 이론이 이 문장들을 해석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꾸며내기 이론은 실재론에게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다. 물론 반실재론자들은 이 경우에도 적절한 수식어구를 새로 고안하여 고쳐 쓰기 전략을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반실재론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정확히 어떤 식의 수식어구가 이 허구적 맥락 바깥의 진술을 분석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수정된 고쳐 쓰기 전략이 기존의 꾸며내기 이론을 훼손하지 않고도 체계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가?

## 2. 허구적 인물에 대한 허구주의

브록은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 반실재론자이다. 그는 일단 허구적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주장은 꾸며내기 이론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꾸며내기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관련된 허구 작품 F에 따르면’ 같은 암묵적 수식어구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엘리자베스는 베넷 가

의 둘째 딸이다”는 사실 “『오만과 편견』에 따르면, 엘리자베스는 베넷가의 둘째 딸이다”라는 주장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 주장은 『오만과 편견』의 내용상 엘리자베스가 베넷가의 둘째 딸이라면 참이다. 하지만 브록은 허구적 인물에 대해 허구적 맥락 바깥에서 일어난 평가 진술에 대해서는, 꾸며내기 이론의 ‘암묵적 수식어구’ 전략 대신 자신의 ‘허구적 인물에 대한 허구주의fictionalism about fictional characters’를 채택할 때 더 좋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브록은 허구적 인물에 대한 진술을 허구적 진술, 존재부정문, 비평적 진술이라는 세 종류로 나누고, 기존의 꾸며내기 이론이 허구적 이름을 포함한 존재부정문 및 허구적 인물에 대한 허구적 맥락 내의 진술은 잘 해석해줄 수 있지만, 허구적 인물에 대한 허구적 맥락 바깥의 주장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기서 브록이 이야기하는 비평적 진술이 바로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허구적 맥락 바깥의 진술이며, 브록은 비평적 진술을 성공적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반실재론이 실재론의 공격에 열려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재론의 동기는 강력하다. 만약 반실재론자가 허구에 대한 그럴듯한 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녀의 이론은 비평적 진술의 의미론에 대해 (i) 허구적 인물의 존재론을 상정하지 않고 (ii) 실재론자의 적절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이 이론은 체계적이고, 허구적 인물에 대한 모든 주장에 대해 매끄럽고 단일한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sup>43)</sup>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비평적 진술을 해석하는 것은 반실재론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반실재론자는 비평적 진술의 해석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반면, 실재론자는 비평적 진술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이다. 실재론자는 “셜록 홈즈는 허구적 인물이다”, “제인 에어는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인물 중 하나이다”는 각각 허구적 인물 제인 에어와 셜록 홈즈가 실제로 갖고 있는 속성들에 대한 진술이며, 따라서 참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

43) Brock(2002), p. 8.

만약 반실재론자가 명백히 참인 비평적 진술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면,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 밖에는 남은 길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물론 반실재론자는 꾸며내기 이론을 통해 비평적 진술을 적절히 고쳐 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 실제로 에버렛은 ‘P<sub>1</sub> 꾸며내기’와 ‘P<sub>2</sub> 꾸며내기’라는 두 종류의 꾸며낸 맥락, 혹은 믿는 체하기 놀이를 구분하고, 일반적인 허구적 진술은 P<sub>1</sub> 꾸며내기 맥락 하에서, 비평적 진술은 P<sub>2</sub> 꾸며내기 맥락 하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4)</sup> 하지만 실재론자는 반실재론자가 기존의 고쳐 쓰기 전략을 수정하여 비평적 진술을 해석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이는 반실재론이 임기응변식으로 허구적 인물에 대한 진술을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체계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sup>45)</sup>

따라서 브룩은 반실재론자가 실재론에 대해 진정한 우위를 점하려면, 허구적 맥락 내의 진술 및 존재부정문 뿐만 아니라, 비평적 진술까지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신이 제시하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허구주의’가 바로 이러한 반실재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세 종류의 진술 중 비평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두 종류의 진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되, 비평적 진술은 허구주의에 따라 해석한다면 반실재론이 모든 종류의 진술을 매끄럽게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 허구적 인물에 대한 허구주의에 따르면, 어떤 비평적 진술 S가 있을 때, 이를 ‘실재론자의 가설에 따르면, S’로 고쳐 써서 해석해야 한다. 이 방법을 따를 경우, “설록 흠즈는 허구적 인물이다”라는 비평적 진술은 “실재론자의 가설에 따르면, 설록 흠즈는 허구적 인물이다”로 고쳐 써서 해

44) Everett(2005), pp. 639-641.

45) Thomasson(1999), pp. 99-100: “과학 이론 같은 다른 이론들을 평가할 때, 명백한 반례들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 이론의 실패 및 대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문제는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지칭을 피하는 언어 분석을 고안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최선의 언어 이론이냐는 점이며, 그 이론이 허구적 용어에 의해 지시되는 허구적 대상이 있음을 받아들이는지 혹은 거부하는지이다.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허구적 대상들이 있음을 받아들임으로서, 더 부드럽고, 더 적절하고, 덜 임기응변적인 언어 분석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석되어야 하는데, 이 고쳐 쓴 문장은 참이다; 실재론자들은 모두 설록 홈즈가 실제 인물과 다른 허구적 인물이라는 가설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은 반실재론자들이 기존에 받아들이고 있던 꾸며내기 이론과 전혀 충돌하지 않으므로, 반실재론자는 꾸며내기 이론의 틀 안에서 충분히 허구적 인물에 대한 허구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구적 이름이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블록이 어떤 식으로든 허구적 실재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 예컨대 수에 대한 허구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은, 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과 명백히 다르다; 우리는 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을, 수를 존재자로 받아들이는 부담을 지지 않고도 해석하고자 허구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구주의는 그러한 문장을, ‘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입장에 따르면/그러한 입장이 성립한다면’ 참인 문장으로 해석한다. 이때 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입장은 일종의 허구 작품처럼 사용된다: 우리가 “설록 홈즈는 탐정이다”를, “코난 도일의 소설에 따르면, 설록 홈즈는 탐정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참이라고 보는 것처럼, “ $2+2=4$ ”를, “수에 대한 실재론에 따르면,  $2+2=4$ ”가 참이기 때문에 참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허구적 인물에 대한 허구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은 허구적 실재론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르다. 반실재론자는 허구적 인물에 대해 존재론적 책임을 지지 않고도, 비평적 진술처럼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문장들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하여 허구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여기서 허구적 실재론은 일종의 ‘유용한 허구’로 사용된다; 그리고 비평적 진술은 ‘유용한 허구’의 맥락에서 참인 것, 즉 일종의 ‘허구적 맥락 내의 참’인 진술로 해석된다.

이름이 보여주듯, 이 입장은 다른 다양한 형이상학적 허구주의와 강한 유사성을 지닌다. 거칠게 말하자면, 어떤 이론 T에 대한 허구주의자는 T가 허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허구가 아니다. 이는 그것이 (아마도) 거짓인 이야기인 한에서 허구인 것이다.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T는 우리가 이 틀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당화해줄 특정한 효용을 갖는다; 우리가 그 이론이 참인듯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론 T에 대한 허구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T에 의해 상정된 존재자들을 수용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이야기 S에 따르면 F인 것들이 있다는 명제는 F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기 때문이다.<sup>46)</sup>

물론 브록은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이 구체적 실재론 및 추상적 실재론 등의 다양한 입장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허구적 인물에 대한 허구주의를 채택할 때, 이 중 어떠한 실재론을 ‘유용한 허구’로서 빌려오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기존의 실재론적 입장 중 하나를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재론과 추상적 실재론의 중요 논제 중 가장 우리의 직관을 잘 포착하는 것들을 뽑아내서 구성한 혼합적 실재론을 반실재론자에게 ‘유용한 허구’로 채택한다: 이 혼합적 실재론에 따르면, 허구적 인물은 구체적 대상이면서,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재론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구체적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을 구체적 대상이면서, ‘현실 세계를 배제한 가능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본 이유는, 허구 작품에서 등장인물에게 부여한 속성들을 지니는 현실 세계의 실제 인물이 있다는 것이 명백히 거짓이기 때문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추상적 실재론자는 허구적 인물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만 실제 인물과 달리 ‘추상적인’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혼합적 실재론은 허구 작품에서 등장인물에게 부여한 속성들을 지니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허구적 인물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철학자도 받아들이지 않을 주장이다. 그러나 브록은 이 말도 안 되는 실재론이 실제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허구주의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허구주의자의 목표는 어떤 실재론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평적 진술의 해석에 필요한 도구로서 실재론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허구주의를 채택한 반실재론자는 허

---

46) Brock(2002), p. 9.

구적 인물에 대한 비평적 진술 P를, ‘혼합적 실재론에 따르면, P’로 해석하고, 혼합적 실재론 하에서 P가 참이라면, P가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브록은 허구주의가 실재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sup>47)</sup>, 브록 자신의 입장은 실재론보다 반실재론에 더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이 반실재론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비평적 진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신의 다른 논문(2010)에서 실재론이 갖는 형이상학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록 자신이 반실재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브록이 제안한 허구적 인물에 대한 허구주의가 반실재론자에게 열려있는 길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꾸며내기 이론을 옹호하는 반실재론자는 비평적 진술의 해석에 있어 계속해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자 할 수 있고, 실재론자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실재론의 가설에 따르면’이라는 수식어구를 사용하여 비평적 진술을 해석하는 것이 그럴듯하지 않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어쨌든 반실재론자는 꾸며내기 이론을 택하든, 허구적 인물에 대한 허구주의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든 간에, 허구적 이름을 포함하는 모든 진술들이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해석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 이론을 택해야 할 것이다.

반실재론이 허구적 이름을 포함한 진술의 해석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실재론자들과 달리, 반실재론자들은 허구적 인물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대신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허구적 이름이 등장하는 문장들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반실재론자가 이러한 허구적 이름의 분석 문제보다, 실재론으로부터 귀결되는 형이상학적 문제들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실재론 및 반실재론의 어떠한 입

---

47) Brock(2002), p. 9: “그러나 허구주의자가 T가 문자 그대로 거짓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것이 이론 T에 대한 반실재론이라면, 허구주의 그 자체는 반실재론의 한 형태가 아니다.) 허구주의자는 T에 의해 상정된 존재자들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구주의는 실재론과 양립가능하다.”

장도 허구적 이름이 포함된 모든 진술들을 완벽히 해석할 체계적 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실재론에서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참인 존재부정문이 문제가 되고, 반실재론에서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비평적 진술의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어느 진영도 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어떠한 입장도 완벽한 해석의 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어떠한 입장도 자신의 입장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실재론자가 실재론이 가정하는 허구적 인물이라는 존재자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일 수 있다면, 반실재론자는 확실한 우위에 설 수 있다; 허구적 인물을 수용하는 것이 심각한 존재론적 문제를 일으킨다면, 허구적 이름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내놓지 못한다 해도 자연스럽게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실재론이 더 그럴듯한 이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허구적 실재론자 역시 허구적 인물을 상정하는 데에서 생겨날 수 있는 형이상학적 문제를 더 경계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어지는 글에서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추상적 실재론이 가진 형이상학적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나는 추상적 실재론이 어떠한 입장인지를 자세히 설명한 후, 추상적 실재론에 대해 브룩과 에버렛이 제기한 반론—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 존재론적 문제를 낳는다—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나는 이러한 반론에 대해 추상적 실재론자가 유효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제 2 장 추상적 실재론 및 추상적 실재론에 대한 형이상학적 반론

허구적 인물에 대한 구체적 실재론 및 신-마이농주의의 주장들은 분명히 우리가 허구적 인물에 대해 갖고 있는 직관과 충돌한다. 반실재론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차라리 허구적 인물이라는 대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철학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허구적 인물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지 않아도, 구체적 실재론 및 신-마이농주의가 갖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허구적 인물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허구적 인물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직관을 잘 포착하고 있는 입장이다. 추상적 실재론에 따르면, 허구적 인물은 작가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현실 세계의 대상이다. 그러나 허구적 인물은 실제 인간처럼 시공간적 위치를 점유하지 않는다. 허구적 인물은 국가나 집단 같은 추상적 대상이며, 어떤 사건이나 과정에 의해 존재하게 되고, 또 소멸할 수도 있는 우연적인 존재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설록 홈즈는 런던에 사는 탐정이 아니다; 설록 홈즈는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 런던에 사는 탐정으로 묘사된’ 추상적 존재자이다.

이러한 추상적 실재론은 구체적 실재론과 신-마이농주의가 받아들이지 못한 일반적 직관을 잘 수용하고 있다: 허구적 인물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실재론에서 허구적 인물은 작가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대상이지, 작가의 창작 활동과는 독립적으로 어느 가능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추상적 실재론은 구체적 실재론 및 꾸며내기 이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허구적 인물에 대한 비평적 진술 역시 문제없이 설명할 수 있다; 추상적 실재론에서 “설록 홈즈는 허구적 인물이다”가 참인 이유는, 설록 홈즈라는 추상적 존재자가 <허구적 인물임>이라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며, 이러한 설명을 위해 어떠한 식으로 문장을 고쳐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추상적 실재론이 허구적 인물

에 대한 완벽한 이론은 아니다. 추상적 실재론이 다른 두 실재론에 비해 허구적 인물에 대해 더 그럴듯한 그림을 제시하는 이론이기는 하지만, 추상적 실재론의 방식으로 허구적 인물이라는 대상을 받아들일 경우 생겨나는 형이상학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 실재론에서 생겨날 수 있는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지적한 대표적인 철학자가 브룩과 에버렛이다: 이들은 작가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현실 세계의 추상적 존재자가 허구적 인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존재자를 받아들리게 되거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존재자들을 받아들리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브룩과 에버렛의 반론은 추상적 실재론에 제기된 반론들 중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실재론에 대한 기존의 반론은 대체로 허구적 인물에 대한 참인 존재부정문의 해석 문제에 방점이 찍혀 있었으며, 실재론을 옹호하는 크립키나 셸먼 역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sup>48)</sup> 그러나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이 결국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중심 논제로 삼고 있으며, 이 논제만 반박된다면 실재론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반실재론자들이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 즉 과연 허구적 인물이라는 대상을 존재론에 도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가일 것이다.<sup>49)</sup> 이러한 측면에서 허구적 인물을 상정하는 것이 어떠한 존재론적 문제로 이어지는지를 지적한 브룩과 에버렛의 반론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 나는 일단 허구적 인물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이 어떠한 이론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해 브룩과 에버렛이 제기한 형이상학적 반론을 소개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이 둘의 반론을 추상적 실재론에 대한 반론으로 다룰 것이지만, 사실 두 사람이 타겟으로 하는 실재론이 정확히 추상적 실재론 뿐인 것은 아니다. 브룩은 구체적 실재론과 추상적 실재론에 대해 각각 반론을 제기하며, 에버렛은 자신의 반론이 모든

48) Salmon (1998), Kripke (2013) 참고.

49) Kroon and Voltolini(2011): “에버렛의 일련의 공격은 흥미롭고 혁신적이며, (언어에 초점을 맞춘 논증들에 대한 우려들을 고려할 때) 어떤 측면에서는 반실재론자가 자신이 존재론적 환상이라 믿는 것에 맞서는 전투를 실제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이다.”

종류의 실재론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브록의 경우 그가 추상적 실재론에 대해 제기한 반론만을 다룰 것이며, 에버렛의 경우에는 그의 논증을 추상적 실재론에 대한 것이라고 전제할 것이다. 이처럼 추상적 실재론에 대한 반론으로서 브록과 에버렛의 논증을 소개한 후에, 나는 이들의 반론에 대해 추상적 실재론의 입장에서 어떠한 재반론이 가능할지를 검토하고자 한다.<sup>50)</sup> 이어지는 글에서는 먼저 추상적 실재론이 허구적 인물을 어떠한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브록과 에버렛의 반론 및 기존의 추상적 실재론자들이 이에 대해 제기한 재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제 1 절 추상적 실재론

구체적 실재론과 신-마이농주의가 ‘허구적 인물은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직관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추상적 실재론은 정확히 이 두 입장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상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이 작가의 작품 창작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대상임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추상적 실재론이 바라보는 허구적 인물은 특이한 종류의 존재자이다: 추상적 실재론자들은 허구적 인물이 국가나 단체처럼 인간의 활동에 의해 존재하게 된 추상적 존재자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허구적 인물이 관련된 허구 작품에서 등장인물에게 할당된 속성들을 그대로 갖는다는 구체적 실재론과 신-마이농주의의 주장을 거부한다. 추상적 존재자—예컨대 한 국가를 떠올려보라—가 <여자임>,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앎> 등의 속성들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상적 실재론을 옹호하는 철학자로는 반 인와겐, 크립키, 셸먼, 토마슨 등이 있으며, 이들은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되, 추상적 존재자

---

50) 이처럼 논의 범위를 추상적 실재론에 대한 것으로 좁히는 주요한 이유는, 내가 이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추상적 실재론의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 추상적 실재론자들이 브록 및 에버렛의 반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허구 작품의 창작이 기본적으로 ‘인체 하기/꾸며내기pretension’ 활동이며, 따라서 허구적 이름을 통해 실제 인물을 지칭하려거나, 실제 인물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허구 작품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작가가 창작 행위를 통해 분명히 허구적 인물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꾸며내기 활동의 내용 자체는 어떠한 존재자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떠한 존재자도 만들어내지 않지만, 꾸며내기 활동이라는 구체적인 사건 자체는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추상적 실재론에서 허구적 인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대상인가? 추상적 실재론의 관점에서는 허구적 인물이 실제 인물보다는 허구 작품, 혹은 국가나 집단 같은 사회적 구성물과 존재론적으로 더 유사하다; 허구적 인물은 작가의 창작 활동에 의해 창조된 존재자이며, 현실 세계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인물처럼 시공간적 위치를 점유하거나, 시공간적 위치를 점유한다는 전제 하에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속성들을 지닐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허구적 인물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인공물<sup>51)</sup> *artifact*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루어야 한다: 코난 도일은 어느 날 이야기를 지어내는 데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인공으로서 한 허구적 인물을 창조했고, 이야기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다른 허구적 인물들 역시 창조했다. 이 인물들은, 이야기 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든 추상적 인공물이며, 코난 도일의 풍부한 상상력에서 태어난 것이다.<sup>51)</sup>

그렇다면 허구적 인물은 추상적 존재자이다. 이는 내가 정확히 언급하고자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자신만의 명백한 직관적 특징을 지닌 기준을 만족시키는 구체적인 활동인 이야기하기, 극본 쓰기, 소설 쓰기 등에 의해 존재한다. 이는 국가가 사람들 간의 구체적 관계에 의해 존재하는 추상적 존재자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더 구체적인 활동에 의해 존재하는 추

---

51) Salmon(1998), p. 300.

상적 존재자이다.<sup>52)</sup>

이와 대조적으로, 인공물 이론은 허구적 인물들을 작가에 의해 창조되고, 이야기나 유능한 독자 같은 일상적 대상에 의존하는, 구성된 존재자로 다룸으로서, 허구적 인물에 대한 아래에서 위로의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sup>53)</sup>

짧게 말하자면, 이 관점에서 허구적 인물들은 특정한 종류의 문화적 인공물이다. 다른 문화적 대상들처럼, 허구적 인물은 그 존재를 인간의 지향성에 의존한다. 다른 인공물처럼, 이들은 존재하기 위해 창조되어야 하며, 존재하기를 멈추고, 과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sup>54)</sup>

따라서 실제 인물인 내가 <인간임>, <여자임>, <우리 집의 장녀임> 등의 속성을 지니는 것에 반해, 허구적 인물은 이러한 속성들을 지니지 못한다. 허구적 인물은 작가의 창작 행위에 의해 존재하는 추상적 대상이므로, 마치 유럽연합 같은 단체나 미국 같은 국가가 <인간임>, <여자임> 등의 속성을 지닐 수 없는 것처럼, 특정한 종류의 속성만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엠마』의 주인공 엠마는 <인간임>, <여자임>, <우드하우스 가의 둘째 딸임> 등의 속성을 지니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신 엠마는 <제인 오스틴이 『엠마』에서 꾸며낸 바에 따르면, 인간임>, 혹은 <제인 오스틴의 『엠마』에서 여자로 서술됨>, <제인 오스틴의 『엠마』에 따르면, 우드하우스 가의 둘째 딸임> 등의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추상적 실재론 하에서 허구적 인물은 분명히 존재하므로, <존재함>이라는 속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허구적 인물임>, <(특정 작품의)주인공임>, <사랑받는 여성 인물 중 하나임> 등의 속성들 역시 지닐 수 있다. 즉 허구적 인물은 어디까지나 작가에 의해 창조된 추상적 존재자이므로, 시공간적 위치를 점할 것이 요구되는 구체적 대상의 속성들을 제외한 속성들만 지닐 수 있는 것이다.

---

52) Kripke(2013), p. 73.

53) Thomasson(1999), p. 16.

54) Ibid., p. 14.



따라서, 깬프 부인이 지닌 속성들은 그녀의 지위, 즉 비평의 이론적 존재자에 적절한 “문학적” 속성들 뿐이다. 만약 그녀가 나와 당신과 어떠한 속성을 공유한다면, 그 속성은 존재, 자기 동일성, 어떠한 서수와도 동일하지 않음 같은 “상위 범주”의 속성이다.<sup>55)</sup>

대상-허구 문장은 실제 세계에 대해서는 참이 아닌데, 왜냐하면 추상적 존재자들은 최악의 음악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허구에 대해서—혹은 “허구의 세계 속에서”—참이다.<sup>56)</sup>

물론, 허구적 인물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실제 사람들에 더하여, 실제로 19세기 런던에 살았던 허구적 인물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sup>57)</sup>

즉 추상적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이 현실세계에 실재한다고 주장할 때, 실제로 런던의 베이커 가에 거주하는 탐정인 그러한 사람이 영국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추상적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이 현실세계에 존재한다고 할 때, 이는 단순히 작가에 의해 특정 속성을 부여받은 추상적 존재자가 현실세계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허구적 인물이 마치 플라톤적 추상자처럼 영원불변하는 추상적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추상적 실재론자들은 허구적 인물이 허구 작품의 작가에 의해 우연적으로 존재하게 된, 작가에 의해 창조된 존재자이며,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계기에 의해 소멸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본다.

내 관점에서 소설을 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몇몇 허구적 인물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트웨인은 『허클베리 핀』을 씀으로서 소설과 허구적 인물 모두를 존재하게 만들었다. 이때 허구적 인물이 어떤 의미로는 존재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허구적 인물인

---

55) van Inwagen(1977), p. 305.

56) Salmon(1998), p. 303.

57) Kripke(2013), p. 74.

허클베리 핀은, 소설이 그리하듯이 명백히 존재한다: 나는 그러한 실제 소설이 있었다는 것이 오해였을 경우에만 내 주장을 철회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존재는 경험적 사실과는 독립적으로,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되는 수와 같은 추상적 존재자와는 다르다.<sup>58)</sup>

수학적 존재자에 대한 필요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때로 마지못해) 플라톤적으로 상상된 추상자라는 추가적 범주를 인정하게 했다: 시공간적 위치를 결여하는, 영원불변한 존재자 말이다. 그러나 허구적 인물 및 다른 의존적 추상자들은 이러한 범주에 걸맞지 않다. 비록 이 존재자들이 시공간적 위치를 결여한다는 점에서는 추상적이지만, 이들 중 다수가 우연적 존재자에 의존하며, 따라서 필연적 존재자로 특징지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추상적 인공물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특정 시점에 창조되며, 변화할 수 있고, 심지어 창조된 후에도 존재하기를 멈출 수 있다.<sup>59)</sup>

보통 우리는 수(數)가 영원불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가 추상적 존재자라는 입장을 받아들이면, 수는 영원불변한 추상적 존재자의 범주에 속하는 존재자가 된다. 추상적 실재론의 입장에서는 허구적 인물 역시 추상적 존재자이다: 수와 허구적 인물 모두 시공간 상에서 어떠한 위치도 점유하지 않으며, 시공간적 위치를 점유하는 것에 근거한 어떠한 속성도 지니지 않는다. 하지만 허구적 인물과 수의 결정적 차이는, 수가 영원불변한 존재자인 반면, 허구적 인물은 우연적으로 존재하게 된 대상이며, 변화 및 소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수는 어떠한 구체적 대상에도 그 존재를 의존하지 않지만, 허구적 인물은 구체적 사건이나 대상 등에 그 존재를 의존한다. 허구적 인물은 작가가 허구 작품을 창작하는 활동에 의해 존재하게 되며, 어떤 측면에서는 작품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허구적 인물은 비록 추상적 존재자라 할지라도, 수나 플라톤적 추상자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들과 존재론적으로 더 유사하다: 마치 의자가 사람에 의해 우연히 존재하

---

58) Kripke(2013), p. 72.

59) Thomasson(1999), p. 38.

게 되고, 변형되거나 소멸하는 것이 가능하듯이, 허구적 인물도 정확히 이러한 식으로 존재한다. 다만 의자는 시공간적 위치를 점유하지만, 허구적 인물은 그렇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추상적 실재론이 구체적 실재론 및 마이농주의에 대하여 갖는 가장 큰 장점은, 허구적 인물이 작가의 창작 행위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라는 우리의 일반적 직관을 잘 포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추상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허구적 인물을 실제 인물과는 구별하고자 하는 우리의 직관 역시 잘 포착해준다; 허구적 인물은 추상적 존재자로서 현실 세계에 우리와 같이 존재하지만, 구체적 대상인 우리와 다르게 시공간적 위치를 점하는 것과 관련된 속성들은 지닐 수 없다.

그러나 허구적 인물이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대상이라는 직관을 수용한다는 바로 이 장점 때문에, 추상적 실재론은 다른 실재론이 겪지 않는 여러 형이상학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허구적 인물에 대한 반실재론자인 브록은 추상적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시점을 적절히 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며<sup>60)</sup>, 에버렛은 추상적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에 대해 적절한 동일성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추상적 실재론자의 그림에서 허구적 인물이 존재론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sup>61)</sup>. 그리고 이들은 만약 추상적 실재론자가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추상적 실재론이 상정한 것과 같은 대상으로서의 허구적 인물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작가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허구적 인물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추상적 실재론자는 자신에게 던져진 이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 제 2 절 추상적 실재론의 형이상학적 문제 1

---

60) Brock(2010).

61) Everett(2005), (2014).

## 1.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의 문제: 브록의 논증

브록은 "The Creationist Fiction (2010)"에서 허구적 인물에 대한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모든 실재론이 존재론적 문제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때 허구적 인물에 대한 창조론이란 허구적 인물이라는 대상이 관련된 허구 작품의 작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신학에서의 창조론이 만물의 존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듯이, 허구적 인물에 대한 창조론 역시 허구적 인물에 대한 좋은 설명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에세이에서 나는 왜 허구적 인물에 대한 창조론이 비참한 실패인지를 설명할 것이다. 창조론은 신학적 창조론과 동일한 문제에 시달린다: 주어진 설명은, 그것이 설명하고자 하는 데이터보다 더 신비롭다. 그러나 신학적 창조론과는 달리, 여기서 설명되어야 할 현상은 애초에 딱히 신비롭지조차 않다.<sup>62)</sup>

브록은 반 인와겐, 셸먼, 크립키, 토마슨, 브라운 등이 허구적 인물에 대한 창조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지하는 창조론이 다음의 세 가지 논제를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개념적 논제: 허구적 인물은 허구 작품 F에서 처음 도입된 이름이나 기술구에 의해 가려내지고, F를 논하는 맥락에서 처음으로 지칭되는 개체이다

존재론적 논제: 허구적 인물은 존재한다

근본적 논제: 허구적 인물은,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 이름(혹은 지시적 기술구)이 처음 나타나는 작품의 작가에 의해 진정으로 창조된다.<sup>63)</sup>

브록은 개념적 논제가 허구적 인물과 실제 인물을 구분하고, 허구적 인물에 대한 규정적 정의를 내리는 역할을 하며, 근본적 논제는 허구적 인

---

62) Brock(2010), p. 338.

63) Ibid., p. 340.

물의 인과적 근원을 드러내준다고 설명한다. 또한 존재론적 논제는 허구적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상언어 사용자들의 직관을 잘 포착해준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 논제를 동시에 수용할 경우 존재론적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브록은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을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념적 논제와 존재론적 논제를 받아들인다면, 근본적 논제를 동시에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근본적 논제는 그 자체로 명료해 보이지만,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학적 창조론에서 신은 만물을 창조한 것으로 그려진다.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곧 세상의 모든 존재자가 존재하는 원인이 신이며, ‘그들이 존재하는 특정한 방식the way they are’ 모두가 신의 창조에 근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허구적 인물이 ‘작가에 의해 진정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이는 곧 허구적 인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어떠한 존재자인지 등이 모두 작가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본적 논제는 곧 허구적 인물의 존재 방식이나 허구적 인물이 지니는 속성들 모두가 작가의 창작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주장으로 읽힐 수 있다. 그리고 근본적 논제 자체가 그러하듯이, 이 해석 역시 허구적 인물에 대한 상식적 이해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구적 인물이 작품의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작가가 묘사한 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브록에 따르면, 근본적 논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실재론자에게 분명히 문제가 된다. 그는 심지어 루이스의 구체적 실재론 자체는 창조론과 양립 불가능해도, 그가 제시한 구체적 실재론의 어떤 논제들을 수용하면서 창조론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실재론—예컨대 작가에 의하여 어떤 인물들이 있는 가능세계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실재론—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재론은 중요한 존재론적 문제를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sup>64)</sup> 이러한 입장, 말하자면 ‘수정된 구체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이

---

64) Ibid., pp. 346-347: “루이스와 파슨스 모두 창조론자는 아니다. [...] 그러나 구체적 실재론은 근본적 논제와 결합될 수 있다. 두 논제는 서로 일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생겨나는 형이상학적 관점은, 이러한 개체들이 창조되었을

실제 인물과 같이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어떤 가능 세계의 존재자라는 루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허구적 인물이 정확히 어떤 공간에 위치하는지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수정된 구체적 실재론자가 근본적 논제를 받아들인다면, 한 허구적 인물이 위치한 특정 장소는 작가가 묘사한 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품에 인물의 위치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는 경우, 혹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가상의 장소인 경우가 빈번하며, 작품에 인물의 위치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다 해도, 작품에 기술된 바가 현실에 대한 경험적 증거와 충돌할 수도 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이들의 이론에 따를 경우, 현실 세계에 거주하는 작가가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가능 세계에 거주하는 존재자의 존재 원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통세계적 인과가 과연 이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상적 실재론자는 구체적 실재론자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추상적 실재론자는 허구적 인물이 정확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추상적 존재자는 특정 위치를 점유할 수 없는 존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록은 추상적 실재론자 역시 유사한 종류의 존재론적 문제에 직면한다고 주장한다: 추상적 실재론자는 허구적 인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할 필요가 없지만, 대신 허구적 인물이 ‘언제부터’ 존재하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상적 존재자로서의 허구적 인물이 작가에 의해 창조된 우연적 존재자라면, 허구적 인물이 처음 존재하게 된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셸록 홈즈 시리즈의 셸록 홈즈, 『오만과 편견』의 엘리자베스 베넷, 『앵무새 죽이기』의 애티커스 핀치는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었는가? 브록은 추상적 실재론자가 이러한 종류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한 존재자가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그 존재자가 어떤 것이든 간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브록 자신도 이것이 추상적

---

때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해 무엇도 말하지 않는 한, 신비로운 입장이 된다.”

실재론 고유의 문제가 아님을 인정한다:

우연한 존재자가 존재하게 되는 첫 순간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모든 철학자에게 어려운 일이다. 이는 심지어 패러다임적으로 구체적인 대상들을 고려할 때에도 그러하다. 정말로 가장 심각한 철학적 문제들 중 다수가 창조론적 우려로 표현될 수 있다.<sup>65)</sup>

브룩이 예로 드는 것처럼, 윤리학자는 낙태에 대한 논의에서 사람이 어느 시점부터 존재한다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심할 수 있고, 형이상학자는 한 조각상이 어느 시점부터 존재한다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심할 수 있다.<sup>66)</sup> 그러나 브룩에 따르면, 이들이 겪는 문제와 허구적 인물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자가 겪는 문제는 질적으로 다르다. 윤리학자들이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합의한다면, 또 형이상학자들이 조각상과 진흙덩이 간의 차이에 대해 완벽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이들은 더 이상 사람, 그리고 조각상이 언제부터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사람/조각상의 본성 및 동일성 조건은 무엇인가?’이고, 사람과 조각상이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로부터 나온 부수적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룩에 따르면, 추상적 실재론자들에게 ‘허구적 인물이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는 부수적 문제가 아니다. 어느 시점에 허구적 인물이 창조된 것인지는 허구적 인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야 답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허구적 인물이 어떻게 창조된 것인가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실재론자가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실질적 문제이다. 보통 이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는 아니라도) 제공하고자 하는 추상적 실재론자들—반 인와겐, 셸먼, 크립키, 토마슨 등—은 허구적 인물이 작가의 창작 행위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브룩은 과연 이 창조론적 관점에서 허구적 인물이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

---

65) Ibid., p. 355.

66) Ibid., pp. 355-356.

문에 성공적으로 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창조론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추상적 실재론자에게 열려있는 가장 간단한 답변은, 작가가 해당 허구적 인물의 이름을 작품에서 사용할 때 허구적 인물이 창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허구적 인물은 작가가 그 이름을 작품에서 사용할 때마다 창조되는 셈이 된다. 브록은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 시리즈 중 가장 짧은 소설인 『미지의 하숙인의 모험The Adventure of the Veiled Lodger』에서만도 ‘홈즈’라는 이름이 스물두번이나 사용되므로, 이 주장에 따르면 이 짧은 소설에서만도 스물 두 개의 셜록 홈즈가 창조된 셈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추상적 실재론자는 이처럼 너무 많은 존재자를 자신의 존재론에 포함시키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 실재론자는 작가가 허구적 인물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아니라, 처음으로 허구적 인물의 이름을 작품에서 사용할 때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지의 하숙인의 모험』에서 생겨난 셜록 홈즈는 단 하나뿐인 것이 되므로, 원래의 답변이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추상적 실재론자는 실제로 자신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에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는 동일 인물이다. 하지만 두 이름이 서로 다르고, 작품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처음 사용되므로, 이 주장에 따르면 추상적 실재론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가 서로 다른 시점부터 존재하게 되는, 서로 구별되는 존재자임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허구적 인물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 직관과 상충한다: 우리는 소설 속에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가 동일 인물이라고 여기며,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는 동일한 허구적 인물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주장은 너무 적은 존재자를 존재론에 포함시킨다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 플래너리 오코너의 단편 모음집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에는 등장 인물의 이름이 제시되지 않는 단편 소설 다수가 실려 있다. 그렇다면 추



상적 실재론자의 위 주장에 의해, 플래너리 오코너는 몇 편의 단편 소설을 창작했지만 어떠한 허구적 인물도 존재하게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따라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문학 평론가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의 지킬 박사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나누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플래너리 오코너의 단편 소설 『강』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어린 주인공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나눌 수 있고, 또 나누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작가가 정확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에서는 작가가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한 반면, 후자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혹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설득력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 실재론자는 작가가 허구적 이름을 처음 사용하는 시점이 곧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 시점에서 추상적 실재론자가 택할 수 있는 답변들 중 가장 설득력있는 것은 아마 허구적 인물이 작가의 의도에 의해 존재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하는 길일 것이다. 토마스처럼 허구적 인물의 존재론적 지위가 탁자나 의자처럼 인간의 특정 활동을 통해 존재하게 된 인공물의 존재론적 지위와 동일하다고 여기는 추상적 실재론자에게는 특히 이러한 방식의 답변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탁자는 탁자를 만들고자 하는 목수의 의도를 원인으로 하여 만들어진다. 허구적 인물이 탁자와 같은 인공물의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다면, 허구적 인물 역시 그 허구적 인물을 만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원인으로 하여 만들어질 것이다.

이 비판에 따라, 창조론자는 작가가 인물을 어떤 이유에 의해 창조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유는 작가의 의도, 즉 허구적 대상을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 및 무언가를 지칭하는 것처럼 꾸며냄으로서 그러한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면 이 의도는 작가로 하여금 관련된 꾸며냄 행위에 참여하게 하며, 이는 곧 허구적 인물을 만들어낸다.<sup>67)</sup>

---

67) Ibid., p. 360.

따라서 허구적 인물은 작가가 그 허구적 인물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어떤 인물이 있는 것처럼 꾸며낼 때, 즉 그러한 의도를 갖고 허구 작품의 창작 활동을 할 때 존재하게 된다. 브록은 이러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꾸며내기 관점에 의한 의도적 창조(Intended Creation by Pretense View), ICP**

ICP는 앞의 두 주장과는 달리 너무 많은 존재자, 혹은 너무 적은 존재자를 존재론에 포함시키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ICP에 따르면, 허구적 이름이 몇 번이나 사용되든 (혹은 사용되지 않든) 간에 작가가 만들어내고자 의도한 인물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록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ICP 역시 추상적 실재론에 있어 좋은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ICP에 대한 반례를 너무 쉽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록은 ICP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례들, 즉 작가의 의도에 의해 허구적 인물의 존재가 결정되지 않는 사례들을 세 종류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반례들을 하나씩 검토해보자. 먼저 첫번째 종류는 직관적으로 한 인물만이 존재하게 된 것 같은데, 실제 작가의 지칭 의도는 두 인물에 대해 일어난 경우이다. 그는 이 종류에 속하는 가능한 사례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를 쓸 때, 정말로 서로 구별되는 두 인물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에 대한 소설을 쓰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을 경우를 제시한다<sup>68)</sup>; 그는 실제로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두 인물을 만들어내고자 했으나, 이 원고를 처음 읽은 스티븐슨의 아내가 이런 소설은 너무 진부하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아는 내용을 지닌 동일한 제목의 소설로 원고를 고친 것이다. 이 경우 ICP는 스티븐슨의 의도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라는 두 별개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으므로, 스티븐슨의 창작 활동에 의해 두 인물이 만들어진

---

68) Ibid., p. 360.

것이라고 해야한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우리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서 주인공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라는 두 이름을 지닌 한 인물이라고 여긴다. 물론 브룩은 이러한 경우에, 작가의 의도와 달리 하나의 허구적 인물만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나는 이 사례가 그렇게 큰 설득력을 지닌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스티븐슨이 아내의 지적에 동의하여 원고를 고친 것이라면, 스티븐슨도 결국은 아내의 지적에 따르고자 하는 의도, 즉 전혀 다른 두 인격을 지닌 하나의 인물을 만들어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소설을 썼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두번째 종류의 반례는, 직관적으로는 두 인물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실제 작가의 지칭 의도에 의해서는 한 인물만이 만들어지는 사례이다.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주요 등장 인물 중 하나인 왓슨 박사는 전쟁에서 몸 한 군데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가 어떤 작품에서는 어깨에 있고, 또 다른 작품에서는 허벅지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보통 이것은 코난 도일의 실수라고 여겨지지만, 브룩은 만약 이것이 코난 도일의 의도적인 기술이라면 어떨지를 생각해보라고 제안한다; 사실 코난 도일은 왓슨 행세를 하는 두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힌트를 주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의도가 그러했다고 해도, 또 그 의도가 우리에게 알려진다고 해도, 셜록 홈즈 시리즈에는 왓슨 박사에게 해당하는 하나의 인물만이 등장한다는 우리의 직관이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ICP는 코난 도일의 원래 의도에 따라, 왓슨 박사 행세를 하는 두 인물이 창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이 두번째 반례 역시 큰 설득력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코난 도일이 사실 왓슨 박사 행세를 하는 두 인물이 있는 것인데, 아무도 이를 깨닫지 못했다고 적은 일기장이 발견되고, 이것이 일기의 내용이 알려진다면, 대부분의 독자들은 “사실 왓슨 박사가 두 명이었다니!”라는 반응을 보이지, “코난 도일이 헛소리를 했군!”이라는 반응을 보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종류의 반례는 직관적으로 다수의 인물이 존재하게 된 것 같

지만, 실제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는 어떠한 인물도 존재하게 되지 않은 경우이다. 해리 포터 시리즈를 쓴 작가 J.K.롤링이 사실 아마추어 철학자이고, 어떠한 종류의 추상적 존재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녔다고 해 보자. 이 입장에 따라 롤링은 해리 포터 시리즈를 쓰면서도, 이 창작 활동을 통해 어떠한 추상적 존재자도 생겨나지 않고, 생겨나게 하지 않을 거라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리 포터 시리즈에 의해 주인공 해리 포터와 그의 친구 헤르미온느, 론, 위즐리 식구들 등이 생겨났다고 본다 해도, ICP에 따르면 해리 포터 시리즈에 의해 생겨난 허구적 존재자는 없다. 롤링은 작품 창작 활동에 있어 어떠한 허구적 인물에 대해서도 지칭 의도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연 이 사례가 ICP에 대해 적절한 반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브록은 롤링이 어떤 철학적 의도를 전제하고 해리 포터 시리즈를 썼을 경우에, 롤링에 의해 어떠한 허구적 인물도 존재하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ICP를 옹호하는 추상적 실재론자는 작품에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지, 어떤 철학적 의도가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아마 대부분의 소설가들이 자신이 특정한 허구적 이름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이 이름으로 한 대상을 직접 지칭하겠다는 의도를 지니지 않고 소설을 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ICP가 어떠한 허구적 인물도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ICP는 한 작가가 어떠한 허구적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어떤 대상을 지칭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갖지 않았다 해도, 자신의 작품에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다면, 그 작가는 어떤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세번째 반례 역시 ICP에 대한 적절한 반례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론적으로, 나는 브록이 ICP에 제시한 모든 반례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브록이 실제로 ICP에 대해 적절한 반례를 제시할 수 있다면, 결국 허구적 인물의 존재에 대한 창조론적 관점을 지

지하는(또한 암시하는) 어떠한 실재론도 성공적일 수 없다는 블록의 결론이 성립할 수 있기는 할 것이다; 그는 창조론적 관점에 기반한 어떠한 실재론도 어느 시점부터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창조론에 기반한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후자의 문제가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인만큼, 블록의 반론이 정말로 유효하다면, 실재론자는 창조론적 관점을 버리고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거나, 실재론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 2.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의 문제에 대한 반론

나는 블록이 ICP에 대해 제시한 반례들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블록의 반론 자체가 추상적 실재론자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추상적 실재론자인 토마슨은 "Fictional Discourse and Fictionalisms"에서 다른 방식으로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의 문제를 반박한다. 그녀는 이 글에서 자신의 추상적 실재론에서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이 경우 블록이 제기한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이야기한다.

토마슨은 자신이 허구적 인물에 대한 '축소주의적 실재론자 deflationary realist'의 입장을 취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축소주의적 실재론에 따르면, '허구적 인물'이라는 용어의 사용 규칙 자체에 의해, 허구적 인물 N이 존재하는데 필요한 전부는 작가가 한 문학 작품을 쓸 때 그 이름 'N'을 꾸며냄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곳(2007)에서 이야기한 바를 빌어 말하자면, '허구적 인물' 같은 용어의 적용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한 작가는 한 이름을 꾸며내어 사용하면서 한 이야기를 썼다'가 참이라는 점을 통해 보증된다. 이러한 점이 주어졌을 때, 단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쓴 작가가 있다는 점이 주어지면 허구적 인물의 존재가 보증되는 것으로 보

인다—이 이상의 것은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후자를 받아들일 경우, 전자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해서는 안된다.<sup>69)</sup>

토마슨은 허구적 인물이 문학 작품의 존재와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존재하기 위하여 문학 작품 외의 어떠한 추가적 존재자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문학 작품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면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작가가 적절한 방식으로 꾸며내기 활동을 하고, 그 활동에서 어떤 이름을 도입하면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토마슨이 제시한 축소주의적 논증은 이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혹은 허구적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 비논쟁적인 주장: 제인 오스틴은 한 여성을 기술하고 지칭하는 듯 꾸며내기 위해 ‘엠마’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한 소설을 썼다
- 연결 원칙: 만약 한 작가가 누군가를 기술하고 지칭하는 듯 꾸며내기 위해 이름 N을 사용하여 한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그 작가는 허구적 인물을 창조한 것이다
- 추론된 주장: 오스틴은 허구적 인물을 창조했다
- 존재론적 주장: 허구적 인물이 있다<sup>70)</sup>

토마슨은 한 대상의 존재한다는 것을 ‘축소주의적 논증’을 통해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 축소주의적 논증이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 문제가 되는 대상에 대한 비논쟁적인 주장이 주어지고, 더불어 그 대상을 표현하는 용어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규칙을 표현한 개념적 참이 주어졌을 때 따라나오는 결론이 그 대상의 존재를 함축한다. 토마슨에 따르면, 이 논증은 허구적 인물에도 적용되며, 비논쟁적인 주장의 참 및 해당 표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규칙(위의 인용문에서는 ‘연결 원칙’이라 불린 것)의 참으로부터 결론이 따라나오는 것이므로, 결론을 부정하

---

69) Thomasson(2015), p. 259.

70) Ibid., p. 261.

기 위해서는 비논쟁적인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먼저 부정해야 한다. 이때 이 논증에서 첫번째 전제였던 ‘비논쟁적인 주장’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고, 두번째 전제였던 ‘연결 원칙’은 ‘허구적 인물’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 참이므로, 결국 결론을 부정하는 것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토마슨의 허구적 인물에 대한 축소주의적 논증에서 ‘비논쟁적인 주장’에 해당하는 명제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자뿐만 아니라 반실재론자 역시 받아들이는 명제이다. 그리고 만약 토마슨이 제시한 허구적 인물에 대한 연결 원칙까지 받아들인다면, 이로부터 추론된 주장 및 이 주장이 함축하는 바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토마슨은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의 존재에 대한 인과론적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최소한 자신이 제시한 축소주의적 논증에 기반한 실재론자에게는 블록의 비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블록은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실질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로부터 허구적 인물이 언제부터 존재하는 것이냐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의 존재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축소주의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의 존재에 대해 어떠한 인과적 전제도 제시하지 않으므로, 토마슨은 이 실재론에서 허구적 인물이 언제, 어디서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축소주의적 실재론은 그저 ‘허구적 인물’이라는 용어의 사용 규칙 및 허구적 인물에 대한 비논쟁적 주장으로부터,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의 참이 따라나온다는 것을 보이고, 이것들—허구적 인물에 대한 비논쟁적 주장과 ‘허구적 인물’의 사용 규칙—이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전부라고 주장할 뿐이다. 물론 ‘허구적 인물’의 사용 규칙은 어느 정도의 모호성, 혹은 미결정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허구적 인물이 창조될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허구적 인물 외의 다른 사회적 산물들, 예컨대 사회나 국가,

특정 집단 등에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 미국, 유럽 연합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보지 않듯이,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의 참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는 토마슨의 논증이 정말로 브록에 대한 유효한 재반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 나는 토마슨이 축소주의적 논증에서 ‘허구적 인물’의 개념적 참으로 제시한 연결 원칙을 정말 ‘허구적 인물’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반실재론자는 토마슨이 제시한 연결 원칙을 거부하고, <한 작가가 특정 작품에서 이름 N을 통해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 것처럼 꾸며냈다면, N을 통해 허구적 인물을 지칭하는 척 할 수 있다>가 ‘허구적 인물’의 사용에 대한 진정한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장과 ‘비논쟁적 주장’으로부터는 허구적 인물의 존재가 따라나오지 않는다. 또한 토마슨이 자신의 저서(1999)에서 작가의 행동에 의존하여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1999, p. 7)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것도 아니므로, 그녀는 여전히 허구적 인물에 대한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녀는 브록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단순히 축소주의적 실재론을 받아들이면 브록의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실재론자로서, 허구적 인물이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산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창조될 필요충분 조건을 제시하지 못해도 그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갖지는 않듯이, 허구적 인물에 대해서도 그래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에는 동의한다. 나는 우리가 UN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생겨났고 어떤 공간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집어내지 못해도, UN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허구적 인물이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어디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기 어렵다 해도, 그것이 허구적 인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는 토마슨과 달리, 브록의 반론에 대하여, 그



가 제시한 실재론의 세 논제 중 근본적 논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실재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추상적 실재론이 어떤 식으로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설명하고, 어떤 식으로 브록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 제 3 절 추상적 실재론의 형이상학적 문제 2

브록은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이 허구적 인물에 대한 창조론을 수용한다면, 실재론이 허구적 인물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에버렛은 실재론자들이 부정할 수 없는 두 논제를 제시하고, 이 논제들을 모두 수용하면 실재론자가 모호한 대상을 존재론에 포함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논문 "Against Fictional Realism"에서 실재론이 존재론적 미결정성 및 모호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의 최근 저서 『비존재자The Nonexistent』는 이에 덧붙여 실재론에 대해 더 다양하고 자세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 나는 그가 제기한 다양한 반론 중 (논문에 기반하여 저서에서 더욱 발전된) 형이상학적 측면에서의 반론을 살펴보고, 과연 이에 대해 추상적 실재론자가 성공적인 재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 1. 미결정적·비정합적 동일성의 문제 및 미결정적 존재의 문제: 에버렛의 논증

에버렛에 따르면,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자들은 다음의 두 원칙을 받아들인다:

(P1) 만약 한 이야기 속의 세계가 한 인물 a에 대한 것이고, 만약 a가 실재하는 인물이 아니면, a는 허구적 인물이다.

(P2) 만약 한 이야기가 a와 b에 대한 것이고, a와 b가 실재하는 인물이 아니면, a와 b는 이야기 속의 세계에서 동일하다 iff a라는 허구적 인

물이 b라는 허구적 인물과 동일하다.<sup>71)</sup>

그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모든 종류의 실재론들이 이 두 원칙을 받아들이며, 실재론자가 이 둘 중 어떤 원칙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두 원칙은 각각 허구적 인물에 대한 우리의 기초적인 직관을 포착하며, 허구적 인물에 대한 다른 일상적 주장들을 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sup>72)</sup> 그러나 에버렛은 실재론자가 (P1)과 (P2)를 모두 수용할 경우,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자들을 존재론에 포함시키게 되는 문제를 겪게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에버렛은 (P1)과 (P2)를 받아들이면, 실재론자는 미결정적인 존재자 및 모호한 존재자를 수용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어떤 소설 F에 a와 b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a와 b가 동일인물인지 아닌지가 F에서 미결정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F의 작가가 단순히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의심하게끔, 그리고 그 의혹이 계속 남아있도록 F를 서술했다는 것이다. 에버렛은 이러한 사례들을 A-유형 미결정성 사례와 B-유형 미결정성 사례로 나눈다. 이 중 나보코프의 『창백한 불Pale Fire』은 A-유형 미결정성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 소설에서는 존 웨이드라는 인물이 찰스 킨보테라는 인물과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적이다. 그러나 이 소설 자체가 논리적·형이상학적으로 비정합적인 가상세계의 사건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소설 속의 세계는 현실 세계와 논리적·형이상학적으로 다를 바가 없지만, 존 웨이드와 찰스 킨보테가 동일인물인지 아닌지는 미결정적이다. 이처럼 그 이야기 속 세계 자체는 정합적이지만, 소설 자체가 두 인물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않은 사례를 A-유형 미결정성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무라카미 하루키의 『태엽감는 새』는 B-유형 미결정성의 사례

---

71) Everett(2005), p. 627.

72) 예를 들어 제인 오스틴의 『엠마』에 대하여, 우리는 ‘엠마는 허구적 인물이다’가 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장이 참임은 『엠마』에 묘사된 바 및 (P1)에 의해 보여진다.

가 되는 소설이다. 이 소설 역시 두 등장인물이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소설 중 하나로, 이 소설 속에서는 쿠미코와 호텔 방에 있는 여자가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다. 그러나 나보코프의 소설과 달리, 하루키의 소설은 묘사하고 있는 세계 자체가 실제 세계와 논리적·형이상학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이야기 속 세계 자체가 비정합성 및 미결정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에버렛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소설을 B-유형 미결정성 사례로 분류한다. 이때 B-유형 미결정성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B<sub>1</sub>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작품에 등장하는 a와 b가 있을 때, (a=b)가 참이거나 거짓이지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미결정적인 사례이다. B<sub>1</sub> 유형과 A 유형에서 나타나는 미결정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비정합적 소설에서 일어날 때에는 B<sub>1</sub> 유형의 사례로 분류되고, 정합적 소설에서 일어날 때에는 A 유형의 사례로 분류된다. 한편 B<sub>2</sub> 유형에 속하는 사례에서는 (a=b)가 참도 거짓도 아니다.

이러한 A, B<sub>1</sub>, B<sub>2</sub> 유형의 미결정성 사례들에 (P2)를 적용하면, 실재론자는 진정한 존재적 미결정성을 인정하게 된다. 에버렛은 (P2)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ID') 만약 허구 F가 (I) 그 허구에서 a와 b가 존재하고, (II) 어떠한 실제 대상도 a나 b와 동일하지 않은 그러한 허구라면,

(i) 허구적 인물 a가 허구적 인물 b와 동일하다는 것이 참이다 ↔ F에서: a=b가 참이다

(ii) 허구적 인물 a가 허구적 인물 b와 동일하다는 것이 거짓이다 ↔ F에서: a=b가 거짓이다<sup>73)</sup>

이에 A, B<sub>1</sub>, B<sub>2</sub> 유형의 미결정성 사례를 각각 대입해보자. 먼저 B<sub>2</sub>유형에 속하는 사례에서는 (a=b)가 참도 거짓도 아닌데, 이를 (ID')에 적용하면, 허구적 인물 a와 허구적 인물 b가 동일하다는 것이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것이 따라나온다. 에버렛은 이것이 곧 B<sub>2</sub> 사례에서 허구적 인물

73) Everett(2013), p. 205.

a와 b 간의 동일성이 미결정적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B<sub>1</sub> 유형 및 A 유형에 속하는 사례에서는 (a=b)가 참이거나 거짓이지만, 실제로 (a=b)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불명확하다. 즉 관련된 작품 F에서 (a=b)가 참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 (ID')의 (i), (ii)에서 좌항이 미결정적이면 우항 역시 미결정적이라고 한다면, B<sub>1</sub> 유형 및 A 유형에 속하는 사례들에서도 역시 허구적 인물 a와 허구적 인물 b가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 미결정성 사례들은 실재론 하에서 모두 진정한 미결정적 동일성을 낳게 된다. 에버렛은 에반스의 논증을 통해 이 미결정적 동일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실재론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지적한다.

a가 b인지가 미결정적이라고 해 보자. 그렇다면 b는 a와 미결정적으로 동일함이라는 속성을 지닐 것이다. 하지만 a가 a와 결정적으로 동일하므로, a는 b가 지니지만 a는 지니지 않는 그러한 속성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따라  $a \neq b$ 이다.<sup>74)</sup>

이 미결정성 논증에 더하여, 에버렛은 만약 허구적 인물의 동일성에 대하여 성립하는 논리적 법칙들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는 허구 작품이 있을 경우, 실재론자는 논리적 비정합성을 지닌 존재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작품 F<sub>1</sub>에서는 모순율을 어기는 상황, 즉 (a=b)이면서 (a≠b)인 상황이 기술되고, F<sub>2</sub>에서는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아 (a=b)이면서 (b≠a)인 상황이 기술되며, F<sub>3</sub>에서는 이행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a=b)이고 (b=c)인데 (c≠a)인 그러한 상황이 기술된다고 해 보자. F<sub>1</sub>, F<sub>2</sub>, F<sub>3</sub> 속의 세계에는 모두 논리적 법칙을 어기는 존재자들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며, 실재론자가 (P1)과 (P2)를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이러한 비정합적 존재자들을 자신의 존재론에 포함시켜야 한다. 에버렛은 이 논증을 비정합성 논증이라 부르며, 비정합성 논증이 보여주듯 실재론자가 논리적 법칙을 어기는 존재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는 실재론자에게 매우 큰 존재론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

74) Everett(2005), p. 629.

한편 에버렛이 미결정성 논증과 비정합성 논증을 통하여 실재론자가 이처럼 논리적·형이상학적으로 정합적이지 않은 존재자를 받아들일 것인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면, 그는 미결정적 존재 논증을 통해 애초에 어떤 작품을 통해 특정 존재자가 존재하게 되었는지조차 미결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먼저 그는 (P1), (P2)와 더불어 실재론자가 거부할 수 없을 원칙 하나를 더 제시한다:

(E)  $i$ 는 허구적 대상이다 iff (a) 어떤 허구에서  $i$ 가 존재하는 그러한 허구가 있고, (b)  $i$ 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sup>75)</sup>

(E)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을 받아들이든, 에버렛처럼 꾸며내기 이론을 받아들이든 간에 거부할 수 없는 원칙이다. (E) 자체가 허구적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갖는 가장 자연스러운 직관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두 입장 간에 차이가 있다면, 실재론자는 (E)가 실제 세계에서 성립한다고 보는 반면, 꾸며내기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는 (E)가 믿는 체 하기 놀이의 범위 안에서 성립한다고 본다는 점 뿐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반실재론자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반면, 실재론자는 (E)를 받아들임으로서 또 다른 존재론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어떤 허구 작품  $F$ 에서 등장 인물  $h$ 가 언급되는데,  $F$ 에서  $h$ 의 존재여부가 미결정적으로 묘사된다고 해 보자. 이 경우  $h$ 는 (E)의 (b)는 만족시키지만, (a)는 만족시키지 않는다. 에버렛은 이를 통해  $h$ 가 정말로 허구적 대상인지 아닌지가 미결정적인 셈이 되며, 이는 곧  $h$ 라는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는지가 미결정적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와 반대로 『드라큘라 백작』에서처럼, 등장인물이 그 작품 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는 하지만, 사실 정말로 이러한 대상이 실재했을 수도 있는 경우에는, 그 등장인물이 (E)의 (a)는 만족시키지만, (b)를 만족시키지는 않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경우 등장인물이 (E)의 (b)를 만족

---

75) Everett(2013), p.226.

시키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미결정적이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례 역시 실재론자가 (E)를 받아들일 경우, 존재 자체가 미결정적인 대상을 허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에버렛은 (E)처럼 허구적 인물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잘 포착하는 또 다른 원칙이 있으며, 존재 귀속 양화사에 대한 이 원칙이 실재론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나는, 우리가 다음의 원칙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여기서 Q는, “QF인 것들은 G인 것들이다[Q가  $(\exists x)$  같은 양화사이고, F와 G가 각각 특정 속성을 표현한다 할 때, “QF인 것들은 G인 것들이다”는  $(\exists x)(Fx \rightarrow Gx)$ ”의 참이 F인 것들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존재 귀속 양화사이다):

(P) 만약, 허구 F의 세계에서, (a) QF인 것들이 있고, (b) F인 것들 중 그 무엇도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구적 존재자들을 양화하는 Q가 있다.<sup>76)</sup>

에버렛은 이 역시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자든 반실재론자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원칙인데, 실재론자에게는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 『반지의 제왕』에는 ‘다수의 엘프들’과 ‘다수의, 정확한 수는 미결정적인 트롤들’이 언급된다. 그리고 (P)를 받아들이면, 실재론자는 『반지의 제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엘프들이 생성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며, 미결정적인 수의 트롤이 생성되었다고 해야 한다. 이는 곧 실재론자에게 어떤 존재자들의 수가 미결정적인 경우를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여러 사례를 포함한 논증을 통해, 에버렛은 실재론자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원칙들이 실재론자에게는 존재론적 부담을 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에버렛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추상적 실재론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추상적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의 존재 및 속성 등이 관련된 허구 작품에서 해당 허구적 인물에 대해

---

76) Ibid., p. 228.

묘사한 바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결정성은 우리의 인물 간 동일성의 개념이 정교하지 않거나, 우리가 그것의 정확한 외연을 절대 알 수 없어서가 아니라, 관련된 허구가 대상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의해 인물 간 허구-내적 동일성이 결정된다는 점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몇몇 사례에서 미결정적일 수 있는 것이다.<sup>77)</sup>

에버렛은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이 다른 허구적 인물과 동일한지, 과연 이 허구적 인물이 명확히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관련된 작품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한, (P1), (P2), (E), (P) 같은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 생겨나는 존재론적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 지적하는 것이다; 허구 작품의 내용은 논리 법칙과 형이상학적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허구 작품의 내용에 따라 생겨나는 존재자가 있다면, 그 존재자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기 위한 법칙, 즉 논리 법칙과 형이상학적 원칙의 지배 하에 놓인다. 이 간격이 실재론자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문제들에 걸려들게 한다는 것이 에버렛의 반실재론 논증 전체가 공유하는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실재론자들, 특히 추상적 실재론을 지지하는 철학자들은 이러한 에버렛의 반실재론 논증을 반박하고자 노력해왔다. 토마슨의 "Fiction, Existence and Indeterminacy"와 슈니더 & 본 솔로드코프의 "In Defense of Fictional Realism"은 직접적으로 에버렛의 논문(2005)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추상적 실재론이 여전히 성공적인 이론일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주의할 점은 이들의 재반론이 미결정성 논증 및 비정합성 논증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나머지 반실재론 논증은 에버렛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간된 저서에서 처음 제시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재반론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음 절에서는 기본적으로 토마슨과 슈니더 & 본 솔로드코프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

---

77) Ibid., p. 213.

의 주장이 과연 에버렛의 논증에 대해 유효한 반론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나는 이 추상적 실재론자들의 반론에 대해 에버렛이 다시 반박한 내용들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추상적 실재론자들이 제시한 기존의 반론들이 에버렛이 제기한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단 나는 먼저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가 제시한 반론 및 이에 대한 에버렛의 재반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미결정적·비정합적 동일성의 문제에 대한 반론 1: 슈니더 & 본 솔로드코프

슈니더 & 본 솔로드코프는 "In Defense of Fictional Realism(2009)"를 통해 추상적 실재론자가 에버렛이 제기한 미결정적 동일성 및 모호한 동일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들은 에버렛이 제시한 미결정적 동일성의 사례에서 진정한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가 생겨난다고 보려면, 추상적 실재론자는 (P2)가 아니라 다른 원칙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다른 원칙을 추상적 실재론자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또 실제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므로,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는 먼저 한 허구 작품에서 두 등장 인물 간의 동일성이 미결정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설명한다. 이들에 따르면, 어떤 작품 F에 등장하는 두 인물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가 F에서 미결정적으로 기술되는 사례는 곧 F에서 (a=b)의 진리치가 틈에 빠진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미결정성에 대한 논의는 종종 진리치의 틈에 대한 것으로 대체되곤 한다: 만약 p인지 아닌지가 미결정적이면, p라는 명제는 진리치의 틈에 빠지게 된다. 즉, 참도 거짓도 아니게 된다(진리치의 틈에 대한 이론과 세번째 진리치에 대한 이론 간의 차이는 여기서는 무관하다).(p. 141)



이에 비추어 a와 b라는 두 등장인물이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소설 F를 다시 살펴보자. F 속의 세계에서는  $(a=b)$ 인지가 미결정적이다.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에 따르면, 이 때 F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F가 정말로  $(a=b)$ 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고 기술하는 소설, 즉 F 자체가 비일관적 세계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는 F 자체가 비일관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a=b)$ 가 참이거나 거짓일 테지만, 단순히  $(a=b)$ 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하지 않는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다.

먼저 F를 전자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F는 그 자체로 비일관적인 세계를 그리는 허구 작품이 될 것이다. 에버렛은 분명히 이러한 비일관적 소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다수 존재한다고 여기지만,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는 그러한 비일관적 허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비일관적 허구 작품의 경우, 작품에서  $(a=b)$ 가 참이면서 동시에  $(a \neq b)$  역시 참이 될 텐데, 논리 법칙을 여기는 이러한 허구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들은 만약 에버렛의 논증이 그 자체로 비일관적인 소설을 예시로 삼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임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일관적인 허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입장일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에버렛의 비정합성 논증이 성립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비정합적 동일성의 문제를 아예 배제한다면, 에버렛이 제시한 미결정성 사례 F는 후자의 방식으로 이해된다. 즉 허구 작품 F는  $(a=b)$ 가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지만,  $(a=b)$ 가 참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언급한 적은 없는 그러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에버렛이 제시한 사례가 이러한 식으로 이해된다면, 이 사례는 더 이상 존재론적 미결정성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만약 x와 y라는 등장인물을 갖는 어떤 소설 F\*에서 진정한 존재론적 미결정성의 문제가 생겨나려면, F\*에서  $(x=y)$ 는 참도 거짓도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만 F\*에서

( $x=y$ )의 진리치가 틈에 빠져서, (P2)를 통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허구적 인물  $x$ 와 허구적 인물  $y$ 가 동일하지도 동일하지 않지도 않은 모호한 존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버렛의 논증에 등장하는  $F$ 는 단순히 ( $a=b$ )의 진리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소설이므로, [ $F$ 에 따르면 ( $a=b$ )이다]라는 명제는 진리치 틈에 빠지는 게 아니라, 거짓을 진리치로 갖는다;  $F$  안에서 ( $a=b$ )라고 이야기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는 에버렛이 제시한 미결정성 사례를 통해 실재론자가 미결정적 존재자를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만약 에버렛이 정말로 미결정성 사례를 통해 존재론적 문제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려면, 그는 (P2)를 다음과 같은 원칙 (P2\*)로 수정해야 한다:

(P2\*) 만약 한 이야기가  $a$ 와  $b$ 에 대한 것이고,  $a$ 와  $b$ 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야기에서  $a=b$ 인지가 열려있다  $\leftrightarrow$  < $a$ 라는 허구적 존재자 =  $b$ 라는 허구적 존재자>의 진리치가 틈에 빠진다.<sup>78)</sup>

그러나 (P2\*)는 원래의 (P2)와는 달리 누구나 받아들일만한 기본적인 원칙이 아니며, 원래의 (P2)에서 따라나오는 원칙도 아니다. 따라서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는 에버렛의 미결정성 논증이 실재론자로 하여금 모호한 동일성을 받아들이게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에버렛은 『비존재자』의 8장에서 자신이 제기한 문제를 이들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는 에버렛이 실재론자의 원칙으로 제시한 (P2)가 그럴듯하지 않다고 보고, 허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동일성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 새로운 동일성 조건 하에서도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또한 에버렛은 비정합적 동일성의 문제가 단순히 묵살해 버릴 문제가 아니라, 추상적 실재론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먼저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가 왜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를 피할

---

78) Schnieder & Von Solodkoff(2009), p. 142.

수 없는지를 살펴보자.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는 에버렛이 제시한 미결정성의 사례를 한 허구 F에서 두 등장인물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가 열려있는 사례로 해석하고, 이러한 사례에서 진정한 존재론적 미결정성의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허구에 근거하여 존재론적 미결정성이 생겨나려면, [F에 따르면, (a=b)이다]의 진리치가 틈에 빠져야 하는데, 이 명제의 진리치는 명백히 거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는 이를 잘 포착하는 허구적 인물의 동일성 조건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동일성 조건이 에버렛의 (P2)보다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ACC)] 만약 a와 b가 이야기 T에서 비롯된 허구적 존재자라면, 허구적 존재자 a=허구적 존재자 b  $\leftrightarrow$  ACC<sub>T</sub>(a=b)<sup>79)</sup>

여기서 ACC<sub>T</sub>(a=b)는 ‘허구 T에 따르면, (a=b)가 참이다’를 의미하며,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는 추상적 실재론자가 (P2)가 아니라 (ACC)를 받아들인다면 미결정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 (ACC)는 다음과 동일하다:

[(ACC\*)] 만약 a와 b가 이야기 T에서 비롯된 허구적 존재자라면, 허구적 존재자 a $\neq$ 허구적 존재자 b  $\leftrightarrow$   $\neg$ ACC<sub>T</sub>(a=b)<sup>80)</sup>

F라는 허구 작품에 a와 b가 등장하는데, F에서 a와 b가 동일한지가 열려있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위의 조건의 우항이 성립하므로, 허구적 존재자 a와 b는 서로 구별되는 다른 존재자가 된다. 따라서 이 동일성 조건 하에서는 존재론적 미결정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에버렛은 (ACC) 및 (ACC\*)가 적절한 동일성 조건일 수 없으며, 설령 이 두 동일성 조건으로 (P2)를 대체한다 해도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그는 (ACC) 및 (ACC\*)에 따른 경

79) Schnieder & Von Scholodkoff(2009), p. 143.

80) Ibid., p. 143.

우, 두 등장인물의 동일성 여부를 열려있는 채로 놔둔 소설에 대해서 항상 이 두 인물이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존재자라고 해야 하는데, 이는 그 소설에 대한 너무 임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어떤 소설에서 두 주인공이 동일한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게 묘사되면, 우리는 보통 두 인물이 사실은 한 인물인 것인지, 정말로 구별되는 두 인물인 것인지를 알 수 없다고 여길 것이다. 또한 작가의 의도 자체가 정말로 두 인물의 동일성을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로 두고자 하는 것일 경우에는, 이들의 동일성 조건에 따르는 것이 작가의 의도를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 텐데, 실재론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에버렛은 한 허구에서 두 인물이 동일한지 아닌지가 열려있는 경우 오로지 한 인물만이 있거나, 항상 두 인물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임기응변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는 이러한 지적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동일성 조건이 임기응변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두 직관적인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거: 허구적 존재자의 본성(그리고 동일성)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그 이야기가 존재자  $x$ 와 존재자  $y$ 의 동일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러한 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 이야기들이 존재자  $x$ 와, 독립적으로 언급되는 존재자  $y$ 의 비-동일성을 거의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비-동일성은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 (보증되지만 파기 가능한) 기본 전제이다.<sup>81)</sup>

그러나 에버렛은 이 두 원칙이 적절한 원칙인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설령 이 두 원칙을 문제 없이 받아들인다 해도 여전히 정말로 두 인물 간의 동일성이 미결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에버렛이 제시한 미결정성 사례는 작가가 진정으로 두 인물의 동일성을 열

---

81) Ibid., p. 143.

려있는 문제로 남기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쓴 소설이므로, 이는 해석 원칙을 뛰어넘는 예외적 사례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석 원칙이 ‘청자가 복수의 표현을 동일한 지시체를 갖는 표현으로 인식할 것이라 볼 이유가 없는 한, 화자는 다른 개체에 대해 각각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sup>82)</sup>는 대화의 원칙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해도, 작가가 의도적으로 두 인물 간의 동일성 성립 여부를 불명확하게 기술하거나, 믿을 수 없는 화자를 등장시켜 이 대화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소설을 쓴다면, 해석 원칙이 이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해석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

또한 근거 원칙 역시 직관적으로 옳은 원칙 같아 보여도, 미결정성 문제를 차단해주지는 못한다. 작품에서 두 인물이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근거 원칙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두 인물 간의 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근거 원칙은 이 경우에 두 인물 간의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해주지도 않는다; 즉, 근거 원칙은 두 인물 간에 미결정적 동일성이 성립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이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근거\*: 허구적 존재자의 본성(그리고 동일성)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만약 이야기가 존재자  $x$ 와  $y$ 의 동일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면,  $x$ 와  $y$ 의 개별성이 성립한다.<sup>83)</sup>

그러나 이는 원래 근거 원칙만큼 쉽게 받아들일 만한 원칙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선결 문제의 오류를 저지르는 셈이 될 것이다.

82) Everett(2010), p. 217: “만약 연장된 담화가 동일한 개체에 대한 것이라면, 화자는, 상대방이 이 용어들이 동일한 지시체를 갖는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 개체를 다양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지칭해서는 안 된다.”

83) Ibid., p. 218.

나아가 에버렛은 원래 이들이 제시했던 근거 원칙을 받아들이면, 다음의 원칙 역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원칙과 근거 원칙을 합하면 결국 동일성의 미결정성을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근거\*\*: 허구적 존재자의 본성(그리고 동일성)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이야기가 존재자 x와 y의 개별성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개별성은 성립하지 않는다.<sup>84)</sup>

한 허구 F에서 등장인물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게 기술될 경우, 근거 원칙에 따르면 a와 b 간의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근거\*\* 원칙에 따르면, a와 b가 개별적인 대상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원래의 근거 원칙과 이 근거\*\*원칙을 받아들이면, a와 b가 동일하지도 않고 개별적이지도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즉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가 에버렛의 (P1)과 (P2)보다 적절하며, 미결정성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주장한 허구적 인물에 대한 원칙들이 사실은 에버렛이 제시한 원칙들보다 나은 바가 없는 것이다; (ACC)와 (ACC\*) 및 해석 원칙과 근거 원칙은 여전히 두 허구적 인물 간의 동일성이 진정으로 미결정적인 상황을 수용하게 하며, 이는 실재론자에게 큰 존재론적 부담을 안긴다.

한편 에버렛은 두 인물 a와 b가 동일하면서 동시에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는 비정합적 소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러한 비정합적 허구 작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근거 원칙 및 이로부터 추론되는 근거\*\*원칙에 따를 경우, 이들은 비정합적 소설을 받아들여야 하고, 비정합적 소설을 받아들인다면 진정한 비정합적 동일성의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 역시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에 따르면, 비정합적인 소설은 허구적 인물의 동일성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줄 수 없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어떤 소설 F에서 두 인물 a, b가 동일하면서 동

---

84) Ibid., p. 218.

일하지 않다고 분명히 쓰여 있고, 작가도 진정한 비정합성이 유지되도록 의도하면서 F를 썼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근거 원칙 및 근거\*\* 원칙에 따르면, 이야기는 충분히 a와 b가 서로 개별적이지 않으면서 동일하지도 않다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가 자신들이 제시한 근거 원칙을 정말로 수용하고 있다면, 이들은 비일관적인 소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로부터 따라나오는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의 논증에 대하여, 에버렛이 설득력있는 반론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에버렛이 지적한 것처럼, 이들이 제시한 근거 원칙과 해석 원칙 및 동일성 조건을 받아들인다 해도, 추상적 실재론자는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비정합적 허구 작품을 논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정당한 근거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 자신들이 제시한 근거 원칙에 따르면 비정합적 허구 작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비정합적 동일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반론을 통해 에버렛의 논증이 반박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3. 미결정적·비정합적 동일성 문제에 대한 반론 2: 토마슨

그러나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가 에버렛에 맞서 추상적 실재론을 지켜내고자 한 유일한 철학자들은 아니다; 추상적 실재론의 열렬한 지지자 중 하나인 토마슨은 "Fiction, Existence and Indeterminacy (2010)"에서 추상적 실재론자가 에버렛이 제기한 형이상학적 문제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여기서 그녀가 취하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의 전략과 동일하다; 토마슨은 추상적 실재론자가 에버렛이 제시한 원칙 (P1), (P2) 대신 다른 원칙을 수용함으로써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는 에버렛이 제시한 비정합적 동일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데, 왜냐하면 비정합적 동일성의 문제를 제공하는 비정합적 소설의 경우

어떠한 참의 근거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토마슨이 비정합적 소설을 거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토마슨은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은 총을 쏘았고, 또 총을 쏘지 않았다”고 증언할 경우, 증인의 증언을 참이라 여기지 않을 것이듯, 허구에 대해서 어떤 것이 참일 수 있으려면 허구에도 최소한도의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화자를 화자로 파악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정합성이 요구되듯이, 텍스트가 그것에 따르면 특정한 것들이 참인 그러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최소한도의 정합성이 요구된다. [...] 모순이 더 노골적이고 덜 해결가능하거나 덜 격리가능할수록, 우리가 특정한 것에 대한 참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한 사람, 혹은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어려워진다.<sup>85)</sup>

그녀는 에버렛이 2005년 논문에서 비정합성 논증의 사례로 제시한 허구—두 등장인물 줄스와 짐이 동일하면서 동시에 동일하지 않은 허구<sup>86)</sup>—가 명백한 모순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허구에 근거한 어떠한 주장의 참거짓도 가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정합적 허구의 사례를 최대한 관대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정말로 관련된 허구 작품에서 두 등장인물이 동일하면서 동시에 동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토마슨은 비정합성 논증이 미결정성 논증의 부분이며, 미결정성 논증과 구별되는 비정합성 논증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에버렛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토마슨은 비정합적 소설을 믿음직스럽지 않은 증인의 사례에 비유하여, 비정합적 소설이 어떠한 참의 근거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이것이 적절한 유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정의 비정합적 증인의 사례는 현실 세계의 법칙이 지켜져야 하는 경우이므로, 증인이 증언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

85) Thomasson(2010), p. 139.

86) Everett(2005), pp. 633-634.



타당하다. 하지만 작가가 현실 세계의 법칙 하에서 서술한 소설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법칙을 어기고자 하는 의도 하에서 쓴 소설(예컨대 앞에서 예로 든 무라카미 하루키의 『태엽 감는 새』 등)의 경우에는, 소설의 내용이 현실 세계의 법칙을 어긴다는 점이 곧 그 소설 자체를 무시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에버렛에 따르면, 이러한 비정합적 소설은 분명히 존재하며, 비록 비정합적 소설의 해석이 어렵다고 해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이러한 소설들을 해석하는 것 역시 분명히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비정합적 소설에 드러난 비정합적 동일성의 문제를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토마슨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비정합적 동일성의 문제는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와 분명히 분리되는 별개의 문제이며,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토마슨이 최소한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면, 그녀가 에버렛의 논증에 대해 어느 정도는 유효한 반론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토마슨이 에버렛의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자; 미결정성 논증에 대한 그녀의 반론에서 핵심이 되는 주장은,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의 개념을 더 정확히 다듬으면 미결정적 존재자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에버렛이 제시한 두 원칙 중 (P1) 원칙은 허구적 인물의 개념에 대한 적절한 원칙이 아니며, (P2) 원칙은 에버렛이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P1)을 다시 살펴보자. (P1)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는 한 허구 작품에서 등장 인물의 존재 여부가 열려있는 상황이다. 에버렛은 (P1)에 따를 경우, 이 허구 작품에 근거한 허구적 인물의 존재 여부가 미결정적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마슨은 실재론자가 쉬퍼 Schiffer가 제시한 다른 원칙을 (P1)의 대체 원칙으로 받아들이면 이 미결정적 존재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본다:

[(P1\*)] 만약 작가가 허구 작품을 쓰는 맥락에서 이름 N을 꾸며내어 사용하고, 작가가 N이라는 이름을 통해 어떠한 실재하는 것도 지칭하고

자 의도하지 않는다면, 허구적 인물 N이 있다.<sup>87)</sup>

(P1) 대신 (P1\*)을 받아들인다면, 추상적 실재론자는 에버렛이 제시한 사례의 등장 인물에 상응하는 추상적 존재자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허구 작품에서 등장 인물 C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모호하게 기술했다 해도, 작가가 'C'라는 이름을 꾸며내어 사용하고, 이를 통해 어떤 실재하는 대상도 지칭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는 허구적 인물 C를 존재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서 정말로 존재 여부가 모호한 그러한 대상을 만들어내는 허구의 사례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토마슨은 이러한 사례 역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본다; 실재론자는 단순히 이 미결정적 존재자를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의 존재론에 미결정성을 지닌 존재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허구적 인물을 상정하는 데 있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제기한다고 보아야 할까?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특히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대상에 대한 용어의 표준적 사례들의 대부분에 대하여, 이러한 종류의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미결정적인 경우가 있을 것이다. 비록 결혼이나 범죄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P1\*)과 유사한 원칙들이 있지만, 특정한 경우—결혼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아닌지, 혹은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아닌지를 규칙이 명백히 미결정적으로 남겨두는 사례—에 생겨나는 악명높은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쨌든 내게 있어서는) 올바른 반응은 이를 근거로 하여 결혼이나 범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존재하는지 아닌지가 미결정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sup>88)</sup>

한편 에버렛은 미결정성 논증에서 또 다른 사례, 즉 한 허구 작품에서 등장인물 a와 b가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

87) Ibid., p. 137

88) Ibid., p. 138.

실재론자는 이 사례를 통해 미결정적 동일성이 성립한다는 것을 받아들  
이게 된다고 지적하였는데, 토마슨은 이 역시 부정한다. 에버렛의 전제  
는, 실재론이 허구적 인물의 존재 및 속성을 관련 허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그가 제기한 문제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  
나 토마슨은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에 대하여 굳이 이러한 그림을 채택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실재론자는 단순히 소설에 직접 언급된 사  
항들이 그대로 허구적 인물의 속성에 반영된다고 보는 대신, 무엇이 허  
구에 의하여 참인지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허구적 실재론자가 일반적으로 이야기에서 등장 인물의 정체성에 대  
해 참인 것들이 실제 세계의 허구적 인물의 정체성에 대한 사실에 관련  
이 있다고 여긴다는 것은 참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나는(1999, 63) 인물  
들이 동일한 문학 작품에 등장하고 동일한 속성들을 할당받는 것이 인물  
들 간 동일성에 대한 충분(그러나 필요는 아닌)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  
러나 이는 이야기에 따라 참인 것에 대한 이해에 의존한다. 이야기에 따  
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에는 자비의 원칙 하에  
전개되는 정교한 해석 행위가 요구된다-단순히 페이지에 무엇이 쓰여 있  
는지를 재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sup>89)</sup>

토마슨에 따르면, 우리는 미결정적 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허  
구 작품을 자비의 원리에 기반한 적절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허구적 인물들의 동일성이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  
다. 즉, 실재론자는 에버렛이 제시하는 사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미결정적 동일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  
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토마슨은 에버렛의 두 원칙을 버리고, 더 정교한 허구적  
인물의 개념을 얻게 된다면 에버렛이 제기한 미결정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령 그래도 계속해서 반실재론자가 미

---

89) Thomasson(2010), p. 138.

결정성이 성립하게 만드는 반례를 제시한다 해도, 미결정성 문제 자체가 실재론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사회적 구성물이나 집단, 인공물 등은 이러한 미결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미결정성 문제에 근거하여 이러한 대상들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미결정성 문제를 통해 이 대상들의 개념을 명료히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마찬가지로, 허구적 인물이 미결정성 문제를 갖는다는 것은 그저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의 개념을 더 명료히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며, 실재론자는 충분히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에버렛에 따르면, 토마슨은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 역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에버렛의 반론에 대한 토마슨의 기본적인 입장은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의 개념을 더 정교히 함으로서 미결정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버렛은 진정한 미결정적 동일성의 사례가 있을 경우, 개념을 정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를 해결해 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다. 토마슨의 주장에 따르면, 실재론자는 허구적 인물의 동일성 조건을 바꾸어서,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례로부터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토마슨은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해 보이는 동일성 조건의 사례가 될 만한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흑자는 다음과 같이 (P2)를 바꾸어서 허구적 인물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정교히 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떤 이야기가 a와 b에 대한 것이고, a와 b가 실재하는 것이 아닐 때, 만약 그 이야기에 따라  $a=b$ 라면, 허구적 인물  $a =$  허구적 인물 $b$ ;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이야기에서 이 점이 미결정적인체로 남겨지더라도), 인물 a는 인물 b와 구별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허구적 세계에서의 미결정성이 실제 세계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sup>90)</sup>

그러나 에버렛은 이 경우, 위의 조건에서 마지막 부분이 다음과 같이

---

90) Ibid., p. 142.

수정될 경우, 굳이 이 수정된 동일성 조건이 아니라 토마슨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겠느냐고 묻는다:

(T2) 만약 한 허구 작품에서 (1) a가 존재하고 b도 존재하며, (2) 어떠한 실재하는 것도 a나 b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i) 이 허구에서  $a=b$ 라면, 허구적 인물 a는 허구적 인물 b와 동일하다

(ii) 이 허구에서  $a \neq b$ 라면, 허구적 인물 a는 허구적 인물 b와 구별된다

(iii) 만약 이 허구에서  $a=b$ 도 아니고,  $a \neq b$ 인 것도 아니라면, 허구적 인물 a와 허구적 인물 b는 동일하다<sup>91)</sup>

먼저 위의 인용문에서 토마슨이 제시한 동일성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해보자;

(P2\*\*) 어떤 이야기가 a와 b에 대한 것이고, a와 b가 실재하는 것이 아닐 때, 만약 그 이야기에 따라  $a=b$ 라면, 허구적 인물 a = 허구적 인물 b;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이야기에서 이 점이 미결정적인채로 남겨지더라도), 인물 a는 인물 b와 구별된다.

토마슨은 추상적 실재론자가 (P2\*\*)를 받아들임으로서 미결정적 동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추상적 실재론자가 (T2)를 받아들여도 미결정적 동일성이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P2\*\*)와는 반대로, (T2)의 경우에는 허구 작품 속의 두 인물이 동일한지 아닌지가 열려있을 경우, 이 두 인물이 무조건 동일한 것이라는 지침을 줄 뿐이다. 그렇다면 두 동일성 조건 중 무엇을 받아들이는 편이 좋은가? (T2)가 아니라 (P2\*\*)를 선택해야 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 단순히 미결정적 동일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말겠다는 신념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여러 동일성 조건 중 하나를 정당한 조건으로 골라낼 근

---

91) Everett(2010), p. 223.

거가 될 수 없다면, 토마슨의 입장은 큰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 (P2\*\*)와 (T2) 모두 미결정적 동일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 신념만으로는 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뚜렷한 선택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두 동일성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것은 임의적 선택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에버렛은 토마슨의 주장과는 달리, 허구적 인물의 개념을 정교히 함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개념을 정교히 함으로서 어떤 반실재론자의 공격을 막아낸다 해도, 그것이 정말로 허구적 인물에 대한 적절한 개념인지를 따질 기준을 따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실재론자는 어떠한 명확한 입장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버렛은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 그리고 토마슨의 반론이 모두 성공적이지 않다고 결론짓는다. 이들이 제시한 허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동일성 조건들은 모두 실재론자가 받아들이기에 적절한 조건이 아니며, 에버렛이 제시한 미결정적 동일성 및 비정합적 동일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실패하기 때문이다.

## 제 4 절 추상적 실재론은 반실재론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장에서 나는 브룩과 에버렛이 추상적 실재론에 대해 제기한 형이상학적 반론을 살펴보았다. 먼저 브룩은 추상적 실재론자가 ICP, 즉 작가의 의도에 따라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이 정해진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이 경우 여러 반례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브룩이 제기한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 문제가 추상적 실재론에 대하여 그렇게 위협적인 문제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브룩의 반례들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ICP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브룩의 논증에 대한 토마슨의 재반론도 마찬가지로 브룩에 대하여 적절한 반론이 되지는 못한다.

토마슨은 추상적 실재론자가 축소주의적 실재론을 받아들인다면 허구적 인물의 존재에 대해 인과적 설명을 내놓을 필요가 없으므로, 존재 시점의 문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브록의 입장에서 토마슨의 축소주의적 실재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토마슨 자신이 창조론적 입장을 옹호한다고 밝힌 바 있고, 자신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변경한 적 역시 없으므로, 나는 그녀가 브록에 대해 더 실질적인 반론, 예컨대 창조론적 관점 하에서 허구적 인물이 언제부터 존재하는가에 대해 충분히 좋은 답변을 줄 수 있다는 반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에버렛은 추상적 실재론자가 (P1)과 (P2)라는 두 원칙을 받아들일 경우, 미결정적·비정합적 동일성의 문제 및 미결정적 존재의 문제를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 그리고 토마슨은 동일한 방식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추상적 실재론자는 (P1)과 (P2) 대신 다른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서 충분히 미결정적 동일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비정합적 동일성의 문제는 정당하게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그러나 에버렛은 이들이 (P1)과 (P2)를 대체할 원칙으로 제시한 것들이 결국 미결정적 동일성 문제를 피할 수 없거나, 허구적 인물에 대한 임의적 원칙이 되어버리는 문제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비정합적 소설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이러한 소설이 비정합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슈니더와 본 솔로드코프, 그리고 토마슨처럼 비정합적 소설을 단순히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입장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에버렛의 지적에 동의하며, 추상적 실재론자들이 제시한 기존의 반론들이 에버렛이 제기한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 유효한 반론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추상적 실재론자가 다른 길을 통해서 브록 및 에버렛의 반론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추상적 실재론 안에서 추상적 실재론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추상적 실재론자가 이 추상적 실재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브록 및 에버렛이 제기한 추상적 실재론 외부의 문제 역시 잘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본다. 다음 장에서 나는 추상적 실재론이 갖고 있는 이 내부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이고, 추상적 실재론의 내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나는 이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이 추상적 실재론 외부의 문제인 브록과 에버렛의 반론 역시 잘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 제 3 장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과 형이상학적 문제의 해결

앞에서 나는 실재론에 대해 형이상학적 반론을 제시한 브룩과 에버렛의 논증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들의 논증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자들의 반론이 성공적인지를 검토하였다. 나는 추상적 실재론자들의 재반론이 브룩과 에버렛이 제기한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토마슨은 자신이 제시한 축소주의적 실재론이 브룩의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브룩의 입장에서는 축소주의적 실재론이 토마슨의 주장처럼 허구적 인물에 대한 ‘개념적 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재반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토마슨과 슈니더 & 본 솔로드코프는 허구적 인물에 대해 더 정교한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서 추상적 실재론자가 미결정적 동일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에버렛은 이들이 제시한 원칙들이 여전히 자신의 반론을 피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나 역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추상적 실재론자들의 재반론이 성립하고, 따라서 브룩과 에버렛의 형이상학적 반론이 모두 반박되었다 보더라도, 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 브룩과 에버렛이 추상적 실재론 일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 내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추상적 실재론 내적인 문제이다; 나는 추상적 실재론이 크게 무계약적 추상적 실재론과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으로 나뉘지며, 이 두 추상적 실재론이 각각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 나는 과연 이 추상적 실재론의 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추상적 실재론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할 것이다. 나아가 나는 추상적 실재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의 추상적 실재론이 결국 브룩과 에버렛이 제기한 추상적 실재론 일반의 문제 역시 해결해준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 제 1 절 추상적 실재론 내부의 문제: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과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

Salmon은 자신의 논문 "Nonexistence"에서 이름에 대한 밀적Millian 직접 지칭주의에 기반하여, 허구적 이름은 공허한 이름이 아니라 추상적 존재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공허한 이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현재 프랑스에는 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프랑스의 왕이 있다고 상상하고 (예를 들면, 급진적인 왕정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프랑스의 왕을 세우는 등의 상황을 상상하고) 이 프랑스의 왕을 '내피'라고 부른다고 해 보자. 켈먼은 이 때 '내피'는 진정한 공허한 이름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제부터 그게 누가 되건 간에, 프랑스의 새로운 왕인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을 지칭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 '내피'라는 이름을 도입하겠다. 이때 주목할 점이 있다: 나는 '내피'를 내가 방금 창조한 특정 허구적 인물의 이름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피'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척 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프랑스가 이제 왕을 갖는다는 이론을 지지한다는 것도 아니다. [...] 상당히 급진적인 회의주의를 제외하면, 우리는 내피같은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내피는 허구적 인물도 아니고, 신화적 인물도 아니고, 가공의 것도 아니고, 허황된 공상도 아니다. 내피가 이 중 그 무엇도 아닐 좋은 이유가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피는 존재하지 않는다.<sup>92)</sup>

우리가 현재 프랑스의 왕이 된 그러한 사람을 상상하고, 그를 '내피'라고 부른다고 할 때, 켈먼은 그러한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은 없다고 주장한다. 켈먼은 심지어 '내피'가 허구적 이름이나 신화적 이름처럼 어떤 추상적 대상을 지칭하게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켈먼에 따르면 실패한 과학 이론 역시 어떤 이름을 통해 한 대상을 우연히 지칭하게 되는

92) Salmon(1998), pp. 305-306.

것이 가능하지만, ‘내피’는 이러한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셸먼은 슈탈이 ‘플로지스톤’으로 화학적 물질을, 르 베리에가 ‘별칸’을 통해 태양계의 미지의 행성을 지칭하고자 했던 경우에, 이 이름들이 비록 이들의 의도에 따른 대상을 지칭하는 데는 실패했어도, 각각 신화적인 추상적 대상을 지칭하게 되었다고 본다.<sup>93)</sup> 이에 반해 우리가 상상한 현재 프랑스의 왕의 이름인 ‘내피’는 어떠한 것도 지칭하지 않으며, 슈탈이나 르 베리에의 경우와는 달리, ‘내피’가 우연히 어떤 추상적인 허구적 대상을 지칭하게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Ben Caplan은 "Creatures of Fiction, Myth, and Imagination"에서 과연 허구적 인물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을 받아들이면서 상상의 대상에 대한 실재론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다. 카플란은 이 논문에서 진정한 공허한 이름이 있으며, 이는 상상의 대상을 지칭하고자 하는 이름이라는 셸먼의 주장을 문제시하고 있다. 셸먼은 "Mythical Objects"에서 신화에 등장하는 대상들에 대한 실재론을 옹호하는데, 카플란은 만약 허구 및 신화에 등장하는 대상들에 대한 실재론을 받아들인다면, 상상의 대상에 대한 실재론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자가 상상의 대상에 대한 반실재론자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단 카플란은 신화 속의 대상들에 대한 실재론을 옹호하는 셸먼의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P1) 작가들은 허구의 창조물을 창조한다

(P2) 만약 작가가 (허구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허구적 인물을 창조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신화를 만드는 사람("myth-maker") 역시 (신화를 창작/전승함으로써) 신화적 인물을 창조한다

(C1) 따라서 신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신화적 인물을 창조한다.<sup>94)</sup>

여기서 (P1), (P2)로부터 결론인 (C1)을 끌어내는 과정은 타당하다. 문제

93) Salmon(2002) 참고.

94) Caplan(2004), p. 333.

는 똑같은 논증을 상상의 대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P1\*) 작가들이 허구의 창조물을 창조한다

(P2\*) 만약 작가가 (허구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허구적 인물을 창조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대상을 상상하는 사람 역시 상상의 대상을 창조한다

(C2) 따라서 상상하는 사람 역시 상상의 대상을 창조한다.<sup>95)</sup>

앞의 논증과 마찬가지로, 상상의 대상에 대한 이 논증 역시 타당한 논증이다. 만약 허구적 인물에 대한 창조론자가 이 논증을 거부하고, 허구적 인물은 작가에 의해 창조된 실재하는 대상인 반면, 상상의 대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그는 위 논증에서 (P2\*)에 해당되는 논제를 부정해야 한다.

그러나 카플란은 허구적 인물에 대한 창조론, 즉 허구적 인물이 작가의 창작 활동에 의해 창조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P2\*)를 성공적으로 부정하려면, 창조론자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꾸며내는 것(pretending), 그리고 그렇다고 믿는 체 하는 것(make-believing)이 대상을 마음 속에 그리는 것(entertaining)에 비해 존재론적으로 왜, 그리고 어떻게 특별한지를 설명해야 한다. 허구 작품을 꾸며내는 것(pretending) 및 신화를 믿는 것이 한 대상을 상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기에 앞의 두 활동은 추상적 대상을 창조해낼 수 있지만, 후자는 그러한 힘을 갖지 않는 것인지를 설명할 부담이 창조론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에버렛은 허구에 참여하는 것이 상상 활동을 포함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sup>96)</sup>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창작할 때, 그녀가 현실에 존재하는 마법 학교들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실제 마법사들에게 어떤 식으로 현실감있는 글을

95) Ibid., p. 334.

96) Everett(2014), p. 6: “허구에 대한 우리의 참여가 허구의 세계, 등장인물들, 그들에게 벌어지는 사건들 등을 상상하는 모종의 상상 활동을 포함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쓸 수 있을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헤리 포터 시리즈에 대해서 조앤 롤링을 칭찬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러한 세계를 소설 속에 구현해낸 조앤 롤링의 상상력이 대단하다’고 하지, ‘그녀는 성실한 조사 및 예리한 관찰력을 통해 마법 세계를 잘 그려냈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조앤 롤링이 호그와트라는 마법학교에 대한 허구 작품을 창작하는 것과, 호그와트라는 마법학교가 있다고 상상하는 것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허구의 창작 및 상상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는 이 두 활동을 본질적으로 구분하고 있는가?

셀먼과 같이 허구적 인물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을 옹호하는 토마슨의 경우에는 작가가 허구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되듯이, 모든 지향적 태도는 지향적 대상을 존재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녀는 상상 활동을 통해 상상의 대상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 역시 받아들인다; 이때 지향적 대상에 속하는 상상의 대상은 허구적 대상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존재자이며, 허구적 대상 역시 지향적 대상의 한 종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향적 행위의 대상은, 그 대상에 향해있는 지향적 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 대상은 심지어 그 행위 자체에 의해 창조될 수 있다. [...] 따라서 환각이나 상상 역시, 전형적으로는 지향적 행위 자체에 의해 창조되는 대상들을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 대상들은 문자 그대로 마음의 가공물 혹은 제조물이다. [...] 허구적 인물들은 순수히 지향적인 대상 중 특히 흥미로운 하위범주인 것이다.<sup>97)</sup>

이처럼 허구적 인물 뿐만 아니라 상상의 대상 역시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실재론자는 카플란이 제기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셀먼과 달리, 토마슨은 대체 상상과 허구 작품의 창작이 왜, 그리고 어떻게 서로 다른 존재론적 효력을 지니는 활동인 것이냐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 토마슨에 따르면 두 활동은 동일한 존재론적 효력을 지니며, 각각 (추상적 존재자로서의) 상상의 산물 및 허구의 산물을 존재하게 하기 때

---

97) Thomasson(1999), pp. 88-89.

문이다.

여기서 나는 셸먼과 토마슨이 지지하고 있는 추상적 실재론을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토마슨은 모든 지향적 행위의 대상이 존재하며, 어떤 지향적 대상은 지향적 행위 자체의 의해 창조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녀는 허구적 인물이 작가의 창작 활동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받아들이며, 나아가 상상의 대상 역시 상상 활동에 의해 창조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이처럼 창작 활동의 산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과학 이론의 산물, 나아가 상상 활동의 산물 등의 존재를 모두 받아들이는 추상적 실재론을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으로 부르하고자 한다. 한편 셸먼은 작가의 창작 활동에 의해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과학 이론의 상정에 의해 신화적 대상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상상 활동에 의해 상상의 산물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거부한다. 나는 창작 활동의 산물 및 잘못된 과학 이론의 산물 등의 존재는 받아들여면서, 상상 활동의 산물의 존재는 거부하는 셸먼 식의 추상적 실재론을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으로 부를 것이다.

	존재론에 포함시키는 대상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	허구적 대상, 신화적 대상, 상상의 산물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	허구적 대상, 신화적 대상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은 왜 특정한 지향적 행위, 예컨대 어떤 대상이 있다고 꾸며내는 행위(창작 행위) 및 어떤 것을 믿는 채 하는 행위(신화를 만드는 행위)는 어떤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반면, 마음 속에 대상을 그리는 행위, 즉 상상 행위는 어떠한 대상도 존재하게 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반면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자는 이러한 문제를 갖지 않는다; 토마슨 같은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자는 허구적 인물, 신화적 대상 뿐만 아니라 상상의 산물 역시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카플란의 지적이 타당하고, 따라서 추상적 실재론자가

오로지 토마슨처럼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만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것 자체가 이미 추상적 실재론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Stacie Friend(2007)는 추상적 실재론자가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결국 추상적 실재론은 대다수의 철학자들에게 큰 매력이 없는 이론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추상적 실재론자가 상상의 대상을 거부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카플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데, 만약 카플란의 주장처럼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자가 상상의 산물의 존재까지 인정해야 한다면, 결국 실재론자들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일단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작가의 창작 활동에 의해 허구적 인물이 창조된다고 하면, 신화를 지어내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상상하는 것에 의해 각각 신화적 대상과 상상의 대상이 창조되는 것 역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실재론자는 의도적인 허구의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단순한 상상 활동 및 실패한 지칭 역시 어떤 존재자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셈인데, 프렌드에 따르면 이는 그럴듯하지 않다.

첫번째로, 이 전략은 허구적 대상에게만 제한되어 적용될 수 없다. 신화적 산물들(제우스, 산타 클로스), 실패한 과학적 상징물들(별칸, 플로지스톤), 불가능한 대상들(둥근 사각형), 상상의 편린 등에 대해 양화하고 이야기하는 기존의 활동들이 있다. [...] 카플란(2004)은 이 논증을 단순한 상상의 대상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시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세 개의 반짝이는 사과들같은 것들에까지 확장시킨다. 내가 그 사과들을 생각하는 것이 (구체적) 사과들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관점에 따르면 내 생각은 추상적 대상들을 창조한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허구뿐만이 아니라, 지칭 실패 및 상상의 사건 역시 추상적 대상을 창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론을 그럴듯하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sup>98)</sup>

프렌드는 지향적 태도의 대상 전부가 (비록 추상적으로라도) 존재한

---

98) Friend(2007), p. 147.

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있는 입장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그녀는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를 상상하는 것이 어떤 존재자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직관을 포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관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지향적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논의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향적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덜 부담스러운 선택으로 여겨졌다. 지향적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지향적 대상 이론이 발생시키는 무거운 존재론적 책임”<sup>99)</sup>을 지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로 단순한 상상 활동을 통해 (비록 추상적이라 해도) 어떤 존재자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현실 세계의 존재자들을 늘릴 수 있다. 셸먼이 허구의 창작, 나아가 잘못된 과학적 이론을 상징하는 활동까지 추상적 존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상 활동의 경우에는 어떠한 대상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카플란에 따르면, 상당히 부자연스럽게도) 주장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 ‘내피’와 ‘컬리-0’의 도입이 철저히 비지칭적인 이름으로 귀결되는 반면, 바비넷이 ‘별칸’을 도입한 것은 존재하는 추상적 인공물의 이름으로 귀결되는가? 왜냐하면 그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바비넷은 우연히 신화적 행성을 만들어낸 것이고, 비록 바비넷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행성을 지칭하는 것을 의도했지만, 그의 지칭의 화살은 결국 신화적 대상에 꽂혔기 때문이다 [...] 내가 허구적인 프랑스 왕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혐의에 대하여, 나는 내가 무죄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모든 부적절한 한정기술구에 대하여, 이 한정기술구가 적절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허구를 생각해낼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된다. 심지어 싸구려 통속 소설도 그렇게까지 쓰기 쉽지 않다.<sup>100)</sup>

셸먼이 상상의 대상인 내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 이를 뒷받침하는 논증을 아마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허구적 대상

---

99) Jacob(2014).

100) Salmon(1998), p. 306.



은 허구 작품이 있어야 존재한다. 따라서 내피가 허구적 대상이 된 셈이라고 하려면, 내피를 근거짓는 허구 작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상상을 통해서도 어떠한 허구 작품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즉 셸먼은 사유의 대상이 존재하게 되려면, 그것이 어떤 체계, 예컨대 신화나 허구적 이야기 같은 것에 근거해야 하며, 이 때 그 체계는 단순한 상상보다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허구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은 상상 행위보다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 일이어야 한다. 우리는 뚜렷한 의도 없이 어떤 것을 마음 속에 떠올리기도 하고, 분명한 의도로 어떤 것을 상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마음 속의 활동이 결국 어떤 존재자를 낳게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떠올리고 상상할 때마다 추상적일지라도 어떤 존재자가 존재론에 추가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최소한 모든 상상이 어떤 존재자, 혹은 존재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추상적 실재론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이 기본적인 전제를 지켜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허구적 인물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상의 산물까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추상적 실재론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의 산물에 대한 실재론에 다다른, 이토록 쉬운 길에 저항할 것”<sup>101)</sup>이라는 비판에 열려있게 된다.

결국 지금 추상적 실재론자는 두 종류의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먼저 추상적 실재론자는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 및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 중 어느 입장을 택해야 할 지를 정해야 한다. 이 때 만약 그녀가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을 택한다면, 그녀는 우리가 단순한 상상을 통해서도 존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즉 아주 쉽게 현실의 존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데, 이 경우 그녀는 무거운 존재론적 책임을 떠안게 된다. 한편 그녀가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을 택한다면, 그녀는 왜 작가의 창작 활동, 혹은 과학자의 잘못된 이론의 상정이 어떤 대상을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유독 상상만은 어떠한 존재자도 낳지

---

101) Ibid., p. 306.

못한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즉, 어떤 추상적 실재론을 택하든 간에, 추상적 실재론자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추상적 실재론자가 둘 중 어떤 입장을 택하더라도, 여기에 더해 그녀는 브룩과 에버렛이 제기한 추상적 실재론 외부의 문제, 즉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의 문제 및 미결정적·비정합적 동일성의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추상적 실재론자는 어느 방향을 택하든 간에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제시할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이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에 속하며,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이 갖는 존재론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구적·신화적 대상은 수용하면서 상상의 산물은 수용하지 않을 좋은 이유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추상적 실재론 일반의 문제 역시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 나는 이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이 어떤 내용을 지니며, 어떤 식으로 존재론적 책임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상상의 산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 제 2 절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

프렌드는 추상적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 뿐만 아니라 상상의 산물까지 수용하는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을 받아들인다면, 무거운 존재론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상상의 산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거운 존재론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단순한 상상 활동을 통해 어떤 대상이 존재하게 된다고 볼 경우, 너무나 쉽게 현실 세계의 존재자들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쉘먼은 이와 유사한 직관에 기반하여, 단순한 상상이 허구 작품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행위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때 상상은 어떤 의미에서 ‘불충분’하고 ‘너무 쉬운’ 행위인 것인가? 물론 여기서 ‘쉬움’이 ‘물리적으로 쉬움’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숙련된 기술자가 아주 간단하게 금방 의자 하나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당신의 행위는 의자를 만들어내기엔 너무 쉬운 행위였다’라고 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나는 여기서 상상이 존재를 만들어내기엔 너무 불충분하고 너무 쉬운 행위라는 것이, 상상 행위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어떤 활동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대상들, 예컨대 의자, 책상 같은 우연적이고 구체적인 대상들은 인간의 제작 활동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 이때 제작 활동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들을 재료로 삼아, 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다듬거나 조합하는 활동이다. 이 때 의자와 책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을 재료로 삼는 실제 행위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행위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내가 현재 프랑스의 왕인 내피를 상상한다고 해 보자; 이 때 내가 내피를 상상하기 위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내가 어떤 실제 행위를 할 필요도 없다. 나는 단순히 프랑스의 왕이 있다면 할 법한 일들을 하며, 내피라고 불리는 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상은 분명히 의자와 책상을 존재하게 했던 제작 활동에 비해 훨씬 덜 구체적인 활동이다; 상상은 어떠한 실제 대상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떠한 실제 행위도 아니다. 하지만 상상을 통해 상상의 산물이 존재하게 된다고 본다면, 우리는 구체성을 거의 완전히 결여한 이 행위가 어떤 존재자를 낳을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상상이 이처럼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 상상을 통해서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된다면 존재자가 ‘너무 쉽게’ 생겨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게 하는 근거일 것이다.

그렇다면 추상적 실재론자가 상상의 산물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존재론적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그녀가 주장해야 하는 것은 허구 작품, 그리고 허구적 인물이 상상보다 ‘어려운’, 즉 더 구체적인 활동에 의해 존재한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이 때 허구 작품과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활동은 분명히 의자나 책상을 존재하게 하는 제작 활동과는 다른 식으로 구체적인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나무 조각같은 물질적 재료를 가져와서, 그것을 실제로 깎아내고 조립함으로써 허구 작품과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

상적 실재론자가 ‘너무 무거운 존재론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그녀는 허구 작품과 허구적 인물이 상상과 달리 구체적 활동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구체적 활동이 정확히 어떤 활동인지, 어떤 측면에서 단순한 상상보다 구체적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추상적 실재론은 이 존재론적 부담을 피하는 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셸먼은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을 받아들이며, 허구적 인물이 존재함을 받아들이면서 상상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부하고자 했지만, 상상의 대상을 근거짓는 활동이 허구적 인물을 근거짓는 활동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은 상상이 상상의 산물을 존재하게 하지 못한다면,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창작 행위가 상상과 달리 존재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카플란(2005)의 비판에 열려있게 된다. 한편 토마슨은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을 받아들이며, 지향적 대상의 존재를 받아들임으로서 허구적 인물 뿐만 아니라 상상의 대상 역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무거운 존재론적 부담 없이는 추상적 실재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나는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수용하면서 상상의 산물은 수용하지 않는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이 가능함을 보이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을 지지하는 셸먼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허구 작품과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활동이 어떤 활동이고, 이것이 상상보다 구체적인 활동인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무거운 존재론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추상적 실재론을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추상적 실재론자들이 공유하던 어떤 전제—허구적 인물은 허구 작품에 의존한다—는 유지될 것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전제—허구 작품은 작가/작가의 창작 행위에 의존한다—는 거부될 것이다.

일단 기존의 추상적 실재론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두 논제를 살펴보자:

(T1) 추상적 존재자로서의 허구적 인물은 관련된 허구 작품에 의존한다

(T2) 허구 작품은 작가의 창작 활동에 의해 (충분히) 결정된다

(T1)과 (T2)는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자 및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자 모두가,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전제이다. 이 중 (T2)는 작가에 의해 허구적 인물이 창조되는 것이라는 창조론적 주장에 대한 논제로, 토마슨 같은 경우에는 (T2)를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보통 작가가 올바른 종류의 꾸며내기에 참여하면서 문장들을 발화하거나 글로 적을 경우 문학 작품이 창조된 것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만약 입법부와 대통령이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 법안이 만들어진 데: 이 이상의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것이 작품이나 법안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전부이다. 허구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말할 수 있다: 만약 한 작가가 올바른 맥락에서 도입된 이름을 사용하는 올바른 종류의 꾸며내기에 참여하면, 허구적 인물이 창조된 것이다; 이것이 허구적 인물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전부이다.<sup>102)</sup>

반면 내가 제시할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T1)를 수용하지만, (T2)는 거부한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대신 (T1)과 (T2\*)를 기본 논제로 삼는다;

(T2) 허구 작품은 작가의 창작 활동 및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나는 (T1)과 (T2)를 기반으로 하는 추상적 실재론이 무거운 존재론적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나아가 브록과 에버렛이 제시한 반론 역시

---

102) Thomasson(2015), p. 255.

잘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나는 내가 제시할 이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이 기존의 추상적 실재론보다 훨씬 그럴듯한 입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이 기존의 추상적 실재론과 완전히 다른 노선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두 논제 중 (T1)은 기존의 추상적 실재론자들이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주장이다. 기존의 추상적 실재론에서와 같이,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도 허구적 인물은 추상적 대상으로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며, 관련된 허구 작품에 그 존재를 의존한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을 기존의 추상적 실재론과 구분해주는 논제는 (T2\*)이다. 먼저 (T2\*)가 함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점은 작가의 창작 행위만으로는 허구 작품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허구적 인물이 허구 작품에 의존하므로, 허구적 인물 역시 작가의 창작 행위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물론 작가의 창작 행위는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의 존재에 부분적으로는 기여한다. 그러나 (T2\*)에 따르면, 어떤 작가가 C라는 등장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이야기 F를 창작했어도,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면 F, 그리고 C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호빗』과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 톨킨이 사실은 두 작품 중간에 『호빗』에 등장한 난쟁이들의 먼 친척인 ‘닐리’라는 난쟁이가 주인공인 작품 『드워프』를 썼다고 해 보자. 톨킨은 그 원고가 만족스럽지 않아 자신의 원고를 봉투에 담아 창고에 쌓아두었다. 톨킨을 담당할 출판사 편집자나 가족들은 톨킨이 또 다른 이야기를 썼다는 것까지는 알아도, 그 원고를 읽어본 적도 없고, 작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본 적도 없다. 그렇다면 비록 톨킨이 『드워프』라는 작품을 창작했고, 그 작품의 주인공으로 ‘닐리’라는 인물을 내세웠다고 해도, 닐리라는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톨킨의 후손 중 하나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제서야 『드워프』를 발견하고 출판하게 된다고 해 보자. 이제 톨킨의 애독자들은 『드워프』를 읽고 닐리가 『호빗』에 등장하는 난쟁이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논할 수 있다. 또한 닐리는 톨킨이 만들어낸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덜 유명해질 수도 있고 더 유명해질 수도 있다. 닐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나는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한 이 과정이 곧 독자들의 합의라고 생각하며, 허구 작품 역시 이 합의의 과정을 통해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 1. 상상과 허구 작품의 창작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수용하는 추상적 실재론에서 가장 상세히 설명해야 할 점은, 허구적 인물이 어떤 존재자이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는 허구 작품을 존재하게 하는 활동이 상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간략히 말하자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마치 실제 사실을 서술하듯 꾸며 말하거나 쓰는 행위로서의 창작 행위는 기본적으로 상상 행위와 동일한 존재론적 효력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 때 상상 행위는 상상의 산물을 존재하게 하지 못하므로, 상상 행위와 동일한 존재론적 효력을 지닌 작가의 창작 행위만으로는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이 생겨날 수 없다.

한 작가가 어떤 허구 작품을 창작했다고 할 때, 우리는 이를 곧 일반적으로 한 작가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꾸며낸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이 때 작가의 활동은 정확히 어떠한 활동인지를 이해하려면, 작가가 허구 작품을 창작했다고 할 때 그녀가 만들어낸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더 살펴보아야 한다; 이 때 창작 행위를 이해하는 첫번째 방법은, 어떤 작가 A가 한 허구 작품 L을 창작했다는 것이 곧 L의 내용을 갖춘 원고를 완성했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A가 L에 등장하는 인물 및 줄거리를 모두 구상한 후에, 실제로 이를 원고로 작성하는 일을 끝냈을 때, A가 L을 창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허구 작품의 창작을 이러한 식으로 이해한다면, 허구 작품의 창작은 곧 구체적인 한 원고—이 원고가 특정 형식의 컴퓨터 파일이든,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출력된, 혹은 타자로 쳐서 묶어놓은 종이이든 간에—를 작가가 만들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과연 작가의 창작 활동의 본질이 구체적인 원고라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례를 다시 생각해보자: 만약 톨킨이 창고에 둔 『드워프』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죽었다면, 톨킨의 후손들도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텐데, 이 상태로 어느날 창고가 불에 타서 사라졌다고 해 보자. 한편 톨킨의 『호빗』을 읽은 영국의 어느 열두살짜리 소녀는 『호빗』에 등장하는 난쟁이들의 친척인 난쟁이 ‘닐리’를 상상하고, 닐리가 겪는 여러 모험들을 상상한다. 이때 톨킨의 『드워프』에 등장한 닐리와, 이 소녀의 상상에서 등장하는 닐리 중에서 톨킨의 이야기에 등장한 닐리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소녀의 상상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소녀의 상상 속 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오로지 소녀 자신 뿐이듯, 『드워프』 및 등장인물인 닐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오로지 톨킨 자신 뿐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톨킨의 작품은 잠시나마 원고의 형태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톨킨의 창작 행위와 소녀의 상상 행위가 구별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두 행위 중 창작 행위만이 존재자를 낳을 수 있는 행위로 취급되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본다; 사실상 소녀의 상상과 톨킨의 창작 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톨킨이 자신이 상상한 내용을 글로 적었다는 사실 하나에 의해서 그는 어떤 존재자를 만들어낸 셈이 되고, 소녀는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이한 입장으로 보인다. 심지어 톨킨이 자신의 원고를 출판해서 원고와 같이 창고에 쌓아두었고, 창고가 불타지 않아 여전히 원고와 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톨킨의 작품에 대해 읽어본 적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톨킨은 닐리를 만들어냈다/존재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경우에 우리가 ‘톨킨은 『드워프』를 만들어냈다/존재하게 했다’고도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즉, 톨킨이 『드워프』라는 제목을 붙인 원고를 완성했다는 것이 곧 『드워프』라는 작품을 창작하는 행위의 본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A가 L을 창작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첫번째 방법을 거부하고, 이와 다른 방식으로 창작 행위를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 창



작 행위를 이해하는 두번째 방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가 곧 창작 행위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작가 A가 실제로 있지 않은 인물들이 겪는 허구적 사건들을 마치 실제 인물이 겪는 실제 사건인 양 꾸며낼 때, A가 그 허구적 이야기를 창작했다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상—원고나 책 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창작 행위의 본질을 구성한다기 보다는, 창작 행위의 부수적인 측면이 된다. 나아가 이 이해에 따르면, 창작 행위와 상상 행위는 매우 유사한 행위가 된다; 상상 행위는 실제로 있지 않은 것,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 속에서 그리는(entertain) 행위이다. 한편 이 창작 행위는 실제로 있지 않은 것,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양 꾸며내는(pretend) 행위이다. 결국 상상 행위와 창작 행위 간의 차이는, 단순히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제가 아닌 것으로 묘사하는지, 아니면 실제인 양 묘사하는지에 있을 뿐이다. 창작 행위에 대한 첫번째 이해에 따르면, 창작 행위는 구체적 산물을 내놓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상 행위와 크게 다른 행위가 되는 반면, 두번째 이해에 따르면, 창작 행위와 상상 행위는 상당히 유사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산물, 즉 원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창작 행위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창작 행위와 상상 행위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 창작 행위 역시 기본적으로 상상 행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어떠한 구체적 산물을 만들어내는 행위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창작 행위를 이해한다면, 창작 행위와 상상 행위가 존재론적 효력의 측면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야 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즉 이야기를 꾸며내는 활동으로서의 창작 행위 자체가 상상 행위와 존재론적 효력의 측면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sup>103)</sup> 허구에 대한 꾸며내기 이론을 옹호

103) 허구에 대한 꾸며내기 이론을 옹호하는 윌튼이나 에버렛은 창작 행위가 본질적으로 상상 행위에 매우 가까운 행위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윌튼은 허구적 명제라는 것은 상상되어야 할 명제라고 주장하며, 창작 행위를 ‘제한된(constrained)’

하는 월튼이나 에버렛 등은 창작 행위를 이러한 두번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창작 행위를 기본적으로 상상 행위에 기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창작 행위에 대한 두번째 방식의 이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상상 행위가 허구 작품의 창작 행위와 동일하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행동은 상상 행위와 존재론적으로 거의 유사한 효력을 가지며, 상상 행위는 어떠한 존재자도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상상의 내용대로 존재하는 대상이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상상에서 근거하는 추상적 존재자 같은 것도 없다. 즉 어느 소녀가 난쟁이 닐리를 상상하고, 닐리가 겪는 모험들을 상상한다고 해서, 그러한 모험을 겪은 ‘닐리’라는 난쟁이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 소녀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모험을 겪는 것으로 상상됨>이라는 속성을 지니는 ‘닐리’라는 추상적 존재자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부엌의 선반에 사는 분홍색 쥐를 상상한다고 해서, <나에게 선반에 사는 분홍색 쥐로 상상됨>이라는 속성을 지닌 추상적 존재자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작가의 창작 행위가 상상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톨킨이 난쟁이들과 모험을 떠나는 호빗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창작한다고 해서, <톨킨에 의해 난쟁이들과 보물을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는 것으로 묘사됨/상상됨>이라는 속성을 지닌 추상적 존재자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작가의 창작 행위가 허구 작품을 존재하게 하는 데 충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나는 추상적 실재론자가 앞에서 제시한 추상적 실재론 일반이 받아들이는 전제 (T2)를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혹은 규제에 따르는 상상 행위로 설명한다. *Mimesis as Make-believe*, p. 39-40 참고. 에버렛 역시 “허구에 대한 우리의 참여가 허구의 세계, 등장인물들, 그들에게 벌어지는 사건 등을 상상하는 상상 활동을 포함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2013, p. 6.)고 주장한다. 한편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의 “imagination” 항목에서 Tamar Gendler는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그것을 허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역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바는 종종 (특히 예술의 맥락과 믿는 체 하기 놀이에서) 우리가 허구적이라 받아들이는 바이다”라고 지적하며, 상상과 허구성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Gendler(2013) 참고.

나는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이 추상적 존재자로서 존재하며,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은 국가나 단체 등의 추상적 존재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추상적 실재론의 일반적 주장을 받아들인다; 내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작가의 창작 활동이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데 충분하다는 전제이다. 나는 작가의 창작 활동이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기에 완전히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카플란의 지적, 즉 창작 행위와 상상 행위 간의 존재론적 효력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창작 행위와 상상 행위는 거의 유사한 존재론적 효력을 지니며, 두 행위 모두 (최소한 이 행위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대상도 존재하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나는 추상적 실재론자가 무계약적 추상적 실재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카플란이 추상적 실재론자는 상상의 산물까지 수용하는 무계약적 추상적 실재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추상적 실재론자가 기존의 전제 (T2), 즉 허구적 인물이 작가의 창작 행위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계약적 추상적 실재론은 아주 쉽게 현실 세계의 존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서 무거운 존재론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반면 추상적 실재론자가 (T2)를 거부한다면, 그녀는 카플란의 주장—상상 행위와 창작 행위 간에 존재론적 효력의 차이가 없다—을 받아들이면서도 무거운 존재론적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창작 행위는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할 수 없으며, 상상 행위도 마찬가지로 상상의 산물을 존재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T2)를 부정한다면, 추상적 실재론은 이 경우 어떻게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작가의 창작 행위가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창작 행위 외에 어떤 행위가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답하자면, 나는 추상적 실재론자가 (T2) 대신 (T2\*)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은, 작가의 창작 활동 뿐만 아니라, 작가의 창작 활동 및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존재하게 된다. 이어지는 글에서 나는 (T2\*)를 받아들임으로서, 추상적 실

채론자가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 2.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의 존재

나는 창작과 상상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활동이며, 존재론적 효력 역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창작은 상상을 어떤 식으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고, 단순히 상상한 내용을 어딘가에 쓰거나 그린다고 해서 상상의 대상을 만들어냈다고는 할 수 없다. 상상과 관련된 언어행위—예컨대 상상한 내용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역시 그 자체만으로 어떤 존재자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없다; 내가 “말을 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개인 제이크가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내가 말을 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개로 표현함>이라는 속성을 지닌 대상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허구 작품/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때, 나는 상상 활동이나 언어행위의 힘을 빌어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허구 작품과 허구적 인물은 일반적인 추상적 존재자, 예컨대 국가나 단체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데에는 상상 활동이나 언어 활동보다 더 복잡한 것이 필요하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 몇몇이 유럽 영화를 감상하고 토론하는 특별 활동 부서를 만들고자 한다고 해 보자. 이 때 뜻이 맞는 학생들이 다같이 모여서 “이제부터 유럽 영화 감상 모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유럽 영화를 감상하는 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명시적 선언 없이, 유럽 영화를 감상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몇 가지 사항—언제 어디서 영화 상영회를 열 것인지, 무슨 영화를 상영할 것인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상영이 끝난 후 어떤 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 등—에 합의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 합의된 사항을 규제로 삼는 행위가 있을 때 ‘유럽 영화 감상 모임’이라는 단체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때 이 단체가 어떤 시공간적 위치에 놓인

구체적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단체는 추상적 대상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단체가 어디서 모임을 갖든, 언제 모임을 갖든 간에 모임이 열리는 시공간적 위치는 그 단체의 위치가 아니다. 또한 처음 합의한 사항에서 무언가가 삭제 혹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어도, 이것이 기존의 단체를 아예 다른 단체로 만들지는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처음 모임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누군가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되고, 대신 다른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 등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변화하는 것 역시 단체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더 이상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모임을 이어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 단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즉 학생들이 합의한 바에 의하여 단체가 생겨나고, 그 무엇도 합의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단체는 소멸한다는 것이다. 나는 허구적 인물이 이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고, 소멸하게 되기도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먼저 작가가 줄거리와 등장 인물, 배경 설정 등을 갖춘 허구 작품을 창작한다. 이때 작가가 ‘허구 작품을 창작했다’는 것이 ‘특정한 줄거리와 등장 인물, 배경 설정 등을 상상했다’와 크게 다른 의미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아직 어떠한 대상도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독자들이 작품을 읽고, 작가가 상상해낸 바, 즉 이 작품 속에서 이러저러한 사건이 일어나며, 그 사건을 겪는 등장 인물 C가 어떠한 인물이다 등의 내용이 성립하는 듯이 말하는 맥락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맥락에 참여하거나, 맥락에 대해 비평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한다면 허구 작품이 존재하게 된다. 즉 앞에서 다룬 한 단체가 존재하게 되는 과정과 유사한 과정에 의해 허구 작품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한 단체를 생겨나게 한 합의가 명시적 선언의 형태를 갖출 필요가 없었듯이, 허구 작품을 존재하게 하는 합의 역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단체를 존재하게 한 합의가 내용 측면에서 변화할 수 있었듯이, 허구 작품에 대한 합의 내용도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작품 W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에는

<인물에 대한 훌륭한 묘사를 지님>이라는 점이 합의되었어도, 이 합의 사항이 시간을 거치면서 사라지고, 대신 <등장인물을 일차원적으로만 묘사함>이라는 점이 합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허구 작품 L에 등장하는 인물 C에 대해, L에 따라 C가 이러저러한 속성을 지닌 인물인 것처럼 말하는 맥락이 있고, 이 맥락에 참여하거나, 맥락에 대해 비평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허구적 인물 C를 발생시킨다: 우리가 ‘엘리자베스 베넷’에 대하여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서 베넷가의 둘째 딸임>, <가장 유명한 허구적 여성인물 중 하나임>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의하면, 그러한 속성을 지닌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엘리자베스 베넷이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고, 합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추가되는 과정 동안, 허구적 인물은 합의에 의해 생겨난 추상적 존재자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앞에서 유럽 영화 감상 모임이 그러했듯이, 사람들이 허구적 인물에 대해 합의한 사항은 수정될 수 있으며, 새로운 사항이 추가적으로 합의될 수도 있다. 합의 사항의 이러한 변화 자체는 기존의 허구적 인물을 제거하고 다른 허구적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존의 허구적 인물에 대한 합의라는 점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한 동일한 허구적 인물의 속성만이 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단, 허구적 인물은 관련된 허구 작품이 생겨난 뒤에, 즉 허구 작품에 해당하는 추상적 존재자가 존재할 때에만 존재할 수 있다. 애초에 한 허구 작품 L이 있다는 합의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L에서 이러저러하게 묘사되는 인물 C가 있다는 합의에 다다를 수 없었을 것이므로, C라는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이상 관련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또 합의 자체가 어떤 식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은 소멸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인 오스틴의 작품이 더 이상 읽히지 않고, 그녀의 작품을 각색해 만든 영화나 연극 등 모두가 더 이상 관객을 갖지 않게 된다고 해 보자. 이 과정이 지속되어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이 점점 잊혀지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그 누구도 『오만과 편견』이 어떠한

내용인지, 엘리자베스 베넷이 어떤 성격을 지녔다고 묘사되곤 했는지에 대해 기억하지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는 때가 올 것이다. 즉 『오만과 편견』 및 엘리자베스 베넷이라는 추상적 존재자를 존재하게 만들었던 합의가 소멸된 것이다. 그리고 합의가 소멸되면, 허구 작품 및 관련된 허구적 인물들도 소멸한다.

나는 합의에 의하여 추상적 존재자가 생겨나며, 허구 작품과 허구적 인물 역시 이러한 추상적 존재자에 속한다는 이 주장이, 허구적 인물을 만드는 활동과 상상 활동 간의 차이를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나는 상상의 산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너무나 쉽게 존재자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지적은 상상 활동이 구체성을 결여한다는 점에 기반한다고 지적했다. 상상 활동은 어떠한 실제 대상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실제 행위를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존재자를 만들어내기엔 충분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활동인 (작가의 창작 활동 및) 독자들의 합의는 상상에 비해 충분히 구체적인 활동이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려면 최소한 어떤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할 실제 사람들이 필요하다; 또한이 사람들이 합의 사항을 규제로 삼아 어떤 식으로든 이를 이행할 때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된다. 물론 상상 활동에 불과하더라도, 작가의 창작 활동도 허구 작품과 허구적 인물의 존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상상은 충분히 풍부한 내용을 갖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어서, 결국 이 상상의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한 어떤 합의에 다다르게 할 수 있다. 나는 이처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상상에 허구 작품의 창작이 속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충분히 풍부한 내용을 갖지도 않고, 이 내용이 잘 전달될 수도 없거나, 혹은 누구에게도 전혀 전달되지 않을 상상이라면,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낼 수 없고 따라서 어떠한 추상적 존재자도 만들어낼 수 없다.

### 3. 누가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인가?

나는 앞에서 내가 제시한 (T1) 및 (T2\*) 원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은 추상적 존재자로서, 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다. 즉 이들은 작가의 창작 활동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합의에 의존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이들이 갖는 속성들은 사람들이 합의한 사항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허구 작품은 ((T1)에서처럼) 작가의 창작 활동 및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의 존재에 의존하며, 허구적 인물은 작품(그리고 결국은 작품을 존재하게 한 사람들)의 존재에 의존한다. 나아가 허구적 인물이 갖는 속성들은,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한 사람들이 허구적 인물에 대해 합의한 사항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여전히 (T1)과 (T2\*)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 (T1)과 (T2\*)에서 언급되는 (i) ‘작가의 창작 활동 및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ii) 그러한 사람들이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할 때, 그들이 합의한 바는 정확히 무엇인가이다. 나는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주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줄 수 있고, 또 줄 필요가 있는 답변은 다음의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두 원칙에서 ‘작가의 창작 활동 및 내용/허구적 인물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허구적 인물에 관련된 허구 작품을 직접 읽었거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알고 있으며, 허구적 인물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 허구적 인물의 이름에 대해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속성들이 곧 ‘허구적 인물에 대해 합의한 바’이다.

물론 내가 제시한 답변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알고 있고, 주인공인 당차고 영리한 베넷가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만과 편견』을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



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 읽지 않았다면, 『오만과 편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엘리자베스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소설 속에서 엘리자베스에 대해 위에서 말한 정도의 내용이 해당된다는 것만 아는 사람도 ‘엘리자베스’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일까? 문학 평론가와 열성적으로, 혹은 건성으로 책을 훑은 독자들, 그리고 위키피디아를 통해 『오만과 편견』에 대한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엘리자베스에 대해 공유하는 바가 있을까? (T2\*)에 대해 내가 제시한 설명은 이 모든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이 곧 (T2\*)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적절치 않은 논제라거나, 나아가 이런 허술한 논제에 의거하는 존재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허구적 인물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을 지지하는 철학자들은 종종 허구적 인물의 존재론적 지위를 사회나 국가, 단체 등의 사회적 조직에 빗대어 설명하며,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구성물 및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과연 미국이 존재하는가, 혹은 유엔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의심을 품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구성물이나 조직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쉽게 단언할 수 없다; 미국이 몇 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인구가 몇 명인지, 어떠한 복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도 ‘미국’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능한가? 미국은 언제부터 존재하는가? 미국은 어떤 제도로서 존재하는가, 미국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들의 집합으로서 존재하는가? 우리는 미국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있지만, 위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쉽게 답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에 대해 우리가 공유하는 대략의 정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 존재자,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예컨대 수(數) 같은) 추상적 존재자와 달리, 허구적 인물과 같은 우연적 추상적 존재자는 이러한 모호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모호한 정의를 지닌다는 것이 곧 그것의 비존재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 제 3 절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 기존의 실재론, 반실재론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과 기존의 추상적 실재론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유하지만, 중요한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기존의 추상적 실재론과 같이 허구적 인물이 추상적 존재자이며, 허구 작품에 의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허구적 인물을 근거짓는 작품이 존재하기 위해서 작가의 창작 행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창작 행위를 아는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때 나는 작가의 창작 행위가 결국 상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허구 작품과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면 창작 행위보다 더 구체적인 무언가, 즉 작가의 창작 행위를 아는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서도 아직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이 기존의 실재론들에 비해 정말로 더 나은 선택지인지 불명확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나는 내가 제시한 추상적 실재론이 최초의 동기—허구적 인물은 수용하되 상상의 산물은 거부하는—를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추상적 실재론 일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 1.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과 기존의 실재론: 상상과 창작, 합의

나는 이 장의 첫 부분에서 기존의 추상적 실재론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상상과 창작 간의 존재론적 효력 차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구적 인물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자들은 조앤 롤링이 이마에 번개 모양의 흉터를 지닌 해리 포터라는 남자아이가 마법 학교인 호그와트에 입학한다는 내용의 소설을 창작함으로써 해리 포터라는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면, 조앤 롤링이 동일한 내용을 단순히 상상했을 때에도 해리 포터라는 상상의 대상을 존재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허구적 인물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을

받아들인다면, 어느 아이가 자기 집 부엌 선반에 살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는 분홍색 쥐, 내가 마이농의 글을 읽고 마음 속에 떠올린 둥근 사각형도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분홍색 쥐나 둥근 사각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도, 추상적 실재론자들에게 이 의견을 반영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추상적 실재론이 상상의 대상들 역시 허구적 인물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추상적 실재론자들이 창조론적 논제인 (T2)—허구적 인물은 작가의 창작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허구적 인물들은 존재하기 위해 한 작가나 작가들의 특정 행위에 의존하는 존재자로 여겨져야 한다.<sup>104)</sup>

추상적 실재론자들은 작가의 창작 행위에 의해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된다(comes to exist)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카플란Caplan은 허구 작품의 창작과 상상이 크게 다를 바 없는 행동이므로, 창작 행위에 의해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면, 상상 행위에 의해서도 상상의 대상이 존재하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카플란에 따르면, (T2)를 받아들이는 추상적 실재론자는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프렌드Friend 역시 이에 동의하며, 추상적 실재론자는 결국 상상 속의 둥근 사각형이나 분홍색 쥐까지 어떤 추상적 존재자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내가 제시한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이러한 카플란 및 프렌드의 지적에 대해 쉽게 답할 수 있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T2)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기 위해 작가의 창작 행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창작 행위 및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있는 것뿐만

---

104) Thomasson(1999), p. 7.

아니라,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에 대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합의해야 한다. 결국 작품 및 작품에 대해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 허구적 인물은 존재할 수 없다. 즉 작가의 창작 행위 자체는 허구적 인물은 물론이고, 허구 작품을 존재하게 하는 데에도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창작 행위가 허구적 인물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창작 행위가 상상과 다를 바 없는 행위이고, 상상 행위는 그 자체로 존재론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작 행위가 상상 행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창작 행위가 상상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며, 실제로 충분히 사람들에게 내용을 알릴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조앤 롤링이 호그와트라는 마법 학교를 상상하고, 여기에 입학하게 된 학생 해리 포터와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상상하기만 했다면,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녀의 상상으로만 남았다더라면 해리포터 시리즈 및 해리 포터라는 허구적 인물 역시 없었을 것이다. 반면 비록 상상에 불과한 행위더라도,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 상상된 내용이 마치 실제로 성립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맥락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비평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적절하다는 것을 합의하게 되면 추상적 존재자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상상의 산물을 존재론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결국은 창작 행위가 상상에 지나지 않지만 창작 행위로부터 허구적 인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상상 행위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 상상의 산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주장하는 바는, 엄밀히 말하자면 상상의 산물이 아닌 합의의 산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 ‘합의의 산물’이라는 것은 ‘상상의 산물’과는 분명히 다르다;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이 작가의 창작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독자들의 합의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작가 개인의 상상이 아니라 독자들의 공적인 상상이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여기서 ‘독자들의 합의’가, 독자들이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고 선언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도 아니다. 독자들이 작가가 꾸며낸 바에 대해 합의한다는 것은 곧 독자들이 작가가 꾸며낸 바를 다루는 행위의 규제를 마련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독자들이 작가가 상상한 내용을 같이 상상하는 것을 통해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작가가 상상한 내용에 대해 이러저러한 식으로 말하는 (혹은 행동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설록 홈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설록 홈즈는 가장 사랑받는 탐정 캐릭터 중 하나이다”는 참이지만, “설록 홈즈는 가장 유명한 허구 속 여성 인물 중 하나이다”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전자가 독자들이 ‘설록 홈즈’에 대한 적절한 발화라고 합의한 것에 속하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 설록 홈즈 분장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최소한 딱딱한 느낌의 옷차림을하기를 기대하지, 밝은 색 스웨터에 코듀로이 바지를 입고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그러한 차림을 하고 나타나서 자신이 설록 홈즈 분장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건 설록 홈즈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이처럼 설록 홈즈에 대한 발화 및 행위에 대한 규제가 곧 설록 홈즈를 존재하게 하는 독자들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는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최초의 합의가 반드시 그 허구적 인물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는 최초의 합의는 아주 간단한 합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난 도일이 설록 홈즈가 등장하는 소설을 쓰고, 아내에게 이 소설 원고를 처음 보여주었다고 해 보자. 아내는 원고를 다 읽고 나서, “그러니까 주인공 설록 홈즈는 피딱한 성격의 명탐정인 거지요? 재미있는 소설이네요.”라고 코난 도일에게 이야기하고, 코난 도일은 그렇다고 말하며 아내에게 고마워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는 작가인 코난 도일과 독자인 코난 도일의 부인 간에, 아주 간소한 내용만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

고 생각하며, 이 정도의 합의만으로도 허구적 인물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초의 합의가 이처럼 아주 간단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해도, 독자가 늘어나면서 점점 합의된 사항들이 풍부해지거나, 기존에 합의된 사항들이 변경 및 삭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정도의 합의를 통해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합의된 사항들이 변경되거나 확장되는 등의 변화를 겪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에 대해 이러한 의미에서의 합의가 있으려면, 애초에 작가가 꾸며낸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은 부분적으로 작가의 창작 행위에 의존한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어떤 합의에 다다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내용을 갖고, 또 충분히 알려진 상상이라면 어떤 추상적 존재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갖추고도, 즉 어떤 상상이 충분한 내용을 갖고 충분히 알려져도,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발화 및 행위의 규제라는 의미의)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엌 선반에 있는 분홍색 쥐가 사람들 몰래 살아가고 있다고 상상하는 아이가 있다고 해 보자. 이 아이는 매일 친구들과 부모에게 자신이 상상한 바를 이야기해서, 아이의 가족 및 친구들이 이 상상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건 네 상상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며, 분홍색 쥐가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맥락이 있고 그에 대해 비평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상상이 분홍색 쥐에 상응하는 추상적 존재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나는 내 주장이 결국은 상상의 산물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는 지적은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반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작가의 창작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가 있을 때, 작가의 창작 행위에 대한 독자들의 합의가 있을 때 비로소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되며, 이 때

존재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엄밀히 말해 작가의 창작 행위가 아닌 독자들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 2.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과 추상적 실재론 일반의 문제

나는 내가 제시한 추상적 실재론이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의 노선을 취함으로써, 상상의 산물이 존재론에 유입되는 것, 따라서 추상적 실재론자가 ‘무거운 존재론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상상의 산물은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허구적 인물은 ‘독자들의 합의’라는 구체적 행위에 근거하지만, 상상의 산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이 적합한지를 따져보려면, 과연 이 추상적 실재론이 추상적 실재론 일반에 대한 반론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이 상상의 산물을 존재론적으로 수용하는 길을 잘 막아준다고 해도, 추상적 실재론 일반에 대한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면, 굳이 기존의 실재론 대신 이 실재론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먼저 브록이 앞에서 제시한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에 대한 문제를 추상적 실재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 에버렛의 미결정적·비정합적 동일성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이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의 기반이 되는 또 다른 논제 (T3)를 소개할 것이다.

###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반론>

브록은 언제부터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추상적 실재론이 충분히 만족스럽게 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연적 존재자가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느냐는 문제는, 그 존재자가 어떤 것이든 간에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자만큼은

이 문제에 정확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이나 조각상 같은 ‘일반적인’ 우연적 존재자에 대해서도 이것들이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이냐고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하지만 이 경우 진정한 문제는 이 개체의 본성과 동일성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며, 개체의 존재 시점은 이로부터 따라나오는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다. 반면 브록은 허구적 인물이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느냐는 질문은 허구적 인물의 본성 및 동일성 조건을 통해서는 답해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사람이나 조각상 같은 개체들은 구체적 대상으로서, 우리의 판단과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추상적 실재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허구적 인물은 인간의 특정한 활동에 의존하여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상적 실재론자는 그 특정한 활동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허구적 인물이 생겨나는지를 설명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은 바로 추상적 실재론자가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즉 어떻게 허구적 인물이 생겨나는지에 결부된 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브록은 추상적 실재론자가 언제부터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추상적 실재론에서 가능한 답변들을 차례차례 검토한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답변도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존재자를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추상적 실재론이 이론을 지탱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에 적절히 답변하는 것에 실패한다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충분히 브록이 제기한 문제에 적절히 답할 수 있다고 본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사람들의 합의가 일어난 시점부터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기 시작한다. 물론 나는 이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브록이 지적한 것처럼,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 하에서 허구적 인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안다면 허구적 인물이 생겨나는 시점을 알 수 있으며,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 내놓은 답—허구적 인물은 사람들의 합의가 일어난 시점부터 존재한다—에서는 브록이 지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다.

브록은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 문제에 대하여 추상적 실재론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장은,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을 작가의 의도와 연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추상적 실재론자가 작가의 의도에 의해 허구적 인물이 생겨난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입장이 너무 많은, 혹은 너무 적은 존재자를 만들어내는 문제를 겪지는 않더라도, 너무 쉽게 반례에 부딪히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 작품에 관련된 허구적 인물의 존재에 대해 우리의 직관과 작가의 의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작가는 오로지 한 인물만을 존재하게 하고자 했는데, 독자인 우리의 직관에는 복수의 인물이 존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거나, 작가는 어떠한 인물도 존재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독자의 직관으로는 다수의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sup>105)</sup>

2.2.절에서 나는 이미 브록이 제시한 반례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설령 이 반례들이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가정해도,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이 반례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이 (작가의 의도를 고려한) 독자들의 합의에 의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허구적 인물의 존재에 있어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의도가 충돌하는 문제를 겪지 않기 때문이다. 브록이 제시한 사례 중 하나를 다시 살펴보자. 브록은 코난 도일이 사실 한 명인 것 마냥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는 왓슨 쌍둥이가 있다는 의도를 갖고 왓슨의 전쟁 부상이 다리에 있다고도 서술하고, 어깨에 있다고도 서술했다면, 과연 도일의 의도대로 두 허구적 인물인 왓슨 쌍둥이가 존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독자들의 판단대로 한 허구적 인물 왓슨이 존재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독자들이 코난 도일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전혀 모르고 왓슨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오로지 한 명의 의사 왓슨에 대한 합의만 일어났다면, 하나의 허

---

105) 자세한 내용은 2.1.1. 참고.

구적 인물 왓슨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일에 코난 도일의 일기에 관련된 글이 적혀 있었음이 발견된다면, 독자들은 이를 합의 사항에 반영하여 두 허구적 인물이 있다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 혹은 코난 도일의 의도는 그러했을 지라도, 복수의 인물 왓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설의 정합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원래의 합의 사항을 고수하여 단 하나의 허구적 인물 왓슨이 있다는 것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 결국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독자의 의도에 의해서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입장을 옹호한다면 브룩이 제시한 반례들이 큰 문제가 된다고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브룩의 논의는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 대해 유효한 반론이 될 수 없다.

#### <미결정적·비정합적 동일성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반론>

브룩은 추상적 실재론이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을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 원치 않는 존재자를 받아들이거나, 원하는 존재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위에서 나는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이 이 문제를 잘 피해간다는 점을 보였다. 한편 에버렛은 추상적 실재론자가 받아들이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동일성 조건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자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고 지적한다. 나는 이러한 에버렛의 반론 역시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 대해 유효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의 중심이 되는 두 논제 (T1)과 (T2\*)에 더하여, 허구적 인물이 갖는 속성에 대한 논제인 (T3)를 소개해야 한다.

(T3) 허구적 인물이 갖는 속성들은 허구적 인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허구적 인물에 대해 합의하는 바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제시한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의 두 논제 (T1)과 (T2\*)에 따르면,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작가의 창작 행위 및 작품이 작가 외의 타인들에게 알려짐으로서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여러 사항에 함의하게 될 때 허구 작품이 존재하게 되며, 유사한 과정을 통해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된다. 즉 허구적 인물은 작가의 창작 행위, 그 중 작가가 허구 작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술한 특정 등장 인물에 대해 사람들이 여러 사항에 대해 함의할 때 존재하게 된다. 이 때 허구적 인물이 갖는 속성들은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허구적 인물은 사람들이 관련된 합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자신의 속성으로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셜록 홈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이 성립한다고 합의하는데, 이 중에는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에 따르면, 탐정임>,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에 따르면, 베이커 가 221b번지에 거주함> 등의 형식을 띤 것도 있으며, <코난 도일의 『얼룩무늬 줄』의 주인공임>, <가장 유명한 허구적 탐정 중 하나임> 등의 형식을 띤 것도 있다. (T3)는 이렇게 합의된 사항들이 허구적 인물인 셜록 홈즈가 갖는 속성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때 우리가 셜록 홈즈에 대해 <탐정임>, <베이커 가 221b번지에 거주함> 등이 성립한다고 합의하지 않고,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에 따르면, 탐정임>,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에 따르면, 베이커 가 221b번지에 거주함> 등이 성립한다고 합의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셜록 홈즈가 탐정이고, 런던에 거주하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에 대해 이러한 것들이 성립하는 것처럼 상상하고 묘사했다(그리고 우리 역시 셜록 홈즈가 실제로 그러한 대상인 듯 말하는 것이 적절한 맥락이 있다)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허구적 인물은 구체적 대상과 확연한 차이를 갖게 된다: 먼저 구체적 대상은 사람들의 합의와 독립적으로 존재·변화·소멸하는 대상이지만, 추상적 대상은 사람들 간의 합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합의에 의하여 변화하거나 소멸한다. 결국 허구적 인물은 합의에 의존하여 존재하고 변화하는 추상적 존재자이므로, 추상적 존재

자가 지닐 수 있는 종류의 속성, 즉 시공간적 위치를 점유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속성들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의 세번째 중심 논제인 (T3)에 근거하여 에버렛이 제기한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먼저 반실재론적 논증 중 에버렛이 제기한 반론을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자. 에버렛은 허구적 인물에 대한 모든 실재론이 다음의 두 원칙을 전제한다고 주장한다: (P1) 만약 한 이야기의 세계가  $a$ 라는 창조물에 대한 것이고,  $a$ 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면,  $a$ 는 허구적 인물이다. (P2) 만약 한 이야기가  $a$ 와  $b$ 에 대한 것이고, 만약  $a$ 와  $b$ 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a$ 와  $b$ 는 그 이야기의 세계에서 동일하다 iff  $a$ 라는 허구적 인물이  $b$ 라는 허구적 인물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두 원칙을 받아들이면, 추상적 실재론자는 서로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적인 존재자, 그리고 존재하는지 아닌지 자체가 미결정적인 존재자 등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에버렛은 추상적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을 존재론에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러한 미결정적 대상의 존재는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을텐데, (P1)과 (P2)를 받아들이는 추상적 실재론은 미결정적 존재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내가 제시한 추상적 실재론은 에버렛이 제기한 이 반론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 일단,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에버렛의 반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 따르면 이 두 원칙 중 (P2)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한 허구적 작품 속에서  $a$ 와  $b$ 에 대해 묘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a$ 와  $b$ 에 대해 합의한 사항에 의해 허구적 인물인  $a$ 와 허구적 인물  $b$ 의 속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실재론자들이 (P1)과 (P2)를 받아들인다는 에버렛의 전제는 옳지 않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 근거하면, 허구적 인물에 대한 실재론을 지지하면서 (P2)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에버렛이 (P1)과 (P2)를 받아들이는 실재론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그의 타겟 범위에서도 벗어난다.

이처럼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이 실재론에 대한 에버렛의 기본적 전제를 부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나는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이 에버렛의 타

겟에 해당하게 된다고 해도, 에버렛이 제시한 구체적 반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에버렛은 허구 작품이 그리고 있는 세계가 정합적인지 비정합적인지, 또 비정합적일 경우 어떠한 식으로 두 인물 간의 동일성이 미결정적인지에 따라 총 세 종류의 존재론적 미결정성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허구 작품이 그리고 있는 세계가 정합적이지만, 두 등장인물이 동일한지 아닌지가 (작가의 의도에 의해) 미결정적일 수도 있으며, 허구 작품 속의 세계가 비정합적이고, 두 등장인물이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적일 수도 있다. 이 때 두 등장인물 간의 동일성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지만, 무엇이 참인지가 (의도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작품이 있을 수 있고, 두 등장인물이 허구 작품 속의 세계에서 정말로 동일하지도, 동일하지 않지도 않은 그러한 작품도 있을 수 있다. 에버렛은 이 세 종류의 사례에서 모두 추상적 실재론자가 존재론적 미결정성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문제를 겪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에버렛이 제시한 사례에서 존재론적 미결정성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반론할 수 있다. 어떤 허구 작품  $L$ 이 그 자체로는 정합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고, 여기에 서로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적인 등장인물  $a$ 와  $b$ 가 있다고 해 보자.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허구적 인물이 갖는 속성은 사람들이 허구적 인물에 대해 합의한 사항에 의해 결정되므로, 허구적 인물  $a$ 와  $b$ 가 동일한지 아닌지도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 때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다: 먼저 맥락에 따라 사람들이 < $L$ 에서  $a$ 와  $b$ 가 동일하다>, 혹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에 합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실재론자가 존재론적 미결정성 문제를 겪지 않게 된다. 하지만 에버렛의 의도와 더 적합하게, 사람들이 실제로  $L$ 에서  $a$ 와  $b$ 가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적이라고 합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실재론자가 존재론적 미결정성 문제를 겪게 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합의한 사항은 < $L$ 에서  $a$ 와  $b$ 가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적임>이라는 것이지, < $a$ 와  $b$ 가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적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보통 허

구적 인물 a와 허구적 인물 b가 (개별적으로) 있으며, 이 두 대상이 각각 <L에서 b와 동일한지 아닌지 미결정적임>, <L에서 a와 동일한지 아닌지 미결정적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합의할 것이다. 즉 사람들은 각 대상에 대해, 실제로 이 두 대상이 동일한지가 미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두 대상이 L에서 동일한지가 미결정적인 것처럼 묘사되었다는 점에 합의한다. 그리고 이는 관련된 작품 L이 그리는 세계가 비정합적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에버렛이 제시한 사례들은 추상적 실재론에 대한 반례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sup>106)</sup>

혹자는 이러한 답변이 결국은 작품에서 진정한 모호한 대상을 다루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에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말로 서로 동일한지 아닌지가 미결정적인 두 대상을 임의적으로 서로 다른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두 사항이 정당한 반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가 제시한 추상적 실재론에서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한 사람들의 합의 내용이 허구적 인물의 속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하지만 작가의 의도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역시 사람들의 합의에 맡겨진 것이며, 작가의 의도 자체가 추상적 존재자인 허구적 인물의 속성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sup>107)</sup> 따라서 작가가 진정한 모호한 대상을 다루고자 의도했다는 것만으로, 허구적 인물을 진정으로 모호한 존재자로 만들 수 없다.

마찬가지로 허구 작품에서 두 인물의 동일성이 진정으로 모호하게 그려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진정으로 모호한 두 추상적 존재자를 만들어내야 할 이유는 없고, 그것이 임의적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볼 이유도 없다; 사람들이 L에 등장하는 a와 b에 대해 어떤 것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합의할 때, 단순히 귀찮거나 성가시다는 이유로

106) 사실 이러한 식의 답변은 내가 제시한 추상적 실재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추상적 실재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답변이다.

107) 사실 내가 제시한 추상적 실재론에 따르면, 작가의 의도 자체는 허구적 인물의 속성을 결정짓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구적 인물 자체를 존재하게 하지도 못한다.

제비뽑기를 통해 마구잡이로 합의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닌 한, 사람들이 합의한 어떠한 내용도 ‘임의적’이지 않다. 게다가 모호하게 묘사된 두 인물에 대하여 사람들이 특정한 내용들에 합의하고, 개별적인 두 추상적 존재자를 만들어내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두 대상이 관련된 작품에서는 서로 동일한지 아닌지가 모호하게 그려진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거나 임의적이라는 지적이 내 답변에 대해 유효한 반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답변은 작가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는 셈인데다가, 임의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이러한 방식의 답변이 에버렛이 제시한 또 다른 종류의 미결정성 사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허구 작품에 존재 자체가 미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하든, 얼마나 많은 수의 개체가 등장하는지 미결정적이든 간에,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사람들이 작품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사항을 합의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임의적이지도, 작가의 의도를 파괴하지도 않는다.

결론짓자면, 나는 내가 제시한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이 상상의 산물과 허구적 인물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해줄 수 있으며, 나아가 브록 및 에버렛이 제기한 문제들을 잘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제시한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작가의 상상 및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이 성립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적절한 맥락이 있으며, 이런 맥락에 대해 비평적 태도를 취하는 것 역시 적절하다는 합의를 이루었을 때 허구 작품이 존재하게 되고, 허구적 인물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때 사람들의 합의란, 허구 작품 및 허구적 인물에 대한 발화 및 행위를 특정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행위로, 단순한 공적 상상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들의 합의에 의해 존재하는 허구적 인물의 속성은, 독자들이 합의한 사항에 의해 결정된다. 나는 이 주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과 달리 상상의 산물까지 존재론에 도입해야만 한다는 ‘무거운 존재론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 반실재론

자들이 제기한 몇가지 문제들을 수월하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그리고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이 갖고 있던 문제를 피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나는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이 기존의 어떠한 추상적 실재론보다 설득력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결론

허구적 인물에 대한 추상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이 추상적 대상으로서, 작가에 의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추상적 실재론은 다른 실재론들 및 반실재론이 지닌 문제를 잘 해결해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반 인와겐, 크립키, 셸먼 등 많은 철학자들이 추상적 실재론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다른 입장들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실재론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중 나는 추상적 실재론이 상정하는 허구적 인물이라는 대상이 존재할 경우, 형이상학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과연 추상적 실재론이 어떠한 형이상학적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때 추상적 실재론이 지닌 형이상학적 문제는 크게 추상적 실재론 일반의 문제와 추상적 실재론 내부의 문제로 나뉘어진다. 추상적 실재론 일반의 문제는 반실재론자인 브룩과 에버렛이 제기한 형이상학적 문제로, 이들은 각각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의 문제 및 미결정적·비정합적 동일성의 문제가 추상적 실재론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형이상학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한편 추상적 실재론 내부의 문제는, 추상적 실재론자가 허구적 인물 및 신화적 대상을 넘어 상상의 산물까지 받아들이는 무제약적 추상적 실재론, 그리고 상상의 산물을 거부하는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 중 무엇을 택하든 간에 심각한 존재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 나는 추상적 실재론 일반에 제기된 문제들 및 이에 대해 추상적 실재론의 입장에서 제기된 기존의 반론들을 검토하고, 브룩과 에버렛이 제기한 문제들이 아직 제대로 반박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추상적 실재론자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나는 추상적 실재론자가 추상적 실재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추상적 실재론을 구성함으로써, 추상적 실재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 실재론 일반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였다. 그

리고 내가 제시한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이러한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실재론이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추상적 실재론자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두 논제 중 하나를 받아들이고, 하나를 거부한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이 허구 작품에 의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허구적 인물이 작가의 창작 활동에 의해 (충분히) 결정된다는 것은 부정한다. 이를 부정하는 이유는, 창작 활동이 상상 활동과 거의 유사한 존재론적 효력을 지니는데, 상상 활동은 어떠한 대상도 존재하게 하지 못하고, 창작 활동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의 존재는 받아들이지만, 상상의 산물의 존재는 부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우 작가의 창작 활동 외에 어떤 활동이 허구적 인물을 존재하게 하느냐는 점인데,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에 따르면, 허구적 인물은 작가의 창작 활동과 더불어 독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이 때 독자들이 합의하는 내용은, 실제로 있는 일인 양 작가가 꾸며낸 이러저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이 실제로 성립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 맥락이 있으며, 이 맥락에 대하여 비평적 태도를 취하는 것 역시 적절하다는 점 등이다. 물론 독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선언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에 합의하는 것은 아니다; 독자들이 이러한 내용에 합의한다는 것은 곧 이러한 내용을 허구적 인물 및 허구 작품에 대한 발화와 행위의 규제로 삼는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이러한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이 추상적 실재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추상적 실재론 일반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였다. 먼저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의 길을 택함으로써 무계약적 추상적 실재론이 갖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이 작가의 창작 활동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합의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독자들의 합의처럼 구체적인 행위가 아닌 상상 행위는 존재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설명

함으로서, 기존의 제한적 추상적 실재론이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브룩과 에버렛이 제기한 추상적 실재론 외부의 문제 역시 잘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독자들의 합의가 있는 시점부터 허구적 인물이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브룩이 제기한 허구적 인물의 존재 시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허구적 인물이 어떠한 속성을 지니는지가 독자들이 합의한 사항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추상적 실재론 하에서는 미결정적·비정합적 동일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임으로서 에버렛이 제기한 형이상학적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기존의 추상적 실재론이 지닌 장점—다른 실재론들 및 반실재론이 지닌 문제를 해결해준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추상적 실재론의 내부적 문제 및 외부적 문제를 모두 해결해준다. 따라서 새로운 추상적 실재론은 허구적 인물에 대한 여러 입장 중 가장 설득력있는 입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Brock, S. (2002). "Fictionalism about fictional characters." *Noûs*, Vol. 36, No. 1. pp. 1-21.
- \_\_\_\_\_. (2010). "The creationist fiction: the case against creationism about fictional characters." *Philosophical Review* 119(3). pp. 337-364.
- Caplan, B. (2004). "Creatures of Fiction, Myth and Imagination."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Vol. 41, No. 3. pp. 331-337.
- Crane, T. (2013). *The objects of thought*. Oxford University Press.
- Currie, G. (1990). *The nature of fi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verett, A. (2005), "Against Fictional Realism."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102, No. 12. pp. 624-649.
- \_\_\_\_\_. (2013). *The nonexistent*. Oxford University Press.
- Frege, G. (1948). "Sense and Reference."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57, No. 3. pp. 209-230.
- Friend, S. (2007). "Fictional Characters." *Philosophy Compass*, Vol 2, Issue 2. pp. 141-156.
- Gendler, T. (2013). "Imaginatio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all 2013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3/entries/imagination/>>.
- Jacob, P. (2014). "Intentionality",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Winter 2014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4/entries/intentionality/>>.
- Kripke, S. (1980). *Naming and Necess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Vacuous Names and Fictional Entities.", in *Philosophical Troubles. Collected Papers Vol I*. Oxford University Press. pp. 52-74.
- \_\_\_\_\_. (2013), *Reference and Existence: The John Locke*

*Lecture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Kroon, F. and Voltolini, A. (2011). "Fictio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all 2011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1/entries/fiction/>>.

Lewis, D. (1978). "Truth in Fiction."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Vol. 15, No. 1. pp. 37-46.

Parsons, T. (1980). *Nonexistent Objects*. Yale University Press.

Quine, W. V. (1948). "On What There Is."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2, Issue 1. pp. 21-38.

Routley, R. (1980). *Exploring Meinong's Jungle and Beyond: an investigation of noneism and the theory of i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Russell, B. (1905). "On Denoting." *Mind*, New Series, Vol. 14, No. 56, pp. 479-493.

Salmon, N. (1998). "Nonexistence." *Noûs*, Vol. 32, No. 3, pp. 277-319.

\_\_\_\_\_. (2002). "Mythical objects." in *Meaning and truth: Investigations in philosophical semantics*. Seven Bridges Press New York, pp. 105-123.

Schnieder, B. and Von Solodkoff, T. (2009), "In Defense of Fictional Realism.",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59, Issue 234. pp. 138-149.

Thomasson, A. L. (1999). *Fiction and Metaphys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2010). "Fiction, Existence and Indeterminacy." in John Woods, ed. *Fictions and Models: New Essays*. Munich: Philosophia Verlag, pp. 109-148.

\_\_\_\_\_. (2015). "Fictional Discourse and Fictionalisms." in Anthony Everett and Stuart Brock, eds. *Fictional Objec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55-274.

Van Inwagen, P. (1977). "Creatures of Fiction."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Vol. 14, No. 4, pp. 299-308.

Walton, K. L. (1990). *Mimesis as Make-Believe: On the foundations of the representational arts*. Harvard University Press.

Zalta, E. N. (1983). *Abstract Objects: An introduction to axiomatic metaphysics*. D. Reidel Publishing Company.

Abstract

# The New Abstract Realism of Fictional Characters

Paek Chae Young

Department of Philosophy, Western Philosoph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ealism is one of the realist theories of fictional characters; according to the abstract realist theory, fictional characters are abstract objects created by an author. Fictional characters such as Sherlock Holmes or Jane Eyre do not occupy any spatio-temporal location, but exist in the actual world as abstract artifacts. Philosophers such as Kripke, Salmon and Thomasson argue that fictional names definitely have referents, and propose theories that account for what kind of objects that fictional names refer to.

This abstract realist theory of fictional characters holds a prominent position over other realist theories, since it captures the intuition that other realist theories fails to: the intuition to consider a fictional character as something that is created by an author. Furthermore, abstract realism also has advantage over anti-realism in semantical analysis of fictional sentences. Abstract realism accords

well with our common sense, and it also analyze certain kinds of fictional statements quite well; but still, there are problems that pose serious threat to the theory. The problems are that what abstract realists postulate as a fictional characters seems to cause some critical problems to our ontology. In my thesis, I will divide these metaphysical problems of abstract realism into two category; the general problems of abstract realism and the internal problems of abstract realism. After addressing the overall problems, I will suggest the new abstract realism that can solve both type of problems well.

The general problems mainly pertain to the abstract realism's failure to provide appropriate accounts for the ontological status of fictional characters. Anti-realists such as Brock and Everett argue that accepting fictional characers as abstract objects in the actual world leads to problematic ontology of actual objects. Brock points out that given what they suggest as the condition of coming into being of fictional characters, abstract realists are forced to take too many or too less entities into our ontology. On the other hand, Everett claims that if we accept abstract realists' identity condition of fictional characters, we have to take indeterminate entities or vague entities into our ontology of actual objects. As a result, the general problems of abstract realism leave two unacceptable options for abstract realists; they have to either accept the outcome of those problems and accept a bizarre ontology of actual objects, or to renounce the abstract realism itself.

The general problems concerns what any type of abstract realism confronts; any abstract realist must address the general problems. On the other hand, what kind of internal problems each abstract realist faces can differ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abstract realism that is concerned. Abstract realism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unrestricted abstract realism includes fictional characters as well as imaginary objects in our ontology whereas restricted abstract realism does not take imaginary objects into our ontology. And while each type of abstract realist theories has its own advantages, each also faces serious ontological problems respectively. Following unrestricted abstract realism, imaginary objects are contingent actual objects just like fictional objects. That is, imaginary objects are something that are created by someone's imagination, just as fictional objects are something that are created by an author. But if a simple imagination can create entities, entities can be so easily taken into the ontology under the unrestricted abstract realism. Caplan points out that this is a heavy ontological burden for a philosopher, and that no philosopher would be willing to be under this considerable strain.

Admittedly, a restricted type of abstract realism can avoid this ontological burden. However, it faces its own problem; if an abstract realist endorses a restricted type over unrestricted type, she must account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agination and the creation of fiction. Since restricted abstract realism denies that imagination, unlike creation of fiction, cannot create any kind of entity, restricted abstract realism needs to explain the difference in terms of ontological force between imagination and the creation of fiction. In this respect, Caplan points out that providing a proper account for the difference between imagination and creation of fiction in terms of ontological force is not an easy job. Therefore, an abstract realist cannot dodge metaphysical problems, regardless of what type of abstract realism she chooses to accept; she either faces the heavy ontological burden or heavy explanatory burden, and neither cannot be easily solved.

So far, those two kinds of problems have not been dealt properly;

among the abstract realists, only Thomasson tried (and failed, according to Everett) to solve the general problems. But even if Thomasson's solutions for the general problems works, she still needs to look into the internal problems. Under the lack of overall solutions for the general and internal problems of abstract realism, I will propose the new abstract realism that can resolve both issues.

The new abstract realism falls under the category of the restricted abstract realism; that is, the new abstract realism does not consider imagination to hold any ontological force. But the new abstract realism also accepts that creation of fiction is very similar to imagination. What I reject is that creation of fiction itself is sufficient to make fictional characters come into existence; under the new abstract realism, the act of creation of fiction does not have any more ontological force than the act of imagination, and imagination does not have any ontological force. That is, imagination, as well as creation of fiction, is incapable of making up any entities. A fiction and related fictional characters come into existence only when the readers reach an agreement. The agreement happens when the readers agree upon the author's intention to set certain contexts where talking as if what is described in the fiction is really held in the actual world. Specifically, the agreement is reached under the following steps: first, some readers, after the creation of a fiction is completed, agree that there are certain contexts where talking as if what the author pretended to be obtained in real life actually obtains is permitted. And second, they agree that it is appropriate to participate in or to take critical attitudes toward these contexts. Lastly, they, at least partly, carry through the agreement in the appropriate contexts.

The new abstract realism, just like other abstract realisms, does

not demand any separate category of entities to which the fictional characters belong. Just as a nation or a society comes into existence by people's agreement upon a contract or a discussion, a fictional character comes into existence by the readers' agreement upon a certain contents; and they belong to the same ontological category, namely the category of abstract artifacts. In the new abstract realism, accepting the existence of fictional characters does not lead to accepting the existence of imaginary objects; fictional characters and the related fiction come into existence by the creation of the author and the agreement among readers. In this respect, the existence of fictional characters does not depend solely on the author's creation; the agreement among the readers is the necessary for fictional characters to exist.

Thus, in consequence, the new abstract realism does not bear any of the internal problems; since the new abstract realism is a type of restricted abstract realism, it naturally avoids the ontological burden that the unrestricted abstract realism carries. And it also avoids the explanatory burden of original restricted abstract realism by denying that the creation of fiction itself, along with imagination, is insufficient to create any entities. Moreover, it will be shown in my thesis that the new abstract realism can solve the general problems by providing more proper account for the ontological status of fictional characters. In conclusion, I expect the new abstract realism to be the most convincing version of abstract realist theories of fictional characters.

**keywords : fiction, fictional character, fictional name, abstract realism, metaphysics**

***Student Number : 2013-20049***